

I. 이 책은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 및 自體研究 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研究執筆 任 孝 宰

(서울大學校 人文大學教授)

刊行責任 楊 昌 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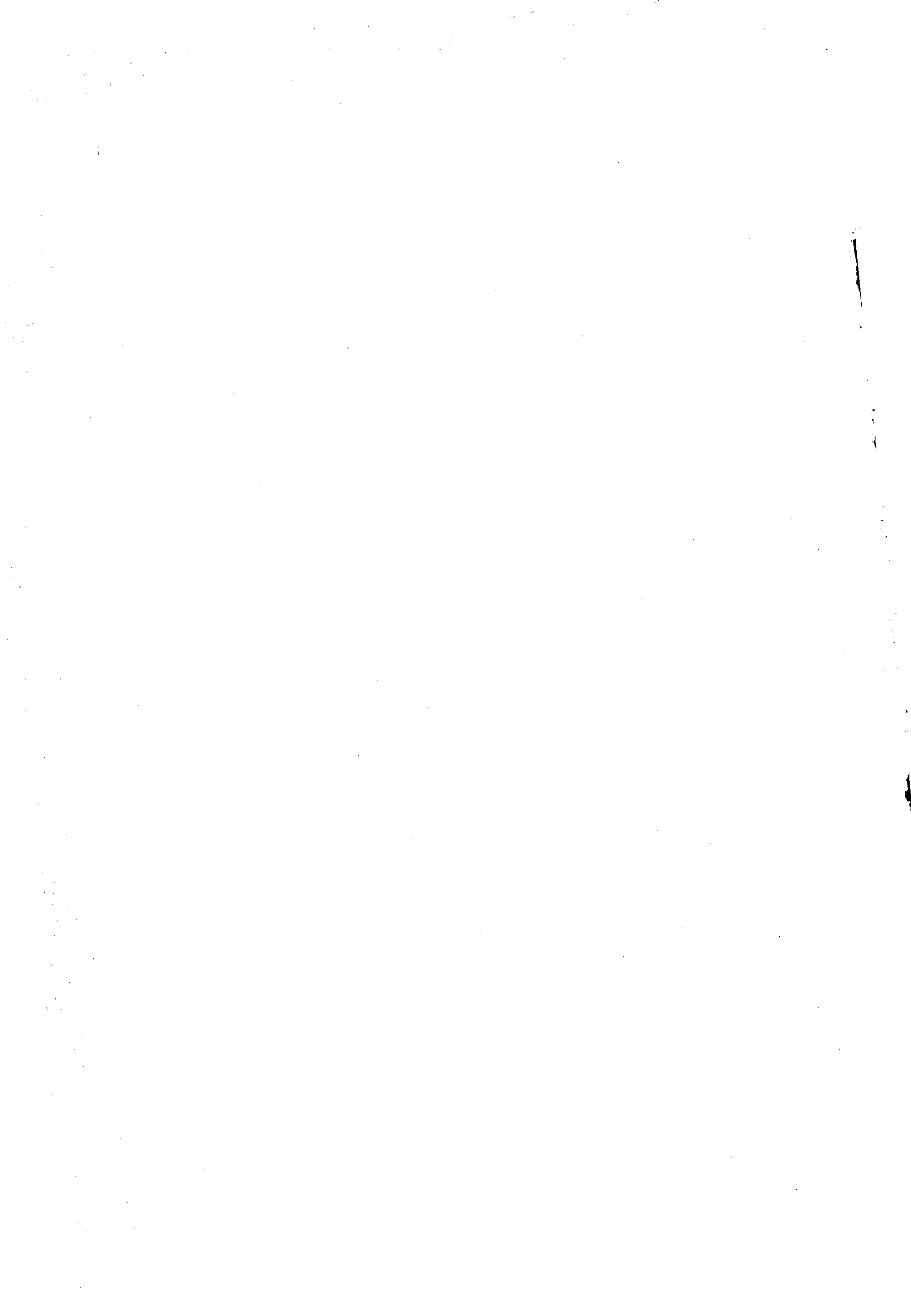
(調查研究室 事務官)

國土統一院調查研究室

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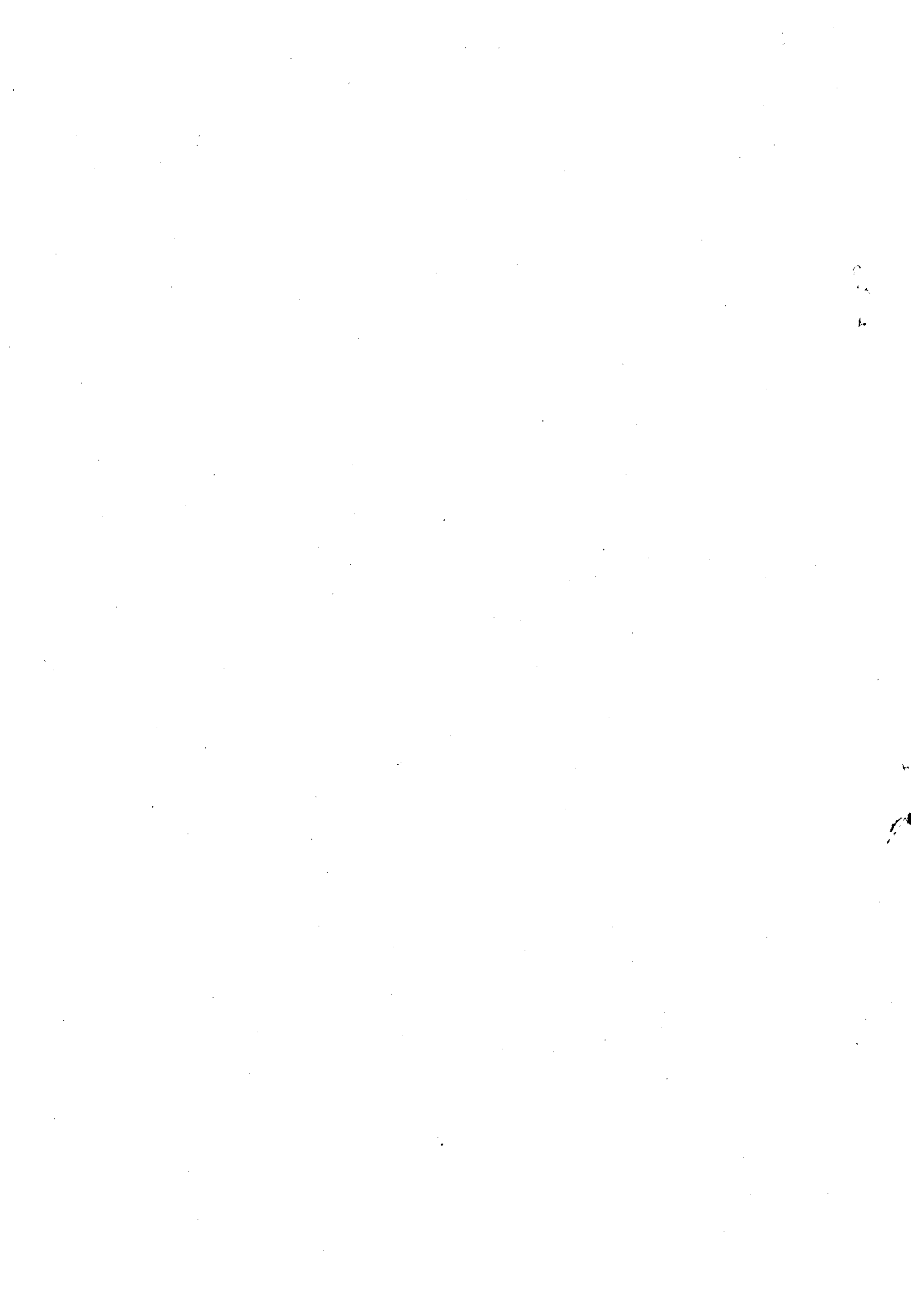
執筆者 楊 昌 錫

(調查研究室 事務官)



目 次

I. 序 言	5
II. 文化財의 概念	7
III. 北韓의 文化財政策 및 管理行政	10
IV. 北韓所在 文化財에 대한 우리政府의 配慮	17
V. 北韓의 文化財 有形別 保存實態	22
가. 遺物·遺蹟	22
나. 無形文化財	42
다. 名勝地 및 天然記念物	61
VI. 南北韓文化財 交流方案	87
가. 交流의 必要性	87
나. 交流의 目的	87
다. 北韓提議의 特徵	88
라. 交流의 限界性 및 基本方針	90
마. 段階別 推進方案	93
VII. 結 論	104



I. 序 言

- 北韓은 소위 “社會主義 民族文化建設”이란 이름아래 우리 民族의 文化遺産을 共產主義式 文化로 改造시켜 政治宣傳活動의 매개물로 活用하고 있다.
- 특히 유물사관에 입각한 民族文化遺産에 대한 研究는 순수 民族文化의 正統性 研究에 惡影響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종교 내지는 반봉건 政策으로 佛敎寺刹 또는 各種 文化財들의 保存에 지장을 초래케 하고 있다.
- 그러나 解放後 北韓은 政權의 正統性을 正當化하고, 金日成 個人 偶像化를 圖謀하기 위해 그들 나름대로 各種 文化財의 保存管理(調查發掘, 復原 및 改修)에 주력해 왔다.
 - 解放直後 안악고분을 비롯 80년대 남경유적등 선사시대 遺跡과 高句麗 古墳을 다수 發掘하여 考古學 部門에서 다소의 研究成果를 거두었고,
 - 이를 根據로 正統性 조작을 위한 民族史 歪曲을 自行해 왔으며, 나아가서 이를 金日成의 ‘革命史的 正統性’과도 연결시키고 있다.
- 이와같이 분단후 北韓이 “맑스주의”라는 이방적 價値體系의 부식을 위해서 우리 文化의 傳統을 변조적으로 適用, 해석하는 한편, 金日成 偶像文化를 建設함에 따라 北韓地域에서는 民族固有文化의 純粹性이 말살되고 文化財의 價値도 상당히 歪曲·變質되어 있다.

- 이에 따라 文化財가 民族公有의 文化遺産이라는 시각에서, 北韓의 文化財 保存實態를 把握하고 文化財分野에서의 南北交流協力 方案을 摸索해 보는 것은 文化史的 統合을 試圖하는데 긴요한 일이라 하겠다.

II. 文化財의 概念

- 北韓에서도 “文化財”란 用語를 使用하고는 있으나, 우리 文化財 保護法上的의 規定과 같이 그 定義와 分類가 整然하게 整理되어 있지 않다. 北韓의 關係文獻과 宣傳媒體들의 報道에서는 우리의 動産文化財에 該當하는 文化財들을 “物質文化遺物”이라 表現하고 있으며, 有形文化財中の 建造物과 歷史的 記念物, 즉, 貝塚, 古墳, 城址, 宮址, 窯址 기타 史蹟地와 景勝地를 總稱하여 이를 “歷史遺跡”이란 말로 흔히 使用하고 있다.
- 北韓에서의 文化財의 價値는 그것이 階級鬭爭을 立證하는데 어느정도 價値가 있는가, 또는 그 文化財가 “社會主義的 文化建設”이라는 階級的 文化를 만드는데 必要한 것인가에 따라 決定된다.
즉, 아무리 우수한 文化財일지라도 共產主義 理論에 부합되지 않으면 無價値한 것이며, 오히려 그런 文化財는 破壞되어야 하는 것이다.
- 따라서 文化財가 創作되던 당시의 생활상이나 信仰性, 藝術性은 問題가 안되고 현재의 시점에서 階級的 立場에서 비판되고, 革命의 利益에 맞게 評價되어야 한다고 한다.
 - 즉, 有·無形文化財, 名勝古跡地등이 階級的 文化에 有益한 것만 保存하거나 社會主義的으로 改作·修正을 일삼고 있으며,
 - 遺跡·遺物의 해석도 階級文化에 맞는 것만 해석하고 또 그 理論에 맞추려 할 뿐만아니라,

- 民俗資料도 生産技術道具이며, 階級鬭爭의 한 수단이며 道具로 밖에 해석하지 못한다.
- 또한 學術的·歷史的 價値는 불문하고 金日成의 敎示에 의해 文化財를 변조 또는 날조하는 반문화적 行爲가 自行되는등 北韓에서의 文化財價値 設定의 基準은 오직 “階級文化”이고 그것이 “社會主義的 愛國主義 敎養”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 文化財 保護法上的의 文化財 概念

- 一般의 概念 : 우리 民族이 이룩한 有形·無形의 모든 文化的 所産을 包括하는 文化遺産
- 有形文化財 : 有形의 文化的 所産으로서 歷史的 또는 藝術的 價値가 큰 것
 - (1) 建造物 (2) 전적·고적·고문서 (3) 회화·조각
 - (4) 공예품 (5) 참고자료 (6) 무구등
 - 指定別 國家指定 : 國寶·寶物
 - 市·道指定 : 市·道 有形文化財
- 無形文化財 : 無形의 文化的 所産으로서 歷史的 또는 藝術的 價値가 큰 것
 - (1) 演劇 (2) 音樂 (3) 舞踊 (4) 工藝技術
 - 指定別 國家指定 : 重要 無形文化財
 - 市·道指定 : 市·道 無形文化財
- 記念物
 - 史蹟地 : 歷史上·藝術上 價値가 큰 것 (宮址, 窯址, 寺址등)

- 名勝地：藝術上·觀賞上 價値가 큰 것
- 天然記念物：動物·植物·鑛物로서 學術上 價値가 큰 것
- 指定別 國家指定：史蹟·名勝·天然記念物
市·道指定：市·道記念物
- 民俗資料：風習·慣習과 이에 사용되는 衣服·機具·家屋 등으로 國民生活의 慣習을 이해하는데 불가결한 것.
- 指定別 國家指定：중요 民俗資料
市·道指定：市·道 民俗資料

Ⅲ. 北韓의 文化財 政策 및 管理行政

가. 第 1 期

— 해방후 ~ 6.25 —

- 北韓은 解放이후 몇차례 걸쳐 文化財에 관한 法令을 制定하여 民族文化遺産을 法的으로 保護·保存하는 措置를 취한 바 있다.
- 南北分斷 直後에는 政權의 正統性을 內外에 과시하기 위해 “民族文化遺産의 繼承發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文化財의 調査 保存 및 科學的 研究와 이를 바탕으로한 일제 식민지 文化政策을 청산할 것을 強調하는 한편,
- 住民의 愛國主義 思想鼓吹와 大衆教養事業에 利用하기 위해 民族遺産 研究를 장려하였다.

● 關聯 金日成 演說

— 20 개조 정강(金日成 放送演說, 1946.3.23)

· 17 : 民族文化의 적극적 發展 圖謀

— 北朝鮮 各道 人民委員會, 政黨, 社會團體, 宣傳員, 文化人, 藝術人 大會에서 한 演說

1 차 (1946.5.24) : “文化人들은 文化戰線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

2 차 (1946.9.26) : “民主建設의 現계단과 文化人의 任務”

內容 : 우리 民族의 文化遺産을 계승하며
社會主義 國家文化를 성취

— 勞動黨 綱領 10 條：“朝鮮民族文化藝術·科學의 正常的 發展을 圖謀할 것”

— 이에따라 이 時期에는

- 文化財에 관한 國家的 保護措置를 취하기 위해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 保護令”(1933)과 같은 일제시대의 法制度를 그대로 답습, 현상유지의 잠정적 조치를 취하였고
- 博物館을 建立하여 지역내의 遺蹟調查, 蒐集研究, 大衆敎養事業을 擔當케 하였으며,
- 최초로 遺蹟發掘調查 事業을 進行하기도 하였다.
평양시 낙방리 주변 한식(漢式) 고분발굴 (1947)
안악 고구려고분, 나진 초도유적 (1949)
궁산원시 유적 (1950) 등

● 法的措置 變遷內容

1946. 4.29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 保護令” 發表

— 各道에 “古蹟 保存委員會” 設置

1947. 각지에 博物館 建立

— 既存의 平壤博物館外에 청진, 신의주, 함흥, 묘향산

1948. 2 “古蹟保存 中央委員會” 創設

— 遺物·遺蹟事業의 統一的 指導 監督위한 中央機關 設置

1948.11 “朝鮮 物質文化遺物調查 保存委員會” 내각 직속기구로 설치

1949. 8 내각결정 100호 “物質文化遺物保存에 관한 規定”
公布

나. 第2期

— 6.25 이후의 50년대 —

- 6.25 動亂後 金日成 1人獨裁體制가 점차 구축되면서 全體主義的 共產主義 文化構造로 개편 體制構築을 圖謀하는 한편, 韓國과의 대결 상황에서 正統性 確保를 노려, 民族文化遺産을 利用한 文化宣傳을 本格的으로 進行하였다.
- 특히 이 時期에는 前後 經濟復舊事業과 관련, 埋藏文化財의 調査發掘이 활발하였고 發掘調査 專擔機關 設置, 專門要員 養成等 體系的인 制度改革을 보았다.
이로인해 “勞動黨의 영도에 의해 人民政權을 장악한 社會主義 制度下에서만 民族文化遺物이 保存되고 民族文化가 開化된다”고 하면서 體制優越性を 宣傳하기도 하였다.
- 6.25 후의 發掘調査에 관한 法的 措置
 - 6.25 로 피해를 입은 文化財의 復舊 保存을 위해 내각지시 23호 “文化遺物 및 天然記念物 保存事業을 強化할데 대하여” 발표
 - 1954. 내각지시 92호 “各種 建設工事 過程에 출도하는 遺蹟과 遺物을 科學적으로 處理할데 대하여” 발표
- 行政 및 研究機關
 - 文化財 保存管理의 行政責任을 중래 物質文化遺物 保存委員

會에서 文化宣傳省 “文化遺物保存局”으로 移管

- 1952년 科學院(현재의 社會科學院)內에 物質文化研究所(현재의 考古學研究所) 設置
- 1957년 “物質文化研究所”를 “考古學 및 民俗學研究所”로 개편하고, 研究所 機關誌 “文化遺産”을 비롯 “遺蹟發掘報告” “考古學 資料集”등을 시리즈 형식으로 發刊

○ 專門要員 養成

- 부족한 考古學 專門家들을 보충하기 위해 歷史學部 학생들을 동원, 古蹟發掘隊 組織

- 北韓은 이러한 순수 學術的인 遺蹟發掘 및 文化財 復舊에도 당성, 노동계급성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強調하는 한편 (“歷史遺蹟과 遺物을 잘 保存할데 대하여”, 1958.4.30. 김일성 저작집 제 12 권), 50년대 후반에 들어와 遺蹟地를 遊園地로 開發, 소위 “人民들의 文化休息處”라고 하여 勤勞者들을 革命傳統과 愛國主義 精神으로 교양하는 장소로 이용 “群衆文化”政策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다. 第3期

— 60년대 —

- 北韓 文化構造의 정착기라 볼 수 있는 이 時期에는 文化財 補修, 整備事業이 대대적으로 進行되었다.
- 1964년 各 道(市)에 文化遺物 保存事業所를 設置 文化財 整備를 擔當케 하였으며,

- 1963년부터 1966년까지 文化省 傘下 該當機關, 內務省, 道市經營省, 關係學者, 科學知識普及協會 일군들을 비롯한 道別로 組織된 專門委員會와 市·道 답사단의 연계하에 文化遺物·遺蹟 再調査 確認考證事業을 전개하였다.
- 또한 “굴포리” “검은모루” 등 선사시대 遺蹟들을 發掘, 韓半島에서의 전기구석기시대 존립을 確證 주장하기도 하였다.
- 한편 博物館 建立 및 擴張에 주력하여 이를 “思想教養의 偉力한 據點”으로 활용하면서 金日成 偶像化政策 展開에 따라 革命戰跡地 整備등 소위 革命文化財를 중시하여 날조된 文化財가 등장하게 된다.

라. 第4期

- 70년대 -

- 70년대 이후 北韓은 復古主義的 경향을 반대하는 革命主義的 民族文化 建設을 표방한 후 (“民族文化遺産 繼承에서 나서는 몇가지 問題에 대하여”, 金日成 著作集 25 권) 1972년에 채택된 「新憲法」 제 37 조에서 民族文化遺産을 “社會主義 現實에 맞게 繼承發展” 시킨다고 명문화 하였다. 이는 北韓의 文化構造가 完全히 共產主義的 文化로 改造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이후 民族固有의 文化遺産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北韓의 文化政策은 金日成 偶像文化로 變質되어 날조된 革命遺蹟管理가 수없이 強調된다.
- 이에 따라 北韓全域에 金日成銅像, 革命戰跡地, 革命史蹟地, 革命

博物館과 革命史蹟館, 各種 記念碑(館) 등 소위 “大記念碑的 創造物” 들을 大量으로 세워 金日成 崇拜 및 思想教養場所로 활용하고 있다.

- 北韓은 또한 “당성, 노동계급성의 원칙과 歷史主義 原則에 立脚한 遺物評價事業을 벌여 75년까지 3,200여개의 遺蹟과 119,000여건의 遺物을 評價 完了하고, 遺蹟을 金日成 教示對象 遺蹟과 國寶對象 遺蹟으로 區分 遺蹟資料 臺帳을 完成하였다”고 주장하였다.(’76 朝鮮中央年鑑)

마. 第5期

— 80년대 이후 —

- ’80.10 제6차 당대회이후 김정일 後繼體制가 表面化 되면서 北韓의 文化政策은 김정일에 의해 主導되고 있는데,
 - ’73.9 秘密 黨幹部會議에서 김일성의 장남 김정일이 後繼者로 내정된 후 김정일은 權力基盤을 文化·藝術界에서부터 構築하기 시작하였고(黨 文化藝術部 部長등 역임)
 - ’80년대 이후 김정일이 權力基盤이 強化되어 事實상의 제2의 實權者가 되자 김정일의 影響力은 각 부문에서 크게 나타나는 동시에 김정일 찬양등 그에대한 偶像化 作業을 進行하고 있다.
- 이에따라 民族文化遺産 保存政策도 김정일의 “指導와 配慮”에 의해 強化되고 있다고 宣傳하고 있다.
 - 1981.5. 묘향산 遺蹟地區 現地指導 실시

- '81. 社會科學院 「民族古典研究所」에서 “李朝實錄” 翻譯
完了
- “朝鮮戰史” 全 33 卷 發刊
- 묘향산 遺蹟地區에 八萬大藏經 保存庫 建立 (勞動新聞 '83.
12.25) 및 八萬大藏經 解題事業 進行中
- 最近에 100 名으로 構成된 「古蹟發掘隊」組織 (中央放送 '84.6.28)
- 한편 北韓은 “상원 검은모루 유적” 出土遺物を 根據로 平壤을 民族起源 發生地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韓半島內의 最初의 統一國家는 신라가 아니라 고려라고 주장하는등 韓半島內의 北傀政權의 法統性和 正當性を 歷史적으로 合理化하기 위해 歷史歪曲을 서슴치 않고 있다.

<表 - 1 >

現 北韓의 文化財 管理體制

機 構	機 能
中央：文化遺物保存指導局 (政務院直屬) 文化遺蹟管理所	文化財의 保存·管理·復原· 改修
中央：社會科學院傘下의 考古學研究所 歷史研究所 民族古典研究所 地方：各地博物館	文化財의 調查·發掘·研究

IV. 北韓所在 文化財에 대한 우리政府의 配慮

가. 文敎부의 指定

- 1960 년까지 政府는 北韓地域 文化財에 대해서도 우리의 文化財로 指定하여 왔었다.

1960.12.30. 文敎部發行 指定文化財 目錄中 北韓所在 文化財를 拔萃하면 다음과 같다.

種 別	數 量
國 寶	63 점
古 蹟	41 점
古 蹟 및 名 勝	1 점
名勝 및 天然 記念物	2 점
天 然 記 念 物	36 점
計	143 점

나. 文公부의 第1次 指定

- 1962 년 文化財保護法의 制定과 함께 종래의 國寶를 國寶와 寶物로 분리하고 古蹟을 史蹟으로 改稱하면서 北韓文化財에 대한 指定은 일단 그 公布를 保留하였으나,
- 1969 년부터 北韓所在 文化財 再審에 着手하여 1971.3.1 現存 하고 있다는 確實성이 認定되는 有形文化財중 52 점을 골라 1次的으로 “北韓所在 文化財”로 指定 公布하였다.

- 이는北韓에 있는文化財를指定함으로써北韓의民族文化抹殺政策에 대한大韓民國의自由文化振興政策을對外에誇示하고, 장차統一에對備하여北韓文化財保存管理를 위한基本政策을樹立함으로써文化面에서의對北優位性を確保하기 위한措置였다.

<表-2>

北韓所在文化財指定目錄

(1971.3.1.文化公報部)

指定番號	指定名稱	所在地
1	개성남대문	경기도 개성시 북안동
2	관음사(觀音寺) 대웅전	경기도 개풍군 영북면
3	심원사보광전(心願寺 普光殿)	황해도 황주군 구락면 덕양리
4	성불사응진전(成佛寺 應眞殿)	황해도 황주군 주남면 정방리
5	대동문(大同門)	평안남도 평양시 이내동 1~6
6	평양보통문(普通門)	평안남도 평양시 서성동 5~1
7	부벽루(浮碧樓)	평안남도 평양시 경산동
8	용천서문외(龍川西門外) 석당(石幢)	평안북도 용천군 동하면 사흥리산 7
9	용천 다라니석당(陀羅尼石幢)	평안북도 용천군 동상면 동부동 9
10	영통사지(靈通寺趾) 오층석탑	경기도 개풍군 영남면 현북리
11	영통사지 동삼층(東三層) 석탑	"
12	영통사지 서삼층(西三層) 석탑	"
13	해주석빙고(石氷庫)	황해도 해주시 상동 53~1

指定 番號	指 定 名 稱	所 在 地
14	해주 다라니석당(陀羅尼石幢)	황해도 해주시 남옥동 47~34
15	광조사 진철대사보월승공탑비(廣照寺眞徹大師寶月乘空塔碑)	황해도 해주시 금산면 냉동리 산 370
16	현화사비(玄化寺碑)	경기도 개풍군 영남면 현화리 904
17	영통사지 대각국사비(大覺國師碑)	경기도 개풍군 영남면 현화리 198
18	용천구읍내 석불입상(石佛立像)	평안북도 용천군 동상면 성서동 산 8
19	용천구읍내 석수(石獸)	"
20	해주 백세청풍비(百世淸風碑)	황해도 해주시 광석동 80
21	개성 연복사(演福寺) 종	경기도 개성시 북안동 남대문루상(樓上)
22	평양 동종(銅鐘)	평안북도 평양시 이문동 1
23	북청(北靑) 여진문자석각	함경남도 북청군 속진면 창성리 임(林) 47
24	개성 침성대(瞻星臺)	경기도 개성시 만월동 81~1
25	개성 선죽교(善竹橋)	경기도 개성시 원동 262
26	개성 만월대(滿月臺)	경기도 개성시 만월동 71~8
27	봉산(鳳山) 후류토성(鶻鷗土城)	황해도 봉산군 토성면 문정리
28	용강(龍岡) 안성리 대총(大塚)	평안남도 용강군 지운면 안성리 242
29	용강안성리 쌍영총(雙楹塚)	"
30	용강안성리 수렵총(狩獵塚)	평안남도 용강군 대벌면 매산리 287

指定 番號	指 定 名 稱	所 在 地
31	용강 신덕리 패총(貝塚)	평안남도 용강군 신영면 신덕리 519
32	용강 신덕리 감신총(龕神塚)	평안남도 용강군 신영면 신덕리 428~2
33	강서간성리(江西肝城里) 연화총(蓮花塚)	평안남도 강서군 보림면 간성리 547
34	강서 삼묘리(三墓里) 고분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면 삼묘리 934
35	순천북창리 태왕지신총(太王地神塚)	평안남도 순천군 북창면 북창리 241
36	낙랑토성지(樂浪土城址)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면 토성리~조왕리
37	성천(成川) 동명사관지(東明舍官址)	평안남도 성천군 성천면 상부리
38	안변(安邊) 가학루(駕鶴樓)	함경남도 안변군 학성면 홍문리
39	양원사(梁源寺) 대웅전(大雄殿)	평안북도 안주군 동주면 봉명동
40	학림리(鶴林里) 오층석탑	황해도 장연군 전택면 학현리 557
41	자혜사(慈惠寺) 오층석탑	황해도 신천군 남부면 청양리 196
42	대방태수장무이묘(帶方太守張撫夷墓)	황해도 봉산군 문정면 구룡리 1059~1
43	대성산성(大聖山城)	평안남도 대동군 임원면 자족리
44	전(傳) 안학궁지(安鶴宮址)	평안남도 대동군 임원면 북사리
45	대화궁지(大華宮址)	평안남도 대동군 부산면 남궁리 30
46	태천(泰川) 농오리산성(籠吾里山城)	평안북도 태천군 서성면 산성리~상귀리

指定 番號	指 定 名 稱	所 在 地
47	홍원 (洪原) 천계봉산성	함경남도 홍원군 학천면 용능 리산 19
48	홍원성령석성 (洪原石城)	함경남도 홍원군 학천면 신상리
49	홍원부민동고분군 (古墳群)	함경남도 홍원군 학천면 풍호리
50	북청 청해토성 (靑海土城)	함경남도 북청군 청해면 토성 리 973
51	웅기 (雄基) 송평동 패총 및 주 민지 (住民址)	함경북도 웅기군 웅기읍 송평 동
52	용성 (龍城) 농포동패총 (農圃洞貝 塚)	함경북도 경성군 용성면 농포 동

V. 北韓의 文化財 有形別 保存實態

가. 北韓의 遺物·遺蹟

- 北韓社會의 閉鎖性으로 인해 正確한 統計를 내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確認된 北韓의 遺蹟發掘現況을 時代別로 나누어 보면 구석기시대 - 7개소, 신석기시대 - 약 10개소, 청동기시대 - 약 30개소, 초기철기시대 - 약 15개소, 三國時代以後의 遺蹟 - 30여개소로 추정된다.

(1) 舊石器時代

- 北韓에서 舊石器時代의 遺蹟이 처음 調査된 것은 함북 중성군 동관면 동관진 遺蹟으로 1933년 前 京成大學의 森爲三 教授에 의해 調査되었고, 1935년에 森爲三, 德永重康 두 教授에 의하여 發掘되었으나, 공식적인 인정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63년에서 1964년에 걸쳐 함북 응기군 굴포리 서포항과 그 북쪽 부포리에서 舊石器時代 遺物이 發見됨으로써 韓半島에서의 舊石器時代의 存在가 確認되게 되었다.

이어 1966년에는 평남 상원군 부근의 흑우리(검은모루) 동굴에서 남방계 동물뼈 化石과 타제석기 퇴적층이 發掘되어 韓半島에서의 前期 舊石器時代 存立을 確證할 수 있게 되었다.

北韓에서 發掘된 舊石器時代 遺物·遺蹟現況은 다음과 같다.

<表-3>

北韓所在 舊石器時代 遺蹟現況

유적명	위치	발굴연대	내용
굴포리 유적	함북웅기군굴포리	63-64	○ 연대 40-60 만년전 ○ 발견된 유물·유적 { 움막집자리터, 자연석에 가까운 석기, 석기퇴적층, 석회암동굴, 열대성동물, 뼈화석, 유원인골
장덕리 유적	함북화대군장덕리	"	
부포리 유적	함북웅기군부포리	"	
검은모루유적	평남상원군흑우리	66-70	
청암동굴유적	평양시청암동	69-70	
해상동굴유적	황해북도평산군	"	
승리산유적	평남덕천군승리산	71-72	

○ 한편 北韓에서 지금까지 發掘調査된 內容을 토대로 主要 舊石器時代 遺蹟들을 時期別로 細分化하면 다음과 같다.

(가) 舊石器時代 前期

○ 1966년에 發見된 平壤市 상원군 검은모루 遺蹟은 舊石器時代 前期初로서 약 60-40 만년전에 해당한다. 여기서 는 홍적세 中期에 속하는 큰쌍코뿔이, 넓적큰 뿔사슴, 검은모루 땅쥐등의 화석이 주먹도끼, 뽕족끝석기, 망치등의 석기와 함께 출토되었다.

(나) 舊石器時代 中期

○ 웅기군의 굴포리 遺蹟은 각혈암제의 석기가 出土되는 舊石器時代 後期層(굴포문화 2기)과 석영암제의 석기가 出土되는 中期層(굴포문화 1기)으로 나누어진다. 中期層에서는 石器外에도 당시 천막을 치고 생활하였던 것으로

여거지는 유구도 調査되었다.

- 덕천유적에서는 2개체분의 人骨과 함께 2,000여점의 動物化石, 石器등이 出土되었는데 이곳 人骨中 승리산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계의 人骨은 “덕천인”이라 명명되었다.

(다) 舊石器時代 後期

- 舊石器時代 後期の 遺蹟으로는 서포항 굴포문화 2기층과 부포리 덕산유적, 덕천상층이 있다. 앞의 두 遺蹟에서는 찍개, 긁개, 밀개, 칼날과 같은 石器가 出土되었으며, 덕천상층에서는 현생 人種(Homo Sapiens)에 속하는 “승리산인”이 발견되었다.

(2) 新石器時代

- 1950년 평남 온천군 궁산리에서 전형적인 즐문토기가 나오는 遺蹟이 發見된 이래 1960년까지 꾸준히 新石器時代의 遺蹟發掘이 이루어졌으나 약 20년동안 별다른 成果가 없다가 1979년에 들어와서 平壤市에서 남경유적이 새로 發掘 調査되었다.

解放以後 北韓에서 發掘된 新石器時代 遺蹟은 다음과 같다.

<表-4> 北韓所在 新石器時代 主要 遺蹟現況 (解放以後 發掘)

유적명	위치	발굴연대	내용
궁산원시유적	평남온천군해운면	50	○ 견혈주거지(5기), 석기, 토기, 수우의 뼈

유적명	위치	발굴연대	내용
금탄리유적	평양시사동구역	55	○ 발견된 유물·유적
지탑리유적	황해도봉산군문정면	57	조개무지, 집단거주지, 골작기(송곳, 바늘등), 마제석기(농기구·무기), 가축뼈, 방추차, 유문토기(빗살무늬), 반달칼등 청동기 일부
무산범의구석	함북무산군무산리	59	
충강군토성리유적	자강도충강군토성리	60	
굴포리서포항	함북용기군굴포리서포항동	62-63	
세죽리유적	평북영변군세죽리	62-63	
용연리유적	평북용천군용연리	72	
남경유적	평양시삼석구역호남리	79-81	○ 대표적 유물 - 31호 집자리

(3) 靑銅器時代

- 北韓에서의 靑銅器時代 遺蹟發掘은 1949년 함북 나진군 초도 遺蹟의 發掘로부터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300기가 넘는 住居址와 수백기에 달하는 墳墓가 發掘 調査되었는데 이들을 綜合적으로 研究한 論文도 수편이 發表되었다.

주요 遺蹟現況은 다음과 같다.

<表-5> 靑銅器時代 主要 遺蹟現況 (解放以後 發掘)

유적명	종류	위치	발굴연대	내용
회령오동	주거지	함북회령군	54-55	○ 400 m ² 발굴범위에서 9기 주거지확인
원암리원시유적	주거지	평양시강남군원암리	55	○ 주거지 2기, 석검, 반월형 석도

유적명	종류	위치	발굴연대	내용
상매리	석상분	함북 청진시 능포리	56	
심촌리	주거지	황해북도황주군	58-59	○ 지석묘와 주거지
신흥동	주거지	황북 봉산군 봉산읍	58	
미송리	동굴유적	평북 의주군 미송리	59	○ 두개의 문화층, 하층은 신석기, 상층은 청동기
범의구석	주거지	함북 무산군 무산읍	59-61	○ 신석기말기 - 철기초기의 50여채 주거지, 기원전 2,000년(제1기) - 기원전 3세기(6기)
묵방리	지석묘	평남 개천군 묵방리	60	○ 20여개의 변형고인돌
와산동	주거지	평양시서성구역	61	○ 확인된 6기중 1기발굴, 각형토기
세죽리	주거지	평남 연변군 영변읍	62-63	○ 신석기 1기, 청동기 23기, 철기주거지 3기등 3개문화층
신암리	주거지	평북 용천군 신암리	64-65	○ 신석기, 청동기, 고구려층, 즐문토기, 각형토기, 철제
영흥읍	주거지	함남 영흥군	64	○ 주거지 10기확인, 용범, 유구석부

유적명	종류	위치	발굴연대	내용
주암리	주거지	황북 인산군	65	○ 주거지 1기, 석상분 1기, 변형지석묘 1기
중리	주거지	함남 북청군	65	○ 주거지 3기 확인
대평리	주거지	평남 북창군 대평리	67	○ 주거지 25기, 지석묘 2기, 석상분 6기, 제 2 지구에는 철기시대 주거지
오덕리	지석묘	황북 연탄군	71	○ 지석묘 21기, 주거지 1기

(4) 初期 鐵期時代

- 初期鐵期時代 遺蹟의 發掘은 주로 토광묘와 住居址의 發掘로 大別되는데, 토광묘로서는 황북 황주군 천주리 한밭골 (1955), 황북 은파군 갈현리 화석동 (1956), 평남 강서군 태성리 (1957), 평남 안악군 북사리 망암동 (1958), 황남 재령군 부덕리 수역동 (1959), 평양시 만경대 (1959), 평양시 용산리 (1961) 등이 있으며, 주거유적으로는 함북 재령군 오동 (1954), 자강도 시중군 십귀리 (1958), 함북 무산군 호곡동 (1959), 자강도 중강군 토성리 (1960), 평남 영변군 영변읍 (1962), 평남 북광군 대평리 (1967) 등이 있다. (괄호안은 발굴연도임)

(5) 三國時代(高句麗)

- 현재 北韓地域과 압록강 이북지방에는 많은 수의 高句麗時代 遺蹟이 散在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調査

되고 있는 것은 壁畫古墳으로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모두 58기에 달하나 그중 28기는 해방전에 調査된 것이고 해방후에 調査된 것은 30기이다. 그러나 이 58기중에서 21기는 만주 輯安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北韓內에 位置하고 있는 것은 모두 37기인데 이중 17기는 해방전에 20기는 해방후에 調査되었다.

지금까지 發掘調査된 高句麗 壁畫古墳을 輯安一帶 소재와 北韓 소재로 大別하여 각각 해방전과 그후 發掘된 것으로 細分하여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表-6>

高句麗의 벽화고분 發掘實態

시기 지역	해 방 전 발 굴	해 방 후 발 굴
집안일대 소재	(11기) 무용총, 角抵塚, 散蓮化塚, 三室塚, 통코우사신총, 環文塚, 龜甲塚, 美人塚, 통코우 5호분, 통코우 12호분, 통코우 18호분	(10기) 중공에 의해 발굴조사 長州 1號, 2號墳, 麻線溝 1號墳, 下解放 31號墳, 萬寶汀 1368號墳, 山城下 332號, 938호분, 통코우 4호분, 禹山下 41號墳, 五盛墳 4號
북한소재	(17기) 노산리 개만총, 내리 1호분, 호남리사신총, 고산리 1호분, 9호분, 남경 1호분, 진성리 1호, 4호분, (이상 8기는 평양소재) 강서대묘, 강서중묘, 연화총, 쌍영총, 용강대총, 성총, 매산리사신총, 감신총, 천왕지신총(이상 9기는 평남소재)	(20기) 평양역전벽화분(평양), 가장리벽화분, 약수리벽화분, 합성리 1호, 2호분, 수산리벽화분, 대안리 1호분, 마영리벽화분, 팔청리벽화분, 요동성총, 우산리 1호, 2호, 3호분, 대보산리벽화분, 보산리벽화분, 덕흥리벽화분(이상 15기는 평남소재) 안악 1호, 2호, 3호분, 복사리벽화분(이상 4기는 황해도소재)

- 이상 解放後 北韓에서 실시된 遺蹟發掘調査의 現況을 時代別로 나누어서 整理해 보았는데, 遺蹟別로는 古墳이 壓倒的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時代別로는 三國時代(高句麗)의 것이 단연 우세하다. 이와같은 遺蹟發掘 性向은 이 時代의 遺蹟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根本的인 이유는 호화로운 遺物이 多量 埋藏되어 있는 古墳을 집중적으로 發掘함으로써 蒐集된 遺物을 통해 文化的 優越性을 對內外的으로 宣傳하고 나아가 北韓政權의 正統性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構造的으로나 出土遺物로나 다양한 古墳의 發掘이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唯物史觀的 社會發展 5段階法則”을 뒷받침하는데 더욱 適當한 資料를 提供해 주기 때문이다.
- 參考로 최근까지 保存과 所在가 確認된 遺物·遺蹟등 특히 중요한 것만 골라 그 價値等級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7〉 國 寶 級

順位	文化財名	位 置	創建年代	備 考
1	大同門	平壤市 區域 慶上洞	高句麗時代	門樓는 1635年 (李朝 仁朝 13年) 再建立
2	普通門	平壤市 中區域 普通門洞	不 詳	1473年 改修, 1954年 復舊
3	大 墓	平南 江西郡 三墓里		
4	中 墓	"		
5	小 墓	"		
6	藥水里壁畫古墳	平南 江西郡 藥水里	4世紀末~5世 紀初	
7	蓮 花 塚	平南 江西郡 台城里		壁畫
8	台城里 第1號 古墳	"		
9	台城里 第2號 古墳	平南 江西郡 台城里		
10	龍岡大塚	平南 龍岡郡 龍岡邑 진 지洞	5世紀頃	壁畫
11	大安里 第1號 壁畫古墳	平南 龍岡郡 大安勞動 者區		1955年頃 發掘
12	雙 盈 塚	平南 龍岡郡 龍岡邑 진 지洞		壁畫
13	狩 獵 塚	平南 溫泉郡 화도리		"
14	龕 神 塚	平南 溫泉郡 新寧里		"
15	星 塚	"		
16	粘 蟠 碑	平南 溫泉郡 城峴里	AD. 178	
17	眞坡里 高句麗 古墳	平南 中和郡 무진리 (과거 眞坡里)		
18	東 明 王 陵	平南 中和郡 무진리		1947年 發掘(高 句麗 古墳中 最古)
19	天王地神塚	平南 順川郡 北創里	4世紀末~5世 紀	
20	遼 東 城 塚	平南 順天郡 龍峰里		1953年 發掘, 古墳 壁畫

順位	文化財名	位 置	創建年代	備 考
21	博川淑源寺	平北 博川郡 上楊里		高麗 恭愍王 17 年 에 改築
22	普賢寺	平北 香山郡 香岩里 妙香山	1024 年(高麗 顯宗 15 年)	6.25 時 全燒
23	普賢寺 8 角 13 層 塔	"		
24	海州 5 層 塔	黃南 海州市 玉溪里	高麗初期	
25	海州다리나 幟	黃南 海州市 海清洞		
26	安岳第 1 號古墳	黃南 安岳郡 大楸里		1949 年 發掘, 古 墳壁畫
27	함 박 외 (安岳第 2 號古墳)	"		
28	하 무 덩 (安岳第 3 號古墳)	"		
29	冠山里 고인돌	黃南 殷栗郡 冠山里		
30	鶴林寺 5 層 塔	黃南 長淵郡 長淵邑	高麗初期	
31	成佛寺	黃北 鳳山郡 正方里	898 年(新羅孝 恭王 2 年)	1957 年 復舊
32	成佛寺 5 層 塔	"		
33	燕灘心源寺	黃北 燕灘郡 燕灘邑	不 詳	1374 年(高麗 恭 愍王 23 年)改築
34	開城南大門	開城市 北安洞	1393 年(李朝 光宗 2 年)	6.25 時 破壞, 1955 年 復舊
35	佛日寺 5 層 塔	開城市 太平洞	951 年(高麗 光 宗 2 年)	長豐郡 西岩里 佛 日寺에 있던것을 1960 年 移轉
36	善竹橋	開城市 善竹洞	高麗 中葉	
37	靈通寺 5 層 塔	開城市 龍興里	高麗初期	
38	靈通寺西 3 層 塔	開城市 龍興里		
39	恭愍王陵과 正陵	開城地區 開豐郡 海仙 里	1022 年	高麗王陵 中 代表 的인 것.
40	玄化寺 碑	開城地區 長豐郡 月古 里	1020 年	
41	玄化寺 7 層 塔	"		

順位	文化財名	位 置	創建年代	備 考
42	賀 鶴 樓	江原道 安邊郡 안변읍	137~743年(新羅孝成王)	1963年 復舊
43	釋 王 寺	江原道 高山郡 雪峰里	1386年(고려공민왕 39년)	6.25時 全燒
44	長淵寺 3層塔	江原道 金剛郡 內剛里	新羅時代	
45	金藏岩獅子塔	"	高麗時代	
46	妙 吉 祥	"	高麗末期	
47	妙吉祥岩 石燈	"	"	
48	眞興王 巡狩碑		568年 咸興 長	
	①黃草嶺碑	함흥 역사 박물관	568年 咸興 長津郡 黃草嶺에 있던 것임.	
	②摩雲嶺碑	咸興 本宮本館	568年 咸興 利原郡 摩雲嶺에 있던 것임.	
49	鏡 城 南 門	咸北 鏡城郡 勝岩勞動者區	1433年(李朝世宗 15年) 6.25時 破壞되었으나 1961年 復舊	
50	受 降 樓	咸北 鍾城郡 鍾城邑	1608年(李朝宣祖 41年)	

〈表 - 8〉 實 物 級

順位	文化財名	位 置	創建年代	備 考
1	平 壤 鍾	平壤市 中區域 慶上洞	不 詳	現在 鍾 1716年(李朝 肅宗 42年) 製造
2	崇 仁 殿	平壤市 中區域 西門洞	1325年(高麗忠肅王 12年)	1428年 改造, 1954年 復舊
3	五 詢 亭	平壤市 中區域 萬壽洞	1707年(李朝 肅宗 33年)	平壤 監營에 있던 것을 1933年 現位置로 移轉
4	七 星 門	平壤市 牡丹峰區 七星門整	922年(高麗太祖 5年)	

順位	文化財名	位 置	創建年代	備 考
5	弘福寺 6角7層塔	平壤市 牡丹峰區域 中央 歷史 博物館앞		원래 平川洞에 있던 것을 日帝時 平壤驛 앞으로, 1933年 現 位置로 移轉
6	永明寺 8角石佛	平壤市 牡丹峰區域 永明 寺터	高麗初期	
7	重興寺 幟竿文柱	平壤市 牡丹峰區域 仁興 2洞	高句麗 廣開土 王時	
8	安 國 寺	平南 順川郡 봉학역	503年	現建物, 1786年(李 朝 正祖 10年) 再建
9	慈福寺 5層塔	平南 成川郡 成川邑	高麗時代	
10	義州南門	平北 義州郡 義州邑	不 詳	1631年(李朝 光海 君 5年) 改造 6.25 時 破壞, 1958年 復舊
11	統 軍 亭	"	高麗初期	1538年(李朝 中宗 33年) 再建
12	龍川다라니石鏡	平北 龍川郡	1027年(高麗 顯宗 18年)	
13	龍川西門밖石鏡	平北 枇峴郡		
14	龍川舊邑里石獸	平北 枇峴郡	高麗時代	
15	長庚寺 5層塔	平北 郭山郡	"	
16	寧 邊 南 門	平北 寧邊郡	1416年(李朝 太宗	후에 現位置로 移轉
17	天 柱 寺	平北 寧邊郡	1683年(李朝 肅宗	
18	捷 雲 寺	平北 寧邊郡	1354年(高麗 忠穆王 1年)	
19	普賢寺 9層塔	平北 香山郡	1044年(高麗 靖宗 10年)	
20	海州石氷庫	黃海南道 海州市 玉溪洞	高麗初代	
21	海州 9層塔	黃南 海州市 海清洞	高麗時期	1735年(李朝 英 祖 11年) 改築
22	神光寺 5層塔	1324年(高麗 忠惠王 3年)	黃南 海州市 神 光里	現在는 8層만 保存
23	神光寺無字塔	黃南 海州市 神光里	高麗時代	1705年(李朝 肅宗 31年) 改修
24	紹賢書院	黃南 碧城郡 土峴里	1578年(李朝 宣朝 11年)	李栗谷이 建立

順位	文化財名	位 置	創建年代	備 考
25	慈惠王 5層塔	黃南 信川郡 書限里	高麗時代	
26	慈惠寺石燈	黃南 信川郡 書限里	高麗時代	
27	貝 葉 寺	黃南 安岩郡	新羅 애장왕 (9世紀初)	本 建物は, 6.25時 全燒, 附屬 建物만 現存
28	月 精 寺	黃南 安岩郡 月精里	李朝初期	
29	冠山里 고인돌	黃南 殷栗郡 冠山里	新石器末	
30	演 福 寺 鍾	開城市 北安洞 南大門樓	1346年(高麗 忠穆王 2年)	1563年(李朝 明宗 18年)演福寺의 全 燒로 南大門에 옮겨 감.
31	興 國 寺 塔	開城市 同興洞	1021年(高麗 顯宗 12年)	姜邯贊將軍의 建立, 1935年 탑제동에서 現 位置로 移轉
32	開 國 寺 石 燈	開城市 同興洞	935年(高麗 太祖 18年)	
33	觀 音 寺	開城市 山城里	970年(高麗 光宗 21年)	現 建物は 1646年 (李朝 仁祖 24年) 에 再建
34	萃藏寺 舍利塔	開城市 龍興里	14世紀末	
35	靈通寺東3層塔	開城市 龍興里	高麗初期	
36	靈通寺大覺 國 師 碑	開城市 龍興里	1125年(高麗 仁宗 3年)	大覺國師 弟子들이 建立한 碑
37	靈通寺幢竿支柱	開城市 龍興里		
38	玄化寺幢竿支柱	開城地區 長豐郡 月古里	1020年(高麗 顯宗 11年)	
39	塔 洞 3 層 塔	開城地區 板門郡 興旺里	高麗初期	
40	長 安 寺 寺	江原道 金剛郡 內剛里	551年(新羅 眞興王 12年)	6.25時 全燒
41	三 佛 岩	江原道 金剛郡 內剛里		
42	西 山 大 師 碑	江原道 金剛郡 內剛里	1632年	西山大師의 事蹟을 記念
43	正 陽 寺 石 燈	江原道 金剛郡 內剛里	新羅時代	

順位	文化財名	位 置	創建年代	備 考
44	宣 化 堂	咸興市 盤龍區 萬歲洞	李朝時期	現建物は 1764 年 (李朝 英祖 40 年) 에 改修
45	咸 興 本 宮	咸興市 沙浦區域 宮西洞	李朝末期	1610 年 改修 17 世 紀末 再建
46	咸 興 鄉 校	咸南 永興郡 永興邑	李朝初期	1061 年 再建
47	女 眞 文 字 碑	咸南 新昌郡 南興里	1338 年 (高麗 末期)	
48	福興寺 7 層塔	咸南 利原郡 清山里	17 世紀中葉	
49	靖 北 寺	咸南 鏡城郡 勝岩勞動 者區	1437 年 (李朝 世宗 19 年)	처음에 盧堂으로 불 렸으나 1845 年 (憲宗 11 年) 現 名稱으로 改稱
50	吉 州 鄉 校	咸北 吉州郡 吉州邑	1639 年 (李朝 仁祖 17 年)	
51	會 寧 鄉 校	咸北 會寧郡 會寧邑	1551 年 (李朝 明宗 6 年)	
52	掛 弓 亭	兩江道 惠山市	1631 年 (李朝 仁祖 8 年)	1937 年 現 位置로 移轉
53	重 興 寺	兩江道 三水郡 館坪里	1570 年頃	

〈表 - 9〉 史 蹟

順位	文化財名	位 置	創建年代	備 考
1	平 壤 城	平壤	427 年 (高句麗 長壽王 15 年)	
2	外 城	平壤		
3	內 城	平壤	李朝 仁祖 2 年	
4	北 城	平壤	1714 年 (李朝 肅宗 40 年)	
5	練 光 亭	平壤市 中區域 慶上洞	16 世紀初	現 建物は 1670 年 (李朝 顯宗 11 年)
6	崇 寧 殿	平壤市 中區域 鍾路洞	不 詳	檀君을 祭祠지내던 祠堂, 1429 年 (世 宗 11 年) 東明王도

順位	文化財名	位 置	創建年代	備 考
7	乙 密 臺	平壤市 乙密峰	1714年(李朝 肅宗 40年)	함께 지냄. 現建物は 1714年(肅宗 40年)改造 改稱한 것. 6.25時 破壞, 1960年 復舊
8	玄 武 門	平壤市 牡丹峰區域	1714年(李朝 肅宗 40年)	6.25時 破壞, 1959年 復舊
9	永 明 寺 터	平壤市 牡丹峰區域	392年(高句麗 廣開土大王)	
10	浮 碧 樓	平壤市 牡丹峰區域	약 1,000年前	永明樓를 高麗睿宗 때 現 이름으로 改稱 6.25時 破壞 1959年 復舊
11	錦 轉 門	平壤市 牡丹峰區域 金鏞山	1714年	6.25時 破壞, 1959年 復舊
12	清 流 亭	平壤市 牡丹峰 북쪽	1716年(李朝 肅宗 42年)	平壤內城 西門人 것을 1927年 現位置로 移轉, 6.25時 破壞, 1959年 復舊
13	安 鶴 宮 터	平壤市 大聖區域 大聖山	427年(高句麗 長壽王 15年)	首都를 國內城으로 부터 平壤으로 옮김
14	大 聖 山 城	"	"	
15	清 岩 里 土 城	平壤市 大聖區域 清岩洞	不 詳	高句麗時期 築城
16	金 剛 寺 터	"	498年(高句麗 文咨王 7年)	創建 歷史가 가장 깊고 規模가 큰 절 터.
17	大 聖 山 부 근 高 句 麗 古 墳	平壤市 大聖區域		鎧馬塚, 四神塚 등 壁畫 古墳이 있음.
18	樂 浪 里 土 城	平壤市 樂浪區域 土城洞		
19	美 林 里 原 始 遺 蹟	平壤市 寺洞區域 美林洞		
20	金 灘 里 原 始 遺 蹟	平壤市 寺洞區 金灘里		1955年 發掘
21	江 西 三 墓 里 古 墳	平南 江西郡 三墓里	高句麗時期	
22	石 泉 古 人 돌 群	平南 龍岡郡 龍剛邑 石泉里		
23	黃 龍 城	平南 龍岡郡 玉桃里 옥천군 송현리 오석山 一帶		黃龍國이 있었으나 高句麗에 統合되었다 함.

順位	文化財名	位 置	創建年代	備 考
24	弓山原始遺蹟	平南 溫泉郡 雲河里		1950年 發掘
25	於乙洞土城	平南 溫泉郡 城峴里	未 詳	
26	漢 王 墓	平南 江東郡 漢王里	未 詳	高句麗 東川王(227 ~22年) 무덤으로 記錄되어 있음.
27	慈 母 山 城	平南 順安郡 御重里 慈 母山		
28	精 進 寺	平南 成川郡 香楓里	不 詳	現 建物은 1781年 (李朝 正祖 5年) 改建 李朝 中宗 5년에 改築 高麗時代 改築
29	義 州 邑 城	平北 義州郡 義州邑	不 詳	
30	鹽 泉 城	平北 義州郡 春山里	不 詳	
31	高 麗 長 城	平北 義州郡 金光里	1033年(高麗 德宗 2年) 高麗時代	
32	白 馬 山 城	平北 枇峴郡 聖下里		姜邯贊將軍이 쌓은 것으로 전함.
33	龜 州 城	平北 龜城郡 龜城邑	994年(高麗 成宗 13年) 李朝初期	
34	定 州 城	平北 定州郡 定州邑		처음 土城을 돌로 고쳐 쌓았음. 1958年 發掘
35	堂山原始遺蹟	平北 定州郡 大山里(過 去 堂山里)		
36	鐵 甕 城	平北 寧邊郡 寧邊邑	不 詳	1012年 姜邯贊將 軍이 金鐵甕城에 의거 거란군 大破
37	龍 五 山 城	平北 泰川郡 龍詳里	高句麗時代	
38	龍湖里古墳	平北 雲山郡 龍湖里 子 봉山		「말무덤」·「皇帝 무덤」·「궁내무덤」 등 散在
39	月岩里고인돌群	平南 白川郡 龍東里		
40	長水山山城	黃南 載寧郡 長水山	不 詳	高句麗 또는 新羅時 期の 城 6.25時 破壞
41	太 白 山 城	黃北 平山郡 山城里		
42	智塔里遺蹟	黃北 鳳山郡 智塔里		1957年 發掘
43	智塔里土城	"		

順位	文化財名	位 置	創建年代	備 考
44	휴 류 山城	黃北 鳳山郡 녹과산	762年(新羅 景德王 21年)	
45	燕灘고인돌群	黃北 燕灘郡 燕灘邑		
46	開 城 羅 城	開城市	1065年(高麗 文宗 14年)完成	開城 外城임.
47	半 月 城	開城市	1319年(高麗 恭讓王 3年)- 1393年(李朝 太祖 2年)	
48	滿 月 臺	開城市 松嶽山		高麗王朝(198~ 1392)宮闕터임.
49	高麗 瞻 星 臺	開城市 滿胎 서쪽		
50	成 均 館	開城市 善竹洞	高麗文宗時	壬辰倭亂 때 全燒 1610年(光海郡 2年)完全復舊 李朝 宣祖때 懸額 을 받음.
51	崧 陽 書 院	開城市 善竹洞		李朝 肅宗때 懸額 을 받음.
52	大 興 山 城	開城市 山城里	不 詳	6.25時 破壞, 1954年 復舊
53	顯 陵	開城地區 開豐郡 海仙里	高麗 太祖 王建 무덤	
54	7 陵	開城地區 開豐郡 海仙里	高麗末期	
55	龍城里古墳群	江原道 安邊郡 龍城里		1957年 發掘
56	智 群	江原道 安邊郡 水上里	1393年(李朝 太祖 2年)	李成桂 曾祖父 墓
57	支下里고인돌城	江原道 板橋郡 支下里		
58	汨浦里古墳群	江原道 高成郡 汨浦里		1963年 發掘
59	白 雲 山 城	咸南 五老郡 鳳興里	高句麗時代	
60	富上里古墳蹟	咸南 洪原郡 富上里		
61	青 海 土 城	咸南 新昌郡 土城里		
62	農圃里原始遺蹟	清津市 松平區域 農圃洞		1956年 發掘
63	鏡 城 邑 城	咸北 鏡城郡 勝岩勞動者 區	高麗時代	

順位	文化財名	位 置	創建年代	備 考
64	下古川古墳群	咸北 花台郡 下古川 流域		1951年 發掘
65	茂山범의구석 原始遺蹟	咸北 茂山郡 武山邑 범의 구석		1959年 發掘
66	부거리古墳群	咸北 자리郡 부거리		
67	羅津草島 原始遺蹟	咸北 羅津郡 草島		1946年 發掘
68	雲頭山城	咸北 遊仙郡 遊仙邑	122年 築城	
69	會寧五洞 原始遺蹟	咸北 會寧 草島		1945年 發掘
70	屈浦里 原始遺蹟	咸北 雄基郡 屈浦里		1963年 發掘
71	公遺里 原始遺蹟	慈江道 江界市 公遺里		1955年 發掘
72	渭原古城과邑城	慈江道 渭原郡	1443年(李朝 世宗 25年)	
73	洗劍亭	慈江道 滿浦郡 滿浦邑		

(6) 北韓의 遺物·遺蹟 歪曲實態

- 北韓의 遺物·遺蹟 發掘目的은 一次的으로 新石器時代와 青銅器時代가 原始 共同體 社會이고 初期鐵器時代인 高朝鮮時代가 노예제사회이며 三國時代는 봉건제사회에 속하는 것임을 밝혀, 우리나라의 歷史가 原始 共同體社會에서 노예제사회, 봉건사회, 資本主義社會를 거쳐 最終的으로 共產主義社會로 定着하였다는 “遺物史觀的 社會發展 5段階 法則”을 확증하는데 있으며, 二次的으로는 우리民族의 유구한 創造的

歷史와 文化의 優秀性을 밝혀 北韓 住民들을 民族的 矜持와 革命的 自尊心으로 교양하자는데 있다.

따라서 北韓에서 發掘調査된 遺物이나 遺蹟은 이러한 目標에 依據하여 解釋되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發表된 研究結果들은 相當部分이 歪曲·造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가장 두드러진 歪曲事例는 편年(編年)으로서 北韓에서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과 같은 科學的이고 正確한 編年方法 대신에 단지 遺物의 形式分類나 층위에 의한 상대편年만으로 歷史를 자기네 주장에 맞게끔 짜맞추고 있다.
- 예를들면 新石器時代의 弓山 原始遺蹟을 形式學的方法이나 층위구분에 의한 상대년대를 根據로 弓山文化 1기, 2기 3기, 4기 등과 같은 分期를 設定하여 놓고 各分期에 一律적으로 500~1,000年씩의 絶對年代를 賦與하고, 다시 그것을 正當한 것으로 看做하여 그후 새로 發掘되는 遺蹟의 年代判斷 基準으로 삼고있다.
- 다음으로 樂浪郡의 設置場所가 現在의 平壤부근에 있었다는 事實을 부정하기 위하여 이 일대에서 發掘된 토광목곽분의 年代를 상대년대결정법에 따라 樂浪郡時期로 잡고 이 時期에 樂浪郡은 當時 古朝鮮의 中心地였던 지금의 요동지방에 設置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또한 1949年 發掘調査된 안악 3호분의 被葬者에 대해서도 이 古墳의 전실서벽에 7행 68자의 木서명이 있어 영화 13

年 (A . D 357 年) 에 죽은 요동에서 고구려로 歸順한 연나라 將軍인 동수 (冬壽) 의 墓임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이 무덤이 高句麗 美川王陵이라는 억지 結論을 내려서 現在 正설로 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冬壽라는 中國人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처럼 應장하고 호화로운 무덤을 築造했다는 事實을 認定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造作行爲이다.

- 더구나 北韓은 遺物·遺蹟에 관한 各種 報告書, 論文 및 冊子에까지 宣傳文句를 넣어 遺物·遺蹟發掘의 성과를 徹底한 政治宣傳의 매개물로 利用하고 있다.

다음은 1983年 “科學百科事典 出版社”가 出刊한 “우리나라 력사 유적”에 나타난 宣傳文句 一部를 拔萃한 것이다.

〈表-10〉 宣傳文句事例

目 的	對象文化財	宣 傳 文 句
○金日成 偶像化	古墳, 塔, 門, 寺刹	○ 偉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原狀復舊하였다. (保存管理하고 있다)
○革命思想 및 愛國主義 精神 鼓吹	山城, 누각, 古墳 寺刹, 성터	○ (대성산 유원지)를 人民들의 文化休息處로 꾸리며 勤勞者들을 革命傳統과 愛國主義 精神으로 教養하는 場所

目 的	對 象 文 化 財	宣 傳 文 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宗教抹殺 政策 및 勞動意慾 鼓吹 	寺刹, 서원, 塔	<p>로 만들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佛敎를 宣傳하고 人民들을 封建的 및 宗教的 藝術에 엮매기 위한 사상적 도구로 利用된 것이기도 하지만 人民의 創造力과 훌륭한 건축술, 造型예술성이 깃들여 있는 文化遺物 ○ (소현서원)은 人民을 기만하고 搾取키 위한 手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미사상 教養 	寺刹, 누각, 門, 성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제의 야수적 폭력에 의해 破壞된 것을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復舊

나. 無形文化財

- 無形文化財란 우리나라의 無形の 文化的 所産으로서 歷史上 또는 學術的 價値나 藝術的價値가 큰것을 말한다.
韓國의 文化財 保護法 規程에는 無形文化財를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및 其他分野로 分類하고 있다.
- 그러나 北韓에서 1964 年에 發刊된 “조선의 민속놀이” 에서는 봉산탈춤, 북청사자놀이, 줄다리기, 농악, 강강수월래등과 같은 명절때나 일정한 시기에 부락민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民俗的

行事を 總稱해서 “民俗놀이”라고 했으며, 최근에는 민족예술, 민족음악, 민속무용, 민족악기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드물게 민속예술이란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

- “놀이(遊)”라는 말은 논다는 놀이가 아니라 神에게 고(告)한다는 뜻이 있는 우리의 고어이다.

탈춤이나 農樂과 같은 행사에는 信仰性和 藝術性和 娛樂性이 모두 혼합되어 있으나 고대에는 信仰性이 더욱 強했던 것이었는데 時代가 갈수록 信仰性이 약해지고 어떤것은 藝術性이 強해지고 어떤것은 娛樂性만 남게된다.

따라서 옛날의 原初形態를 생각하면 “民俗놀이”라는 名稱이 正當하고 오늘날의 現狀으로 보면 “民俗藝術”이라고 보는것이 옳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윷놀이, 장기, 바둑등을 包摂시킨 것을 보면 民俗놀이는 “레크레이션”이라는 意味에서 使用한것 같다.

- 北韓은 1964年 發刊된 “조선의 민속놀이”에서 62種의 民俗놀이를 소개했는데, “놀이의 성격, 方法 및 機能”이 비슷한 것을 한데 묶어서 네개부문으로 나누었다.

- 가무놀이 (16種)

農樂놀이, 탈놀이, 옹해야, 돈돌라리와 달래춤, 쾌지나 칭칭나네, 강강수월래, 놋다리놀이, 화전놀이, 마당놀이, 방천놀이, 시절윷놀이, 봉죽놀이, 길삼놀이, 다리밟이, 꼭두각시놀음, 등놀이와 불꽃놀이

- 경기놀이 (15種)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 활쏘기, 줄다리기, 돌팔매놀이, 쥐불놀이, 횃불싸움, 차전놀이, 제기차기, 장치기, 공차기, 격구, 마상재, 소싸움놀이

• 겨루기 (11 種)

웃놀이, 쌍륙, 장기, 바둑, 고누, 수루, 종정도놀이, 람승도놀이, 고을모음, 칠교놀이, 산가지놀이

• 아동놀이 (20 種)

단심줄놀이, 연피우기, 팽이돌리기, 썰매타기, 바람개비놀이, 수박따기, 진놀이, 숨바꼭질, 까막잡기와 사람찾기, 망치기와 돌아차기, 비사차기, 자치기, 대말타기, 줄넘기, 공기놀이, 실뜨기, 풀싸움과 꽃싸움, 다리셈놀이, 수박치기, 각시놀음.

○ 그러나 實際로 北韓의 住民들은 이러한 놀이를 어떠한 形態로든지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 理由는 그들이 과중한 集團勞動과 統制, 監視때문에 이웃과 家庭이 한곳에 오붓하게 모일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作業, 會議, 理念教育, 批判등으로 餘念이 없는 데다가 때로는 이들 놀이에도 集團化의 目的으로 강제동원되기 때문에 北韓의 住民들은 演劇 舞踊·音樂等の 公演도 오히려 피로운 努力動員으로 看做하고 있다.

○ 더구나 北韓은 傳統的인 民俗藝術을 階級性, 革命性, 勞動愛護精神, 鬪爭性, 勇猛性의 原則과 그것에서 出發한 主題設定에 依據하여 社會主義的으로 개작하여 그들의 主體藝術이

世界的인 水準에 이르렀다고 宣傳하고 있다. 따라서 金日成 偶像化 作品인 혁명가극 “피바다” “꽃파는 처녀”와 音樂舞踊 叙事詩 “영광의 노래” (82年 金日成 70回 生日 慶祝노래)에 改造된 民族木管樂器들이 動員되고, 音樂 이야기 “락원의 노래”에 노들강변 (민요, 무용)이 들어가는 등 오늘날 北韓에서는 우리民族의 傳統藝術이 사람을 共產主義的 人間으로 教養하기 위한 政治的인 宣傳도구로 轉落 되어버림으로써, 그것이 지닌 高유의 傳統性和 純粹性是 完全히 抹殺되어 버렸다.

- 北韓은 “民族藝術들을 發掘한다고 하여 지난날의 것을 그대로 옮겨놓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過去의 文化遺産 가운데서 進歩的이고 人民的인 것과 남고 반동적인 것을 옮겨 가려내어 반동적인 것은 버리고 進歩的이고 人民的인 것을 살려야 합니다. 또한 進歩的이고 인민적인 것이라 하여도 時代的 美감과 階級的 要求에 맞게 改作하여 계승 發展시켜야 합니다.” (朝鮮藝術 '84. 7)라는 金日成의 교시에 依據하여 傳統藝術을 改作하고 있다.

(1) 演劇

- 演劇分野는 그 代表的인 것으로 人形劇과 假面劇을 들 수 있는데, 北韓은 이들 文化財가 지닌 藝術的, 學術的 價値를 강조하기 보다는 北韓社會 나름대로의 전투적인 勇猛性和 階級性에 결부시켜 풀이하고 있다.

- 예를들면, 탈놀이의 유래에 대해서 그들은 “다만 놀이때

에 흥을 돋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또는 싸움터에서 그 어디에서나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鬪爭으로 고무하며 용감성과 영웅심을 끓게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한다.

- 봉산탈춤에 대해서도 “統治階級에 對한 當代 人物들의 증오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오고야말 人民들의 勝利를 높은 藝術的 形象으로 豫言하였다”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풀이를 하므로써 우리 民族의 固有한 民俗놀이를 政治的 目的에 利用하고 있다.
- 그리고 북청사자놀이의 경우에도 탈춤과 우스꽝스러운 재담으로 양반 統治階級의 탐욕과 악덕을 신랄하게 폭로하는 극적줄다리를 構成하는 內容을 強調함으로써 북청사자놀이가 갖는 本來의 의도인 “악귀제거”를 떠나 그들의 共產政策을 實現하기 위한 선전도구로 利用하고 있다.
- 인형극의 경우 1950年代 後半 國立人形劇場이 平壤에 組織되었으나 그 活動은 微微한 편이었으며, 作品으로는 “오누이”, “장화홍련전” 등이 있었으나, 당의 요구와 고식적인 方法에 依해 創作되어 無미건조한 편이었다.
- 1970年代 以來로 北韓은 金日成 우상화를 위한 設得力 있는 도구로서 “피바다”식 혁명가극 창안에 主力하고 있는 만큼, 우리 民族 固有의 人形劇과 假面劇은 北韓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2) 音 樂

- 北韓은 1962年3月以後 金日成의 指示에 따라 音樂改造運動을 벌여 5音 음계로된 民族樂器의 制限性を 克服하고 어떠한 複雜한 곡도 자유자재로 演奏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한다는 명목하에 12울 반음체계를 만들었다.
- 北韓은 “지난날의 音樂遺産은 언제나 批判적으로 對하여야 하며 옳고 그른것을 가려내고 民族의 優秀한 것만을 繼承하여 이것을 現代化하고 우리時代에 맞게 發展시켜야 한다”고 主張하는 한편, 最近에 이룩한 民族音樂의 發展성과로 “피바다”식 가극음악에서의 民族의特性和 現代性具現, 主體的인 관현악완성, 民族樂器 改良事業에서 얻은 成果와 經驗, 時代와 人民의 要求에 맞는, 가요음악등을 내세우고 있다.
- 따라서 北韓에서의 傳統音樂은 “主體音樂藝術의 創造”라는 테두리 속에서 傳統的인 韓國音樂의 特徵과는 다른 方向으로 크게 변질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 實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가) 民 謠

北韓은 “民謠의 原形을 現代性的의 原則에서 整理하고 改造發展시키는 것은 民族音樂 繼承發展의 合法則的 要求일뿐만 아니라 人民大衆의 集體的 創造物인 民謠自體의 本性的 要求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黨과 金日成에게 충성하고 아부하는 신창작민요를 만들어 民謠의 內容을 날조하고 있으며

形式上으로도 基本形式인 4.4조를 改造 산문시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大部分이다.

- 北韓은 民謠를 勞動民謠, 서정적인 民謠, 풍자民謠, 춤을추며 부르는 民謠等으로 分類하고 있으며, 最近의 作品에는 “대동강 실버들”, “종다리우니”, “수령님은덕으로 대풍이 들었네”, “노들강변”, “능수버들”, “양산도” 등이 있다.

민요 “종다리우니”

밝고 명랑하게 (잡은모리장단)

종 다리 우 니 들에봄 이 오 는데 새봄이오 는데
 젊 은이들의봄날이 노래 중기 도 하 다 프락또모 는처녀 총 각
 흥-에 겨 워서 얼씨구종 다풍년 봄 을 노-래 부 르 네

(나) 판소리

- 北韓은 現代的 미감에 맞고 科學的인 새로운 발성체계를 創造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판소리에서 썩소리 (탁음)를 제거했으며 또한 통소리 (후두부분을 넓게가지고 호흡의

기세를 크게 가진소리), 목을 눌러내는 소리(음색을 진하게 가슴부위의 울림을 必要以上으로 要求하는 소리), 오그라진 소리, 코소리등이 섞인 소리는 일체 배격하고 있다.

“판소리는 봉건통치배들의 感情과 趣味에 맞게 썩소리로 부르는 노래로써 우리時代의 미학적 感情에 맞지 않는다”고 主張하는 北韓에서는 판소리가 完全히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대) 民族樂器

- “옛날 그대로의 조선악기를 가지고는 民族音樂을 現代化할 수 없으며 우리時代 人民들의 情緒를 充分히 표현할수 없습니다”(社會主義 文學藝術論, 318 - 319 페이지)에서 나타나 있듯이 北韓은 “오늘날 民族樂器를 固有한 음색과 특색을 保存하면서 지난날의 時代的 제약성을 克服하고 科學的 토대위에서 現代的으로 改良 發展시켜 왔으며 이러한 努力은 民族樂器와 西洋樂器를 配合한 主體的 관현악 편성체계를 創造 完成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고 宣傳하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의 소위 “배합관현악”을 살펴보면 우리의 傳統的인 國樂器의 現住所를 알 수 있겠다. (朝鮮藝術 '83. 7)

① 배합관현악의 原則

- 民族樂器를 위주로하고 여기에 西洋樂器를 복종시킴.
 - 民族的 特性을 훌륭히 具現하고 主體性을 확고히 살

리고 서양관현악이 가지고 있는 豊富한 音量과 技術的
可能性이 人民의 比위와 情緒에 맞게 創造的으로 適用
되었음.

- 民族的特色을 가장 짙게내는 목관악기의 特性을, 살리면서
서로 갈래가 다른 樂器들을 適切히 配合함.
- 서양금관악기, 활악기, 목관악기들이 民族樂器들과 어울려
보다 충만되고 公명된 울림을 造成해줄뿐만 아니라 民
族 목관악기들의 表現力을 한층 부각시키는 役割을 遂
行함.

② 樂器 編成方法

- 配合管絃樂의 原則에 따라 樂器郡別間의 比례를 잘맞추는
것이 重要.
- 소해금과 바이올린, 중해금과 첼로, 저해금과 콘트라바스
를 각각 合理的인 比率로 設定하여 民族樂器 소리도
양악기 소리도 아닌 독특한 音色이 우리나라오도록 하였
으며 管樂器들의 音響比例에 맞게 그 수를 定함.
- 木管樂器들이 선율을 많이 擔當케하여 西洋樂器들에 比하
여 音響上 우세를 차지하게 함으로써 民族木管樂器의 절
묘한 音響이 더욱 두드러지게 울리도록함.
- 全般的 흐름의 獨奏部分과 音樂形狀의 초점을 이루는 部
分등 요긴한 대목의 선율들에 木管樂器를 配置하여 양
악기를 이에 配合 服從시키면서 반주적 수법으로 이용

- 적 용 레 -

- 혁명가극 “피바다”의 서곡과 제 1 장 管絃樂에서 民族木管樂器가 선률을 많이 擔當
서곡 : 대피리, 저피리가 현악기의 중음, 저음 (중해금, 비올라, 대해금, 첼로, 저해금, 콘트라바스)가 結合하여 선률을 演奏
- 交響曲 “아리랑”의 서주
- 音樂舞踊이야기 “락원의 노래”,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 영화음악 “조선의 별”, “성황당”식 혁명연극등



(3) 民俗舞踊

- 오늘날 北韓의 舞踊에는 ① 現代舞踊, ② 民俗舞踊, ③ 民俗舞踊과 現代舞踊의 配合形, ④ 傳說舞踊, ⑤ 가무 등이 있다.
- 北韓은 配合形舞踊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며, 특히 民俗舞踊에 대한 허무주의적 態度를 버려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으며, 民俗舞踊에 있어서는 “勞動階級的 線과 인민적 정서를 살려야 한다”는 당의 方針을 具現한 民族的 色彩가 짙은 作品을 創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創作의 基本原則으로 다음 세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 무엇보다도 民俗舞踊의 內容과 춤가락을 인민적인 정서로 일관해야 하며
 - 인민적 정서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대의상, 背景, 장치에는 歷史主義 原則과 현대성의 原則을 옹기 구현해야 하며
 - 과거의 춤은 時代的 美감에 맞게 춤가락, 음악, 의상을 개작 完成해야 한다.
- 1984 年에 “피바다가극단”이 創作公演한 民俗舞踊 “북춤”에 대해서 (조선예술 '84. 7)에서는
 - 춤가락과 技巧動作에는 인민의 民族的 즐기와 낙천적인 生活感이 넘쳐 흐르며, 흰색에 가까운 연보라빛 긴통치마, 연청색 저고리, 진분홍색 조끼로 된 의상은 民族的 특성에 맞춘 것이다.
 - “북춤”이 거둔 가장 큰 成果는 民俗舞踊創造에서 階級的 線을 세우고 인민적 정서를 살린데 대한 주체적

문예방침을 빛나게 구현한 것이라고 기술했다.

- “북춤” 以外에 피바다가극단이 最近 公演한 作品으로는 “칼춤”, “달맞이”가 있으며 기타 民俗舞踊作品에는 널리리(여성군무), 쌍모춤(농악무), 돈돌라리, 방울춤, 양산도, 그네뛰는 처녀, 배움의 나라, 금강선녀(전설무용) 등이 있다.
- 現在 北韓은 “民俗舞踊 發掘事業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問題이며, 특히 北과 南의 交流가 實現된 후 南韓 인민들에게 革命的 影響을 주기 위해서라도 民俗舞踊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發展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傳統 民俗舞踊을 社會主義的으로 개작하고 있다.

(4) 民俗놀이

- 民俗놀이 分野에 있어서는 아직 發掘이나 保存이 初步的인 段階에 머물러 있고 民俗놀이를 理解하는 價値觀이 너무나 편협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北韓은 “오늘 조선 人민의 오락 가운데는 음악, 무용과 密接히 연결되어 있으며 人민의 體質向上을 위한 體育, 軍事的 活動의 면모를 엿보여 주는 것들이 많다”고 하면서, 民族 고유의 각종 民俗놀이를 軍事놀이와 體育競技 또는 서클公演으로 개조해 버렸다.
- 예컨대 씨름, 널뛰기, 그네 등을 “상무정신이 있어서 戰鬪的, 革命的 精神을 고취시킨다”고 해서 民族 體育競技로 定立하고 경기규칙을 만들어, 대부분의 民俗놀이가 民族固有의 명절과 결부되어 行해지는 것이 아니라 體育大會를 열어 開催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 또한 共產主義 사상 고취와 金日成 우상화를 위해 설날, 추석, 한식과 같은 우리 民族 高유의 명절보다는 金日成生日 (4.15), 정권창건일 (9. 9) 및 당창건일 (10.10) 등과 같은 소위 “社會主義 名節”을 더 重視하고 있는 北韓에서는 농악도 노동절이나 정권창건일 등이나 볼 수 있는 극장 또는 野外 公演種目으로 탈바꿈되어 버렸다.

〈表 - 12〉 北韓의 “民俗놀이” 變質過程

時 期	內 容
6.25 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傳統 民俗놀이의 존속 - 그네, 씨름 (단오) - 널뛰기, 윷놀이, 연날리기 (구정초) - 농악 (농촌), 북청사자놀이, 봉산탈춤
'50 年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俗놀이를 일부 생산제고 수단으로 活用 - 농악을 行事に 利用 (노동절 등) - 勞動者들의 놀이로 씨름, 그네, 줄다리기 장려
'60 年代 以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形態로 變形 - 軍중적, 집단적 놀이로 變形 - 활쏘기 등을 계급교양과 결부 (표적은 美軍) - 그네, 널뛰기를 民族 體育競技種目으로 採擇

(5) 工藝技術

- 오늘날 北韓에서는 工藝技術도 김일성 偶像化, 政治思想 敎養, 社會主義 現實讚揚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즉 北韓은 工藝作品 創作에 있어서 실용성, 藝術性, 美的品位 보다는 政治性, 思想性, 時代性을 더 重要視하여 工藝作品에 生活的인 주제를 담고, 時代的 特性和 社會歷史的 環境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朝鮮藝術, '84. 7)

- 도자기 工藝作品에 주제를 담는 원칙을 내세워 北韓은 工藝品에 명승지, 혁명사적지, 혁명전적지의 風景을 많이 그려넣도록 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심오한 주제사상이 反映되어 사람들에게 思想美學的 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藝術的 價値도 最高로 높일 수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 北韓에서 代表的 도자기로 내세우는 것들로는 “우리는 노래하며 유치원 가요”, “항일 빨치산 무늬꽃병”, “밀림 무늬청자 꽃병” 등이 있다.
- 現在 北韓에는 도자기 工藝 이외에도 수공예, 기물공예, 지님공예, 장식공예, 조각공예, 가구공예 등이 있다.

다. 名勝地 및 天然記念物

(1) 명승지

- 北韓地方은 산수가 수려하고 자연경관이 절묘하다. 특히 평안도의 관서팔경은 代表的인 명승지로 손꼽히는데 곧 平壤의 연광정, 강계의 인풍구, 의주의 충군정, 선천의 동림포, 안주의 백상루, 성천의 강선루, 만포의 세검정, 영변의 약산동대 등이다. 그러나 이밖에도 東洋제일의 빼어남을 자랑하는 금강산과 각 명승지의 산수를 끼고 자리잡은 고사찰 등은 北韓地方의 자연미를 다시 되새기게 해주는 회포를 품게한다.

다음은 北韓이 指定한 名勝地 現況이다.

<表 - 13 >

名 勝 地 (北韓指定)

指定 番號	名 稱	所 在 地	備 考
1	牡 丹 峰	平壤市	본래는牡丹峰, 乙密峰, 옥행산을 합하여 금수산이라고 불렀으나, 現在는 모란봉으로 불리우는 名勝古蹟地이며 平壤의 中央公園 (개선문, 김일성경기장 (82.4.11)).
2	약 산 동 대	平北寧邊郡寧邊邑	關西八景의 하나, 名勝古蹟地
3	妙 香 山	平北향산군향암리	4 大名山의 하나 (금강산, 구월산, 지리산), 해발 1909 m 국제친선 관람관(1978)
*4	동 룡 굴	平北구장군소민리	연장 1,700m에 달하는 석회암 동굴로 「地下金剛」이라고 불리는 名勝地이며 天然紀念物
5	백 령 굴	平北구장군대풍리	연장 6 km에 달하는 석회암의 自然동굴로서 千態萬像의 종유석, 석순이 절묘
6	九 月 山	黃南, 安岳, 신천, 삼천, 운율, 장연군	4 大 名山의 하나 옛날「아사달산」, 해발 939m
7	장 수 산	黃南載寧郡	봉암대, 벽암계, 12溪谷, 현암의 絶勝으로 예로부터 「황해금강」으로 불리우는 名勝地, 해발 747 m
8	석 담 구 곡	黃南벽성군	지남산과 선적봉 사이를 흐르는 아홉구비의 계곡, 1579년에 이율곡이 이곳에서 살면서 9곡의 自然風景을 노래한 「高山九谷歌」를 지은 것으로 더욱 유명함.
*8	삼 방 협	강원도 세포군	폭포, 단풍, 약수(탄산수), 스키장으로 유명
9	몽 금 포	黃南장연군장산곶	명사십리의 해당화, 육지의 푸른솔, 바다의 쪽빛 물결이 三谷의 景勝을 이룬 天然海水浴場. 이곳 모래는 규사로써 귀중한 유리 原料.
10	박 연 폭 포	開城市山城里	우리나라 3대 폭포의 하나이며, 「송도절」의 하나로 이름이 높음. 2층 휴양각 (1961)

指定番號	名稱	所在地	備考
12	金剛山	江原道 통천군, 고성군, 금강군, 회양군	內金剛, 外金剛, 海金剛으로 區分되어 있으며 1만 2천봉에 奇岩怪石이 千態萬象을 이룬 세계적인 名山, 最高峰은 해발 1,638 m
13	총석정	강원도통천군	동해가에 현무암의 自然돌기둥들이 군총을 이룬 關東 8景의 하나
14	시중호	강원도통천군강동리	모래방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맑은湖水나 波濤 거친 東海와 대조를 이룬 名勝視되는 關東 8景의 하나
17	七寶山	咸北영천군	內七寶, 外七寶, 海七寶로 區分된 千態萬象의 奇岩怪石으로 하여 「咸北金剛」으로 불리우는 名山
18	주을온천	咸北鎭城郡온포리	山水가 아름답고 溫泉의 質과 量에 있어서 國內 第1位인 名勝地
18	白頭山	兩江道삼지연군	韓國에서 제일 높은 山으로 산위에 맑고 푸른 天地가 있는 名山, 해발 2774m

* 1958년 조선중앙년감에는 나타나나 1962년 것에는 삭제됨.

- 그러나 北韓은 이와같은 名勝地를 革命思想, 革命業績·鼓吹를 위한 道具로 轉換시키고 있다. 즉 各種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김일성 동상, 기념비등을 수없이 建立하여 自然景觀을 人爲的인 革命教育場으로 變造해 놓고 말았다.

더구나 北韓은 住民들에게 이들 象徵造作物들을 강제로 踏查 參觀케하거나 “우등불모임”, “연구발표회”를 통해 김일성의 혁명사상, 혁명업적을 紹介 宣傳하고 있으며 史蹟部門 講師들에게는 “黨의 唯一思想體系 確立과 온 社會의

革命化·勞動階級化 過程을 促進시키는 黨思想 戰線의 哨兵
 이라는 矜持를 안고 大衆教養에서 政治思想 水準을 높이고
 教養方法을 改善하는데 注力” 하도록 强要하고 있다.

<표 - 14>

김일성 상징물 조작 현황

區分	象徵物	施 設	備 考
革 命 戰蹟地	삼지연 혁명 전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大型 金日成銅像 ○빨찌산 동상 수십개 ○記念碑 ○會議場 ○金日成 執務室(31萬坪) 	<ul style="list-style-type: none"> ○金日成이 이곳에서 休 息하면서 빨찌산 隊員 들에게 飲料水를 먹였 다고 造作 ○ 1979年 8月 完工
	무산지구 혁명 전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金日成銅像(높이 50m) ○ 60여개 빨찌산 銅像 ○記念碑 	<ul style="list-style-type: none"> ○金日成의 抗日 빨찌산 部隊가 1936年 日本軍 2個中隊를 殲滅했다고 날조
	보천보 혁명 전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金日成銅像(가림천) ○博物館 ○보천보戰鬪 勝利記念塔 (해산시) -北韓最大의 記念塔 -높이 49 m, 길이 60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천보전투 30돌을 記念 ○ 1967年 6月 4日 建立

區 分	象 徵	施 設	備 考
	왕재산혁명 전적지	○大型 金日成銅像 ○會議場 ○記念碑 ○革命博物館	○ 1933年3월 11일, 金日 成이 革命軍을 이끌고 會議를 열었던 場所라 고 造作 ○ 1975年10月 完工 ○抗日빨찌산 運動場所 捏造 ○왕재산一帶 聖域化
	월현사적지	○金策工業大學 建物과 周 邊一帶의 聖域化	○ 1952年6月16日 金日 成의 金策工業大學 訪問 을 記念
	백두산혁명 전적지	○白頭山 兵使峰에 60톤 화강암으로 설치	○白頭山을 “革命的 聖 山”으로 命名
	북청혁명 유적지	○金日成의 북청現地 指 導 記念碑	
	봉화혁명 유적지	○김형직銅像 ○革命博物館 ○史蹟碑	○김형직 (金日成 父)의 功績을 捏造 宣傳
	회령·웅기혁	○銅像	○김정숙 (金日成의 妻,

區 分	象 徵	施 設	備 考
	명 전적지	○ 革命博物館 ○ 史蹟碑	金正日 (生母)의業績 讚揚
	만경대혁명 전람관		○ “革命家門”의 出身이 라고 捏造된 各種 遺 品展示
	의주혁명 사적관	○ 5 個의 방	○ 김형직의 反日 講演그 림 展示
	청수동 혁명 사적관	○ 7 個의 방	○ 김형직의 鬪爭資料 展 示
金日成 銅 像	金日成 立像	○ 平壤 革命博物館 건너 편 (높이 36 m) ○ 무산지구 대흥단벌 (높이 9 m)	
	金日成 坐像	○ 청봉숙영지	
金日成 石膏像		○ 北韓 全域에 約 3 萬 5,000 個 推定	
金日成 生家 聖域化	만경대일대 성역화	○ 生家, 나무, 바위등을 사적지로 대대적 裝飾,	

區 分	象 徵	施 設	備 考
		곳곳에 銅像建立(1969) ○大型銅像 建立(1972) ○만경대 革命記念館 建 立 ○만경대 유희장 - 1982年4月8日 完工 - 28種의 유희시설 - 5萬名 수용	○捏造된 革命鬪爭史 展 示(1974)
金日成 邸宅 建立	호화판 궁전 으로 왕가면 모 과시	○平壤 모란봉 부근 대 지 1百萬坪에 초호화 시설, 金日成 邸宅 建立 (1970初 - 1977) -平壤 대성리, 展示用 지하궁전 建立 (1976)	

○ 또한 北韓은 名勝地에다 정·휴양소를 건립하여 金日成 가
 계와 부부장급(次官級) 以上の 高位層들이 별장처럼 使用
 하고 있다.

- 1964年6月24日에 採擇한 “勞動法令” 第12條에 依據
 人民經濟 各 分野에서 責任量을 超過 遂行한 模範勞動者,

技術者, 其他 有害勞動者와 結核等 長期療養을 要하는 一般勞動者들에게 靜·休養所制度를 實施하였다.

- 北韓全域에 걸쳐 休養所·野營所 (休養所와 同一하게 取扱) 및 靜養所가 散在하고 있지만, 수용인원이 制限되어 있어 一般住民들이 가볼 機會가 거의 없으며, 또한 中堅幹部, 模範勞動者, 熱誠黨員, 熱誠社勞靑員 등을 對象으로 하는 一般 靜·休養所도 몇개되지 않는다.
- 따라서 北韓의 靜·休養制度는 一部 特權層과 金日成에게 忠誠하는 熱誠分子들을 위한 特惠인 것이다.

<표 - 15> 명승지에 건립된 주요 정·휴양소 현황

區 分	名 稱	所 在 地
休養所	평양시 사업 일꾼휴양소	평 양 시
	주을사업 일꾼휴양소	함 북
	박연폭포 휴양소	개 성
	삼지연 휴양소	양 강 도
	백두산 휴양소	양 강 도
	묘향산 가족휴양소	평 양
靜養所	주을 정양소	함 북
	칠보산 정양소	함 북
野營所	금강산 야영소	강 원 도
	보천보 야영소	함 북

(2) 天然記念物

- 北韓地域의 天然記念物을 把握하는데는 諸般與件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는 물론 金日成集團이 南北 分斷과 극도의 閉鎖·統制體制를 고수하면서 門戶開放을 試圖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北韓은 1960年代 중반이후 北韓의 自然實態에 대해 國際自然保護聯盟 (IUCN)에 조차 알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正確한 實態把握은 어려운 實情이다.
1962年 北韓側 資料에 依하면 北韓에는 모두 45種類의 天然記念物이 指定되어 있다. 이 가운데는 動物, 植物, 地質, 鑛物, 動物保護區, 植物保護區, 바닷새保護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그런데 北韓은 1980年 2月 정무원 지시 제 27호에 의하여 天然記念物을 새로 指定하였다.

< 표 - 16 >

천연기념물 (북한지정)

지정번호	명 칭	소재지	비 고
제 1호	중구역 화석림	평양시 중구역	중생대 유라기 (1억 5천만 년전)의 송백류가 규화목으로 변한 化石林
*제 2호	환송리 청서	평남 순천군	솔청서·솔서피라고도 함. 압록강 유역에서 지리산까지 서식. 모피는 귀중한 富源
제 3호	자모산 동물보	평남 순천군 자모산	물까치·어치·작바꾸리 등 조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호구		류와 복작노루·멧돼지·삽·솔서피 등 동물이 많이 번식
제 4호	맹산 만주 黑松林	평산 맹산군	중국에서 귀화한 특종의 黑松, 유일하게 군락 형성
제 5호	용강 떡갈나무	평남 용강군 용강읍	떡갈나무로 희귀한 거목, 학술연구상 귀중한 자료. 서해 지역에서 많이 번식
제 6호	함종 약밤나무	평남 중산군 함종리	중국에서 수입해 온 밤나무로서 우리나라 환경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밤나무
*제 7호	승백루 갈새	평남 안주군 안주읍	크기가 구제비의 배나 되며 바위·벼랑과 큰 高建物에만 서식한다. 안주 백상루가 없어진 뒤 이곳에서 서식한다.
제 8호	금성리 검은황새	평남 덕천군 금성리	절벽으로 된 암석의 자연굴에서 새끼를 치는 등이 검고 배가 희고 눈자위가 붉은 진귀한 황새
제 9호	선천나비섬 바닷새 보호구	평북 선천군 운종리	검은 꼬리 갈매기·바다 뿔주둥이·호군이 딱새·가마우지 등의 바닷새의 번식지
제 10호	철원 원도바닷새 보호구	평북 철산군 원도	바닷새 번식지. 검은 낫저어새도 번식
*제 11호	동림들 메나무	평북 동림군 신곡	희귀한 老齡木으로서 발육상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비고
제 12 호	쭉섬검은낮저어새	평북 정주군 보산리	저어새 중에서도 낮이 검은 이 종류는 북한에서도 원도와 이곳에서만 번식.
제 13 호	요하리나도박달	평북 대관군 요하리	이 나무는 이 樹種의 발육상 특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 단풍과에 속함.
제 14 호	황해남도 학	황해남도 일원	백두루미·개두루미·재두루미 등이 떼를 지어 날아와서 월동함.
제 15 호	황해남도 황새	벽성·평천·백천·연안군	황해 일대 부락 부근서 소나무·전나무에 와서 번식하는 진귀한 새
제 16 호	방현리 백로	황남 백천군 방현리	솔밭에 온몸이 희고 大·中·小 3종의 백로가 서식. 중국 남방에 가서 월동.
제 17 호	장산곶식물보호구	황남 용연군 장산리	갯노가사·소사나무 등 진귀한 식물들이 번식.
제 18 호	담동산식물보호구	황북 서흥군 봉하리	가침박달(이팝나무), 백리향(라이락) 등 진귀한 식물들이 군락을 이룸.
제 19 호	삼방 왕제비꽃	강원도 고산군	제비꽃 중 세계에서 가장 큰 종류.
*제 20 호	석현 엄나무	강원도 문천군 석전리	경남·전남북이 원산지인 거목.
제 21 호	통천군 앞섬바닷새 보호구	강원도 통천군	호구이 꺾새·검은꼬리 갈매기·가마우지·바다 뿔주둥이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제 22 호	금란굴	강원도 통천군 금란리	의 바닷새들이 서식. 동해안 절벽에 있는 천연동굴. 깊이 15 m, 높이 7 m, 폭 3 m
제 23 호	本官 반송	함흥시 흥남구역 본궁	300 년 이상된 반송으로 형태가 기묘한 것으로 유명.
*제 24 호	운만대, 신의대 군락	함북 화대군 목울리	우리나라에서 이곳에만 있으며 대나무중 진귀종류.
제 25 호	양정리 제 3기 동물 화석층	함북 명천군 양정리	제 3 기.(약 100 ~ 560 만년전)에 생존하던 큰 동물뼈가 출토되는 당시에 형성된 퇴적층.
*제 26 호	개심사 약밤나무	함북 명천군	원산지는 중국. 함남에서 생존하는데 이곳에 큰 나무가 있다는 것은 연구자료로 됨.
제 27 호	함진리 제 3기 동물화석층	함북 명간군 함진리	명천군 양정리 화석층과 동일.
*제 28 호	관모봉식물보호구	함북 은성군	왕대황을 비롯한 진귀한 고산식물이 번식하고 있음.
*제 29 호	동관리 홍적기 동물화석층	함북 은성군 동관리	제 3 기 홍적기 동물화석층으로 지질연구상 귀중한 지층.
*제 30 호	나진 산벚나무	함북 나진시	서수산리 산 벚나무와 동일.
제 31 호	웅기군 알섬 바닷새보호구	함북 웅기군 알섬	통천 알섬과 같이 바닷새 번식지
*제 32 호	서수라리 산벚 나무	함북 웅기군 서수라리	사할린으로부터 해류를 타고 귀화한 것으로 인정, 식물區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제 33 호	창덕리 나도박 달	자강도 전천군 창 덕리	계 연구상 흥미있는 대상으 로 군락을 이루고 있음. 평북 대관군 요하리 나도박 달과 동일.
제 34 호	보천보 검은돈	양강도 보천군, 혜 산시	일명 「동피」라고 하며 수피 중에서 가장 고귀함.
제 35 호	풍산개	양강도 풍산군, 갑 산군	전남 진도개와 함께 우리나 라 개중에서 가장 영리함.
제 36 호	차일봉 복수백 산식물보호구	양강도 풍산군, 함 남 부전군	진기한 고산식물이 번식, 해 발 2,560 m 고산지대
*제 37 호	백암리 부채꽃 군락	함남 부전군 백암 리	나리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고원지대에 군락을 이루고 있으므로 학술적 연구 대상 이 되고 있음.
제 38 호	백두산식물보호 구	양강도 보천군	백두산계 고산식물이 번식
제 38 호	후창조릿대군락	양강도 후창군	평남·함남에만 생장하는 식 물로서 식물재배의 연구자료 가 되고 있음.
제 39 호	송악산 크낙새	개성시 고려동, 만 월동	타목조의 종류에서 제일 크 며 세계에서 이곳 밖에 없 는 진귀한 새.
제 40 호	개성 백송	개성지구 개풍군 연강리	나무껍질이 흰 이 소나무는 북한에서 유일한 존재
제 41 호	개풍학	개성지구, 개풍군	황남일대와 같이 백학, 개두 루미 등이 도래.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제 41 호	묘향산 청조	묘향산	묘향산 「불법승」 또는 「山 보도」라고 하는 진귀한 새
*제 42 호	전천잣나무	자강도 전천군 와 운리	수령 300년의 고목으로 약 200m ² 의 그늘을 이루는 운 치높은 나무.
제 43 호	금강산 국수나 무	강원도 금강군 내 강리	북한의 5대 특산 중의 1 종.
제 45 호	금강산 금강초 롱	금강산	북한 5대 특산 중의 하나. 외국에서는 식물원에서 재배 해 보는 진귀한 종류.

* 1958년도 자료에는 나타나나 1962년 자료에는 누락.

< 표 - 17 > 1980년 지정 천연기념물 목록(지리부문)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제 218 호	삼일포	강원도고성군삼일포 리	넓이 0.79 km ² , 둘레 4.5 km, 제일 깊은 곳은 4.2 m
제 212 호	시중호	강원도통천군송전리	넓이 2.38 km ² , 둘레 15 km, 제일 깊은 곳은 3.5m이며 잉어, 붕어, 가물치, 백년어 등이 서식하며 수 중식물로는 유명한 줄풀이 있음.
제 219 호	상팔탑	강원도고성군온정리	
제 282 호	운포동굴	함남홍원군운포(노 동자구)	길이가 약 400 m이며 중유벽과 돌젓·돌꽃·돌기 등이 어울려 있음. 하부고생대의 석회암층에 생긴 석회동굴로서 동굴 안에 호수가 많은 것이 특징. 못 길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제 315 호	금강봉과 금강굴	함북명천군보촌리	이가 2 m가 넘는 것만 10여개. 높이는 30 ~ 35 m이며 둘레는 약 150 m 가량됨. 금강굴은 깊이 5 ~ 6 m, 폭 7 ~ 8 m가량.
제 90 호	천신평포	평북향산군향암리	폭포수 높이는 86 m에 달하며, 폭은 20 m나 되나 수량은 계절 적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다계 단 폭포를 이루고 있음.
제 84 호	산주폭포	평북향산군향암리	높이는 29 m, 폭 6 m
제 43 호	용원동굴	평남개천군용원 (노 동자구)	석회동굴로서 산석 결정들이 발 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
제 345 호	이명수폭포	양강도삼지연군이명 수 (노동자구)	지하수폭포로 평균 높이는 약 15 m이고, 폭은 27 m 가량되는 여 러개의 폭포로 되어 있음.
제 279 호	홍원 솔섬	함남 홍원군 홍원읍	높이는 둘째섬의 경우 30 m, 첫 째섬은 20 m, 세째섬은 15 m 가 량됨. 솔섬은 화강편마암으로 되 어 있으며 오랜 시간 비바람과 바다물에 깎이면서 서서히 솟아 났음.
제 328 호	장연호	함북어랑군용평리	넓이는 7.73 km ² , 둘레는 약 26.4 km, 최대 깊이는 39 m이며 화산 활동과 지각의 울동, 침식과 퇴 적, 해륙분포의 변화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음.
제 28 호	고령산 평	평양시상원군노동리	평양 준평원보다 높은 자리에 위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제 117 호	탄면 성하감입사 행 (굽은강)	자강도성간군성하 (노동자구)	치함. 해발 높이는 280 ~ 440 m 약 380 m의 해발고에 있으며 곧 게 흐르면 100 m될것을 3 km 나 S자형으로 흘러 깊은 강 골 짜기를 이룸.
제 143 호	몽금포코끼 리바위	황남용연군몽금포리	코끼리 바위의 높이는 약 15 m 이고, 코부분의 둘레는 3 m 가 량, 바위의 앞면은 코끼리가 물 을 마시는 것처럼 긴 코를 드 리우고 있는 모양.
제 222 호	비봉포	강원도고성군온정리	약 139 m의 높이로 떨어지며 구 룡폭포·십이포·조양포와 함께 금 강산 4대 명폭중의 하나.
제 259 호	백악폭포	함남 천불산	천불산의 높고 험한 산 발들을 끼 깊은 골짜기에 있는 폭포로 폭이 5 m, 높이는 34 m에 달함.
제 85 호	용연폭포	평북 향산군 향암리	높이 84 m, 폭 3 m, 폭포 위에는 직경 3 m 깊이 1.5 m되는 「용소」 가 있음.
제 193 호	명사십리	강원도원산시용천리	갈마반도가 바다로 10여리나 뻗 어나가서 생긴 반도. 섬과 육지 가 연결된 육제도이며, 폭은 0.72 ~ 1.7 km이고 길이는 약 4 km
제 225 호	구룡폭포	강원도 고성군 온 정리	설악산의 대승폭포, 대흥산성의 박연폭포와 더불어 3대 명폭중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제 280 호	청도해식굴	함남홍원군홍원읍	의 하나이며 폭포의 높이는 74 m, 폭은 4 m이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에는 큰 돌절구 모양의 구룡연이 있고 폭포 위에는 팔담이 있음. 반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길이는 약 10 m이며 높이는 약 6 m, 평균 폭은 약 7 m 가량됨.
제 327 호	무계호	함북어랑군무계리	넓이는 1.8 km ² , 둘레는 7.3 km 파도가 심할 때는 어랑천을 따라 바닷물이 흘러들며 기념어·빙어·황어·뱅어·잉어·초어등이 서식.
제 213 호	국 도	강원도통천군지리산 앞바다	둘레는 약 750 m, 높이는 41 m, 넓이는 6정보 가량되며 바닷가 현무암 벼랑에는 갈매기와 오리 등이 서식함.
제 325 호 제 388 호	명간선바위 박연폭포	성거산과 천	해발높이는 103 m정도 성거산과 천마산 사이의 험준한 골짜기를 따라 흐르며 직경 8 m, 둘레는 24 m가량, 높이는 35 m이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은 직경이 40 m, 둘레가 약 120 m 가량 되는데 고모담이라 함.
제 341 호	연암산 분화구	양강도 보천군 대평, 개성시 산성리	연암산 마루에 동서방향으로 놓여있으며 용암이 굳어진 암석의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제 351 호	백두산천지	양강도삼지연군신무성 (노동자구)	노출부를 차지함. 노출 길이는 1,000 m, 높이는 100 ~ 120 m, 지층의 두께는 10 ~ 30 m 가량 됨. 넓이는 9.31 km ² , 둘레는 18.7km, 가장 깊은 곳은 370 m, 호수안벽은 천지 호수면에서 400~500 m에 달하는 절벽을 이루고 있음.
제 365 호	간장 늪	양강도백암군백암 (노동자구)	둘레는 3 km, 깊은 곳은 7 m, 늪둘레에는 진펄이 발달되어 있고 진펄에는 부전자작나무, 솔방울·고쟁이·창랑새풀 등이 있고 늪에는 도롱뇽·산천어 등이 서식.
제 215 호	금 란 굴	강원도통천군금란리	굴 입구의 높이 10 m, 폭 3 m, 절벽의 깊이 15 m이며 굴 안으로 들어갈수록 낮아져 막장에는 1.5 m정도이며 막장바닥에는 성게·생복·열기늘메기 등이 서식.
제 30 호	월포리 하성단구	평남평성시월포리	이 단구는 지각의 융기와 대동강의 하각 침식으로 인한 하곡의 발전 변화과정을 보여주며 1단구의 높이는 5~6 m, 2단구는 7~20 m, 3단구는 20~50 m, 4단구는 50~70 m임.
제 78 호	거북바위	평북영변군영변읍	높이는 약 3 m이며 넓이는 10km ² ,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제 79 호	상초동굴	평북구장군상초리	이 거북바위는 두마리의 거북이가 머리를 거연히 쳐들고 서쪽을 향해 앉아있는 형상 1960년에 발견된 석회동굴로 원굴의 직선거리는 약 70 m이고 가장 넓은 곳이 3~4 m, 가장 높은 곳이 13 m에 달함.
제 347 호	삼지연	양강도삼지연군삼지연읍	백두 용암대지의 구조 골짜기를 화산분출물이 막아서 이루어진 자연보호이며 3개의 호수가 나란히 있다 하여 삼지연이라 함. 제일 큰 호수의 둘레는 2.5 km, 가장 깊은 곳은 3 m 가량됨.
제 63 호	비단섬 코끼리 바위	평북용천군비단섬 (노동자구)	서해가 서서히 침강될 때 화강암의 잔구가 섬으로 됨. 길이는 약 40 m이고 밑으로부터 2 m, 윗부분의 폭은 약 8 m이며 높이는 15 m, 코둘레는 9 m에 달한다.
제 69 호	동림폭포	평북동림군고군영리	폭포의 높이는 10 m에 불과하나 기묘한 생김새와 아름다운 풍경이 어울려 관서팔경의 하나로 알려왔음. 폭포 위에는 용바위·병풍바위·용늪이 있다.
제 86 호	천주석	평북향산군향암리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 같다 하여 천주석이라 함. 높이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제 329 호	천상수 아 혼아혼굽이	함북연사군삼포리	약 60 m, 폭 10 m 안팎이고 둘레 는 30 m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고산지 대에 있는 감입사행으로서 지각 의 서서한 용기와 하각 침식과 정을 보여주며 강폭은 2~4 m, 깊이는 2~10 m에 불과한데 수 량의 계절적 변화가 크다.
제 111 호	용수폭포	자강도시중군천장리	시주봉 중턱 해발 500 m 가량되 는 곳에서 화강암 벼랑을 따라 떨어지며 폭포의 높이는 76 m, 수직폭포
제 231 호	명경대	강원도금강군내강리	내금강백천동 깊은 골짜기에 길쭉 한 장방형의 선돌모양의 봉우리 를 말하며 높이 50~60 m, 폭 10 m
제 81 호	백령대굴	평북구장군대풍리	원굴(950 m), 미로굴(약 2.5 km), 천상굴(1.5 km), 산해굴(약 400 m) 이며 굴 안에는 천태만상의 돌 고드름돌순, 돌기둥과 맑은 물과 호수, 폭포
제 217 호	금강산닭알 바위	강원도고성군온정리	바위가 달걀처럼 생겨 닭알바위 라고 함. 화강암에 오랜세월 비 바람에 깎이고 씻기워서 타원형 의 달걀모양을 이룬 기암이다.
제 216 호	천선대	강원도고성군온정리	높이 936 m. 금강산의 절경 만물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제 220 호	삼선암	강원도고성군온정리	상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천연적인 전망대와 같은 봉우리. 금강산의 절경 만물상을 지키는 초병마냥 날창같은 바위 세개가 가지런히 서있는 바위봉우리.
제 316 호	노적봉	함북명천군보촌리	높이는 50 m, 칠보산 외칠보의 보촌천이 흐르는 계곡이 있는 노적봉은 수백만석의 쌀가마니를 쌓아 놓은것 같다하여 노적봉이라 함.
제 314 호	해칠보솔섬	함북명천군보촌리	화산암의 바위섬으로서 두개의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m를 사이에 두고 벼랑으로 맞서 있다. 둘레는 1km 정도. 가장 높은 데가 20m 가량되며 연해에는 파리조개·문어·이면수 등 서식
제 313 호	해칠보무지개바위	함북명천군보촌리	해식동굴로서 굴의 높이는 8m, 폭은 10m, 깊이 7m 가량되며 소나무·도토리나무·단풍나무 등이 있음.
제 310 호	해칠보달문	함북화대군목진리	달문의 높이 약 10m, 폭 7~8m, 길이는 5~6m 현수암으로 된 자그마한 바위섬이 해식을 받아 반달모양의 문과 같은 해식굴을 이루면서 서서히 솟아올라 해수면 위에 놓인다.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제 221 호	조양초	강원도고성군온정리	높이 31 m에 지나지 않으나 폭은 20 m에 달하여 마치 한줄기의 강이 그대로 쏟아지는 듯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
제 229 호	해금강문	강원도고성군해금강리	화강암으로 된 자그마한 섬으로 두개의 큰 화강암 기둥 위에 하나의 바위가 지붕처럼 가로놓여 있어 바다 위에 있는 대문과 같이 기묘한 생김새를 이룸.
제 223 호	십이포	강원도고성군온정리	폭포의 총높이는 289 m, 폭 4 m의 다단계폭포로서 폭포 맞은편에 있는 은선대에 올라가보면 하늘에서 내린 흰무지개와 같은 전경을 볼 수 있다 하여 은선대 폭포라고도 함.
제 224 호	귀면암	강원도고성군온정리	바위봉우리로서 그 모양이 하도 험상궂고 심술이 사납게 생겼다 하여 지은 기암, 삼선암 곁에 나란히 서 있음.
제 152 호	장수산 열두굽이	황남재령군서림리	석동십이곡이라고도 하며 장수산 열두굽이는 10여리에 걸쳐 열두폭의 병풍을 친것처럼 50~150 m 넓이의 겹쌓인 돌벼랑이 열두번 굽이쳐 늘어선 골짜기임.
제 64 호	막대바위	평북염주군남압리	규장암으로 되어 있으며 그 높이는 14 m, 밑둘레는 16 m, 체적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제 228 호	해금강솔섬	강원도고성군해금강리	은 약 100m ³ 이며 벌방지대에 솟아 울창하게 보이고 기묘하게 생긴 기암. 높이 50 m 은통 바위돌로 뒤덮여 있는 곳에 소나무가 자라남.
제 236 호	삼방협곡	강원도세포군삼방리	길이가 약 25 km, 폭 100~250 m, 깊이는 350~500 m 협곡의 바닥은 좁으며 협곡의 좌우벽은 300~500 m의 급한 산사면 또는 절벽이 박두하여 이마를 맞대고 있음.
제 290 호	이원학사대	함남이원군학사대리	바닷가에 관입한 화강암이 오랜 세월 비바람과 바다의 작용을 받아 씻기고 깎기위 기묘하고 풍치 좋은 벼랑과 기암을 이룸.
제 289 호	이원구석	함남이원군나흥(노동자구)	상부원 생태에 형성된 규암이 나흥 앞바다에서 비바람과 세찬 물결에 의하여 깨지고 쪼개져서 동그랗게 미끈히 닳아 크고 작은 달걀모양의 둥그런돌을 만들어 놓았음.
제 142 호	몽금포사구	황남용연군몽금포리	모래언덕의 수는 50 개를 넘으며 높이는 15~20 m에 이룸.
제 214 호	총석정	강원도통천군통천읍	생김새에 따라 입총·좌총·와총으로 나누며 사철 푸른 소나무가 있음.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제 268 호	광 포	황 남	60여개의 작은 하천들과 시냇물이 흘러들며 평균 넓이는 11.36 km ² , 길이는 5km 가량 됨. 오리목장, 양어장 관개용수로 이용
제 141 호	오차바위	황남용연군경금포리	높이는 12~15 m, 약간 경사져 있으며 밑둘레는 10 m, 윗부분의 둘레는 4~5 m

※ 본자료는 북한 「정무원」(내각)지시 제 27호 「천연기념물을 철저히 보존할데 대하여」(80. 2.18)에 의해 지정된 목록을 (조선중앙연감) 1981년판에 지리부분에 대해서만 공개한 것을 발췌한 것임.

- 한편 이와같은 天然的인 保存價値에 의한 天然記念物 指定外에도 北韓은 一般的인 나무를 金日成과 연결, 우상화시킴으로써 天然記念物로 指定, 保護하는 作態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北韓의 態度는 北韓의 모든것이 金日成에 依해 存在하고 存在해야만 한다는 그들의 論理로 보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金日成을 살아있는 神으로 받들고 있는 “金日成 王祖”의 한 단면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 金日成 偶像化의 表象으로 利用되고 있는 몇몇 나무實態를 살펴 본다.
 - 평양 단풍나무
 - 6·25 戰爭中이던 1953年 6月頃 金日成이 自宅의 庭園에 있던 단풍나무의 씨앗과 標本을 한 養苗場에 보내면서 이 단풍나무를 널리 심을것을 指示하고 이 나무 이름

을 “평양 단풍나무”라고 지어주었다는 것이다.北韓은 이 나무에 金日成의 “人民에 대한 恩惠로운 사랑”이 깃들어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 강선 포푸라나무

- 평안남도 대안시 강선제강기업소 구내에 있는 한 포푸라나무로서 休戰後 1週日만인 1953年8月 金日成이 이 나무아래서 廢墟가 된 이 工場의 復舊方道를 指示했다고 하여 保護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 나무의 높이는 약 30 m, 둘레는 4 m 정도인데 金日成이 “강선의 勞動階級에서 忠誠의 불씨를 안겨주었다” 하여 金日成 偶像史蹟物로써 뿐만 아니라 天然記念物로 指定, 鎡성시 보호되고 있다.

- 은정배나무

- 평안남도 문덕군 마산리에 所在하고 있는 이 배나무는 6·25 戰爭時期인 1952年9月 金日成이 이곳의 한 農家에 들렀을 때 12살난 딸애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瘡疾을 앓는 것을 보고 배를 6알주어 이 아이가 回復되자 이곳 사람들이 金日成의 “그 恩情·恩惠를 代를 이어 傳하기 위해” 그 배씨를 심고 가꾸어 온 것이라고 主張한다.

以後 金日成이 이 事實을 전해듣고 이 배나무를 “은정배나무”로 부르도록 指示했으며, 天然記念物로 保護·管理할 것을 指示했다는 것이다.

이 나무는 높이가 6.5 미터정도, 밑둥지 굵기가 1 미터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나무 또한 天然記
念物로 소중히 保全·管理되고 있다고 한다.

VI. 南北韓 文化財 交流方案

가. 交流의 必要性

- 南北分斷의 悲劇을 맞은지 40餘年の 歲月이 흘러가는 동안 北韓은 “社會主義的 事實主義” 創作遵守를 強調하면서 우리 民族의 傳統文化遺産을 黨政策 具現, 金日成家系偶像化, 黨性·人民性·階級性鼓吹를 위한 手段으로 이용해왔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우리의 貴重한 文化遺産은 純粹性·藝術性を 잃고 共產主義 체제에 肯定的인 方向으로 歪曲·變質되거나 抹殺되어 왔다.
- 이러한 民族文化의 人爲的 異質化 現狀은 時間이 흐를수록 더욱 더 심화되어 眞情한 民族的 和合에 의한 平和統一에 대한 障礙要因으로 作用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異質化를 克服하고 同質性を 회복하기 위해서는 南北韓間의 文化財 交流協力이 하루빨리 實現되어야 할 것이다.
- 더구나 國家統合은 窮極的으로 文化史的 統合을 의미한다고 前提할때 經濟, 體育, 社會, 政治分野의 交流가 進展된다 하더라도 결국 文化分野의 交流協力이 實現되지 못하면 진정한 意味의 統一이 어렵다는 觀點에서 볼때도 傳統文化財 交流의 必要性은 더욱더 절실해진다.

나. 交流의 目的

- 南北韓間의 文化財分野에서의 交流協力は 民族的 一體感 形成,

緊張緩和,北韓社會의 開放誘導等の 目的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具體的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單一民族으로서의 一體感 形成 (民族同質性 回復)
 - 民族史의 體系化 및 傳統文化遺産의 發掘·保存·研究
 - 單一民族意識 提高 및 傳統文化의 價値 認識
- (2) 南北韓間의 緊張緩和 및 갈등해소
 - 非政治分野 交流의 段階的 發展手段
 - “이데올로기”의 感情的 대립해소
 - 隣接國 學者 (특히 考古學分野)의 關心高調를 통한 中 共·蘇聯·日本과의 接觸계기 마련
- (3) 單一 民族文化 創達
 - 異質化된 文化構造의 同質化
 - 對外的으로 民族文化의 우수성 과시
- (4) 北韓社會의 開放化 誘導
 - 北韓學者의 開放化 誘導
 - 傳統文化·藝術에 대한 客觀的 認識力 提高
 - 科學的 研究의 必要性 認識 및 우리技術의 優秀性 誇示
 - 北韓社會에 韓國文化의 自律性, 다양성, 순수성 부각

다. 歷代 北韓提議의 特徵

- 지금까지 北韓이 文化分野 交流를 提議한 事例를 檢討해보면
 - 優先 形態面에서 韓國이 資料交換 또는 展示會와 같은 比

較的 實現可能性이 높은 方案을 提議한 反面, 北韓은 주로 共同研究·共同藝術團 構成等과 같이 雙方間의 接觸이 어느 정도 水準에 도달한 후에야 可能的한 “合作” 形態를 提議해 왔다.

- 提議分野面에서는 藝術分野의 提議가 가장 많은데, “藝術” 分野는 形式上으로는 우리民族의 傳統的인 演劇·音樂·舞踊·民俗을 包含하고 있지만, 內容上으로는 革命性·階級性·唯一思想을 주제로한 소위 “主體藝術”을 意味한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北韓은 文化財 交流에서 實踐主義 보다는 名分主義에 입각하여 宣傳效果 및 革命興件 組成을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表 - 18〉 文化財分野 交流提議 沿革 (包括的 提議 除外)

韓 國	北 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考古學 資料交換 및 考古學·民族史 共同研究 ('73.6.12) ○ 古美術品 相互交換 展示 ('76.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文化藝術서클(단) 相互交換 ('60.2) ○ 遺蹟·遺物 共同發掘 및 保存 對策講究, 國際藝術祝典 共同進出 ('60.11) ○ 古典文學, 藝術, 遺産 發掘整理 ('61.3) ○ 考古學 共同研究 討論會, 國際會議 共同參加 ('66.8) ○ 美術共同展覽會 開催 ('66.9) ○ 文化藝術團體間 協商 ('70.7)

韓 國	北 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古美術品展示 및 考古學者 交換 訪問 - 海外展示 ○ 考古學 및 美術史部門 研究와 展示交流 ('81.11.16) ○ 民族史 共同研究, 비무장지대 生態系 調査 ('83.2.1 - 20 個 示範實踐事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單一藝術團 構成 ('72.9) ○ 共同 民族藝術團構成, 國際舞臺 共同進出 ('72.11) ○ 共同展覽會 開催 ('72.12) ○ 單一 民族藝術團 構成 및 國際舞臺 進出하는 問題實現을 爲해 南北調節委 안에 文化分科 委 構成 ('81.10.20) ○ 藝術團 交換 ('83.4)

라. 交流의 限界性 및 基本方針

- 南北韓間의 文化財交流는 이데올로기와 體制上의 차이에 의한 文化有形의 相異性때문에 民族分斷의 傳統文化를 再發見하여 이를 統合시키는데 目的을 둔 순수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한 限界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傳統的·民族的인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同質性이 농후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交流對象이 갖는 意味나 價値解釋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악, 그네, 널뛰기 등의 民俗놀이와 같이 傳統的이면서도 同質的 要素가 남아있는 分野에서는 어떤 形態로든지 交流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國樂·古典무용·民謠와 같이 傳統的이기는 하지만 異質的 要素가 많은 分野나 인형극

가면극·판소리와 같이北韓에서 거의 모습을 감추어버린分野에서의 交流는 相當한 限界性을 갖고 있다.

- 그러므로 交流初期에는 同質性이 많이 남아있는分野, 相互體制에 影響을 줄 정도로 爭點化될 소지가 없는 政治的·理念的 色彩가 排除된分野로부터 出發하여, 漸進的으로 交流對象을 擴大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基準에서 文化財分野 交流의 優先順位를 定해보면 다음과 같다.

(1) 南北韓間에 相當한 研究가 진척되고 同質性이 많은分野

- 遺物·遺蹟

- 구석기時代 遺蹟
- 新羅·百濟 文化遺蹟(韓國)
- 남경遺蹟·高句麗·古朝鮮 遺蹟(北韓)
- 古代古墳壁畫

- 無形文化財

- 民俗무용(북춤, 장고춤, 칼춤)
- 民俗놀이(그네, 널뛰기, 농악)
- 서정적 民謠, 國樂器(단소, 양금, 세납, 피리, 가야금)
- 공예(고려자기, 이조자기)

(2) 隣接學術分野 交流에 波及效果가 큰分野

- 有形文化財

- 구석기時代 研究(제4기 지질, 遺蹟形成過程等)
- 신석기 농경기원
- 靑銅器墳墓의 地域性, 社會相 推定
- 初期철기의 금속학적 研究

- 天然記念物
 - 動·植物 棲息實態 및 地域分布
- (3) 隣接國家 (中共·日本·蘇聯 등) 의 參與 및 關心을 유발할 수 있는 分野
 - 有形文化財
 - 발해遺蹟
 - 광개토태왕비 關聯 研究
 - 만주지역 집안현소재 高句麗 古墳
 - 韓半島 稻作기원 問題
 - 無形文化財
 - 도자기·죽세 등 공예기술
 - 國樂器 (기원 및 변천과정)
 - 天然記念物
 - 動·植物의 棲息 및 地域分布
- (4) 南北韓間 견해차 및 異質的要素가 다소 많은 分野
 - 有形文化財
 - 新石期·靑銅器時代 編年 및 社會相
 - 新石期時代 農耕實態
 - 靑銅期時代 階級分化 問題
 - 삼국의 形成時期
 - 古朝鮮과 낙랑의 成立時期, 位置, 實相
 - 無形文化財
 - 國樂器 (韓國의 거문고, 아쟁, 편종, 나발과 北韓의 옥류금, 해금속악기, 장새남)

- 北韓에서 消滅된 인형극, 가면극, 판소리 등
- 近代 工藝技術 (北韓 工藝의 革命藝術性 부각)
- 명승지 (革命史蹟地 조작 및 정·휴양소 개조)
- 한편 交流를 推進하는 가장 基本的인 方針은 段階的 接近 方法일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 (1) 物的接觸→人的接觸
 - (2) 迂廻的接觸→直接的接觸
 - (3) 國外接觸→國內接觸
 - (4) 特定的接觸→包括的接觸
 - (5) 日時的接觸→常時的接觸 등으로 項目化할 수 있다.
- 勿論 이러한 交流의 優先順位와 接近方法은 交流協力の 基本的 方針인 만큼 政策決定時에는 그때 그때의 國內外的 狀況에 따라 伸縮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運用되어야 할 것이다.

마. 段階別 推進方案

(1) 資料交換

- 相互資料交換은 가장 可能性이 높은 方法으로써 國際學術會議에서의 關係論文이나 研究報告書 發表에 의한 間接的인 資料交換과 南北相互間的 直接的인 交換이 있다. 直接交流時에는 優先 양측에서 제작 및 간행된 슬라이드, 필름, 사진과 研究論文, 定期刊行物, 單行本 등의 目錄을 作成하여 交換하고, 그 다음에 서로 必要的 資料 및 所要部數를 決定하여 交換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直接的 交換方法으로서는 南北韓間의 協議에 의해서 板門店을 통하여 交換하는 것이 가장 一般的인 것이며 人事交流 推進時 關係者訪問과 兼해서 資料를 交換할 수도 있다.
- 交換場所는 板門店을 優先 생각할 수 있으나 交流가 活發해지면 發展的인 形態로써 南北韓 文化財 資料交換 센터를 共同建立하여 資料交換 및 共同研究의 場所로 活用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韓國의 考古學 研究方法 發達과 民俗藝術 保存·傳承 努力을 감안할 때 韓國側의 一방적인 資料提供 方案도 考慮해봄직한데, 이러한 提議는 相互交流를 유도해 낼 수 있는 效果的인 方法이 될 수 있다.

區 分	內 容
遺物·遺蹟	發掘報告書 및 研究論文, 圖面, 寫眞, 슬라이드, 定期刊行物, 單行本, 記錄映畫필름
인형극·가면극	研究論文, 冊字, 寫眞, 公演슬라이드 및 녹화필름, 무대소품 및 도구
음 악	악보 및 가사(국악, 농악, 민요, 판소리) 악기, 研究論文, 冊字, 녹음·녹화테이프
무 용	舞譜, 소품 및 도구, 公演슬라이드 및 녹화필름, 冊字 研究論文
민속놀이	研究論文 및 冊字, 民俗도구 및 자료, 민속박물관 소장품 現況資料, 寫眞, 슬라이드, 필름
名勝池, 天然 記念物	冊字, 寫眞, 保存管理實態資料(희귀동식물 棲息實態)
工藝技術	研究論文, 寫眞, 冊字

(2) 展示會 및 人事交流

- 傳統文化財를 展示하는 方法으로는 板門店 共同展示, 南·北 交換展示, 第3國에서의 海外 共同展示를 들 수 있는데, 海外 共同展示는 國際藝術祭 共同公演團 構成과 같은 段階에서 接近되어야 할 方法이다.
 - 實物의 展示는 단지 物的인 交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展示會에 必要한 雙方人力의 이동을 隨伴하므로 交流의 幅이 보다 擴大될 것이다.
 - 技術的인 問題로 고려청자, 민속무용소품등과 같이 展示對象 範圍를 限定시켜 特定的 展示會를 열수도 있으며, 박물관 소장전유물을 對象으로하는 綜合的 展示會를 생각할 수도 있다.
 - 交換展示 場所로는 優先 서울·평양등의 行政中心地를 擇하는 것이 展示品과 관련 人力移動의 便宜를 위해 바람직하나, 交換展示가 一定水準에 이르면 地方巡廻 展示의 方法도 考慮할 수 있다.
- 人事交流는 세미나, 民俗藝術 公演觀覽等과 같이 展示會와 겸해서 實施할 수도 있고, 獨立的으로 實施할 수도 있는데 유적지 및 박물관 交換訪問, 公演團 招請, 南北韓에서 열리는 國內 및 國際藝術祭 또는 學術會議 相互招請, 相互公演觀覽, 交換教授制度 等の 方法이 있다.
- 展示會와 人事交流는 專問家들을 비롯한 關係人事들이 直接 만날 수 있으므로 향후 共同研究나 共同公演團構成等の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區 分	內 容
遺物·遺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古美術品展示會, 遺物展示會, 遺蹟地 답사, 發掘現場 답사 및 관련 主題發表會, 考古學者 招請세미나, 交換教授制度, 博物館 交換訪問, 隣接國 學者 招請共同세미나, 遺物遺蹟寫眞展
인형극·가면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傳受者 招請公演 및 세미나, 藝術團 招請公演, 展示會 (舞臺小品, 의상, 도구)
音 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樂人 (기악, 성악) 招請公演, 악보 및 악기전시회, 關係專問家 招請세미나 (민요·악기등)
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古典무용단 招請公演, 무용의상·小品 展示會, 寫眞展示會 關係專問家 招請세미나 (의상·도구의 변천등)
민속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俗博物館 및 民俗村 相互觀覽, 招請公演 (韓國 : 藝術祭, 北韓 : 民族體育競技大會, 藝術祝典), 民俗學者 相互訪問 및 세미나 開催, 民俗資料 展示會
名勝地·天然 記念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名勝地 相互訪問, 動·植物 生態學者 相互訪問 및 세미나 開催 寫眞 및 화보전시회
工藝技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工藝品展示會, 工藝關係冊字 展示, 工藝技術 전수자 招請세미나

〈表-19〉 南北韓 主要 海外展示 事例

區 分	日 時	展 示 會 名	場 所
韓 國	1957-59	韓國 國寶展	美國 8 個都市
	1961-62	"	유럽 5 個國
	1976	韓國美術 5,000 年展	日本 3 個都市
	1979-81	"	美國 6 個都市
	1984	"	英國 · 프랑스 · 네덜란드
北 韓	1983	高麗청자 展示會	日 本

(3) 共同研究 및 公演團 共同構成

- 이 段階의 交流는 事實上 經濟, 體育, 學術, 文化 各 方面에서 相當한 程度의 交流가 進展된 狀態에서 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역대제의 事例를 보면 大部分이 共同研究, 共同公演團構成 등의 “合作” 形態의 提議였음을 미루어보아 北韓은 이 方法을 優先적으로 提議해올 可能性이 높다.
- 共同研究 (公演) 方法에는 國際機構 또는 第3國을 通하는 우회적 方法과 南北韓間의 直接的인 方法이 있다.
 - 앞으로 國際機構 (大會) 에서의 北韓學者 (公演團) 들의 活動이 크게 擴大될 것으로 豫想되는데 이 경우 韓國學者 (公演團) 도 參席할 수 있게 되면 南北學者들 (公演團) 間의 接觸이 이루어질 수 있고 資料 및 意見交換도 可能해 질 것이다.
 - 第3國을 通하는 境遇, 日本 · 中共 또는 其他 第3國을

通하여 南北韓間의 接觸 및 交流를 推進할 수 있는데, 第3國의 積極的인 協助를 前提로 한다는 問題點이 있으나 外交的인 努力을 경주하거나, 國際情勢가 해빙무드로 접어들면 第3國에서의 南北韓 學者 및 公演團의 同時招請이 實現될 可能性이 커질 것이다.

- 이러한 우회적 方法을 통한 學者들 및 公演團體들간의 接觸이 增加하면 國內에서의 共同研究 및 共同公演團 構成으로 擴大·發展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區 分	內 容
遺物·遺蹟	研究成果 定例報告會, 考古學者 全國大會, 遺物共同海外展示, 共同發掘調查(南北韓, 非無裝地帶), 國際會議 共同代表團 構成, 隣接地域遺蹟 共同調查團 構成(灣州, 연해주, 시베리아), 常設 共同研究所 設置, 印刷物 共同出版所 設置
인형극·가면극	共同製作, 單一劇團 構成 및 이의 海外派遣 및 國內公演, 專門學者 共同研究
音 樂	共同國樂團構成 및 이의 海外派遣 및 國內演奏會, 共同國樂 研究會構成, 樂器 악보 共同研究
무 용	共同 古典無踊團 構成 및 이의 海外派遣 및 國內公演, 古典舞踊 研究會 構成
民俗놀이	民俗 競演大會 開催(각도 및 地域대항 - 줄다리기, 그네, 덜뛰기, 농악) 共同調查 研究
名勝地·天然記念物	動植物 生態系, 共同調查 研究
工 藝	海外 共同展示, 工藝技術 研究會 構成
其 他	各種 研究結果 및 交流成果 共同出版, 記錄映畫 共同製作

〈表 - 20〉 南北學者 共同參加 事例

區 分	內 容
<p>日本 “다카마스고 총” 共同調查</p>	<p>日時：1972.9.30 -10.5</p> <p>參加者</p> <p>韓國代表 - 김재원, 김원동, 최순우, 이기백</p> <p>北韓代表 - 주영헌 (社會科學院 考古學研究所 副部長) 外 3名</p> <p>論議點</p> <p>韓國側 - 화법이 高句麗·百濟의 양식</p> <p>北韓側 - 高句麗樣式 및 政治的 發言으로 물의</p>
<p>第 29 次 파리 國際 東洋學者 大會</p>	<p>日時：1973.7.16-7.22.</p> <p>參加者</p> <p>韓國學者 (國內) 이승녕의 20名 (國外) 조 순승의 21名</p> <p>北韓學者 전호영 (考古學研究所 副所長)의 11名</p> <p>論議點：考古學 및 歷史學</p>

〈表 - 21〉 北韓의 最近 海外公演 活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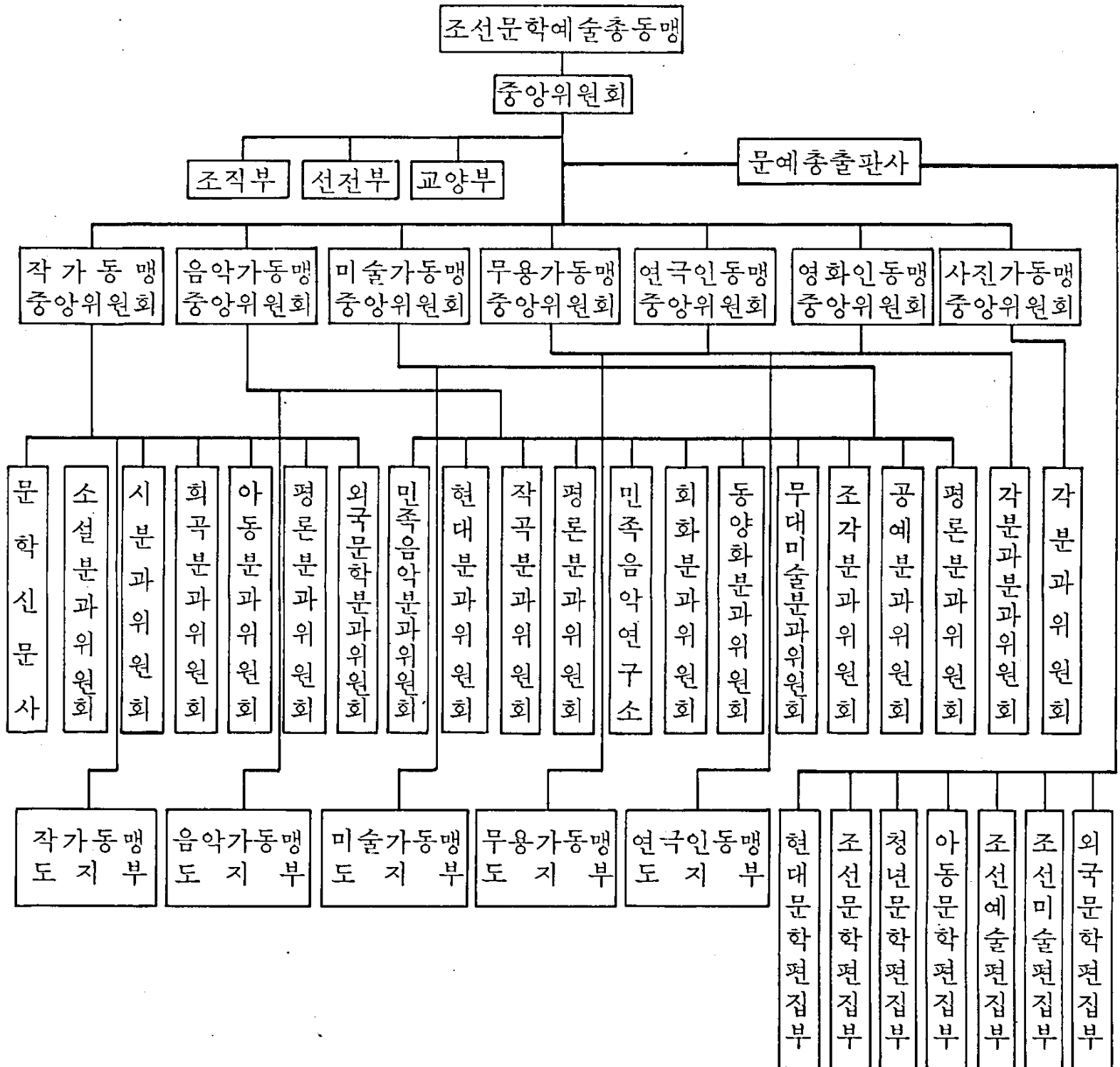
區分 年度	公演團體	訪問國家	期 間	人 員
1977	平壤藝術團	모잠비크, 말가슈, 탄자니아, 리비아, 튀니지아	7.31 - 10. 8	70名
	平壤巧藝團	프랑스	11.25 - 1. 8	50名
	平壤學生少年藝術團	불가리아	11.22 - 12. 5	60名
1978	平壤藝術團	버마, 네팔, 방글라데쉬, 싱가포르, 예멘,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2. 1 - 8.29	85名
	萬壽臺藝術團	동독, 체코, 헝가리, 폴란드	9.20 - 12.25	130名
	平壤巧藝團	벨기에, 유고, 소련, 버마	1.12 - 12.21	未詳
	平壤學生少年藝術團	일본	5. 3 - 6.16	180名
	國立交響樂團	중공	7.27 - 9. 5	160名
1979	平壤巧藝團	말레이지아, 태국	11. 5 - 12.18	未詳
	平壤藝術團	말타	3.25 - 4. 5	80名
	萬壽臺藝術團	프랑스	6.26 - 7. 5	未詳
	平壤學生少年藝術團	인도	1. 4 - 1.24	85名
		방글라데쉬	3.13 - 3.27	85名
		유고	6 월	未詳
		알제리	7 월	"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중국	8.17 - 9.30	"	

區分 年度	公演團體	訪問國家	期 間	人 員
	國立交響樂團	루마니아	5.16 - 5.31	未詳
	平壤巧藝團	말레이시아, 태국	11. 7 -12. 9	未詳

〈表 - 22〉 文化財關聯 機關 및 團體現況

區 分	韓 國	北 韓
政府機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文化公報部 - 文化財管理局 - 文化財研究所 ○ 文教部 - 學術院 (第3分科委) - 藝術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文化藝術部 - 音樂舞蹈局 - 群象文化局 - 演劇指導局
學術團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國史編纂委員會 ○ 韓國考古學研究會 ○ 民族文化推進會 ○ 韓國演劇傳承研究會 ○ 民俗學會 ○ 韓國國樂教育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社會科學院 - 考古學研究所 - 歷史研究所 - 古典研究所
文化·藝術 團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藝術文化團體總聯合會 - 韓國國樂協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鮮文學藝術總同盟 - 朝鮮演劇人同盟

區 分	韓 國	北 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舞踊協會 - 韓國美術協會 - 韓國演劇協會 ○ 韓國文化財保護協會 ○ 韓國文化藝術振興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鮮音樂家同盟 - 朝鮮美術家同盟 - 朝鮮舞踊家同盟
公演團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立唱劇團 ○ 國立劇團 ○ 國立舞踊團 ○ 國立오페라단 ○ 國立合唱團 ○ 國立國樂院 ○ 其他 民間公演團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바다가극단 ○ 國立交響樂團 ○ 朝鮮人民軍協奏團 ○ 平壤學生少年藝術團 ○ 萬壽臺藝術團 ○ 平壤歌舞團 ○ 平壤藝術團
海外弘報 (宣傳)機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文公部 (海外公報官) ○ 韓國國際文化協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文化藝術部 (各國文化機關) ○ 朝鮮對外文化連絡委員會
博 物 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立博物館 (本館 및 4 個分館) ○ 民俗博物館 (경복궁, 제주) ○ 市立博物館 ○ 大學校博物館 (35個) ○ 龍仁民俗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鮮中央歷史博物館 ○ 朝鮮美術博物館 ○ 歷史博物館 (원산, 함흥, 사리원, 개성, 청진, 김일성종합대학)
其 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然保護中央協議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鮮自然保護聯盟



VII. 結 論

- 北韓은 6·25 動亂後부터 前後復舊事業과 關聯하여 埋藏文化財의 調査發掘 및 破壞된 文化財의 原狀復舊事業을 活發히 展開해 왔다. 그 結果 韓半島의 歷史解明에 必要한 重要資料를 많이 提示하였다.
그러나 北韓이 遺物·遺蹟의 發掘 및 復舊를, 積極적으로 展開한 一次的인 目的은 그들 體制의 正統性 造作 및 政治的 宣傳에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 發表된 研究結果는 상당부분이 歪曲·造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그런데 民族文化를 共產主義的 階級文化로 改造하는 北韓의 反文化的 行爲는 無形文化財의 境遇 더욱 더 심각한 實情이다.
즉 인형극·가면극 및 판소리는 그들이 主體藝術의 극치라고 宣傳하는 “피바다”식 革命歌劇의 그늘속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어 버렸으며, 민요, 고전무용, 민족악기등은 革命性·階級性·鬭爭性 教養 및 金日成 가계우상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여, 革命歌劇 “피바다” “꽃파는 처녀”,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 映畫音樂 “朝鮮의 별” 등의 一部로 흡수되어 있다.
- 따라서 찬란한 民族文化遺産은 “民族的 形式에 社會主義的 內容을 담은 主體藝術創造” 라는 테두리속에서 傳統的 特徵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크게 變質되고 있는 實情이다.

- 北韓의 이러한 民族文化 造作行爲로 인한 南北韓間의 文化的 異質性은 이 分野에서의 交流協力에 커다란 障礙要因으로 作用할 可能性이 높다. 그러나 南·北韓 文化的 뿌리속에는 “單一民族性”이라는 공통분모가 잠재하고 있어서 雙方間의 交流協력이 예상외로 급진전될 可能性 또한 排除할 수는 없다.

이러한 狀況을 綜合 判斷할때, 文化財分野 交流協力は 다음과 같은 事項을 考慮하여 提議 및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可能的 範圍에서부터 相互交流를 推進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積極的인 努力을 경주해야 한다.

따라서 北韓을 交流協力の 장으로 誘導해내기 위해서는 “相互交換”이라는 좁은 테두리에서 交流를 提議하는 方法 이외에, 遺物遺蹟分野에서의 科學技術 편의제공이나 民俗藝術公演 實況 녹화 필름제공과 같이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한 “一方的 提供”을 提議하는 問題도 考慮해볼 가치가 있다.

- 둘째, 앞으로 國際的 地位向上, 對外宣傳等を 노려 北韓이 各種 國際學術會議나 國際藝術大會에 參加할 可能性이 크므로 韓國도 關聯分野 學者나 公演團體가 參席할 수 있도록 積極支援하여, 必要的 境遇 南·北學者들 및 藝術家들간의 個別的 資料交換 또는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여 北韓側이 交流協력에 關心을 갖도록 誘導해야 한다.

특히 中共·蘇聯等の 共產國家에서 開催되는 境遇 北韓側의 參加가 예상되므로 外交的인 努力을 경주하여 韓國도 參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韓國에서 開

催되는 各種 國際會議 및 藝術祭에 中共·蘇聯等 共產國家와 北韓을 招請하는 方法도 考慮해 볼 수 있다.

세째, 北韓은 韓國의 各種資料를 入手하기가 比較的 容易한 편이지만 우리는 北韓 社會의 閉鎖性으로 北韓側 資料입수가 어려운 現狀況에서는 第3國 特히 隣接國家 또는 北韓과 交流가 많은 國家와의 接觸을 通해 資料를 獲得해야 하며, 入手된 資料는 體制攻撃에 관한 內容이 아닌한 國內의 關係專問家들에게 開放하여 研究·檢討하도록 支援해야 할 것이다.

네째, 韓國의 民俗藝術分野가 小規模的이면서 傳統的 純粹性, 多樣性, 自律性を 特徵으로 하고 있다면, 北韓의 舞臺藝術은 비록 宣傳的이고 衝動的이긴 하지만 大規模的이고 綜合的인 性格을 띠고 있으면서 세밀한 技術도 뛰어난 것을 勘案할때, 交流協力 추진시를 對備하여 韓國의 民俗藝術 部間에 대한 支援擴大가 必要하다고 본다. 最近에 '88 文化올림픽을 겨냥하여 “藝術의 전당”을 建立키로 하고, 國立國樂團員들의 俸給을 인상하는등 國樂 活性化를 위한 政府의 배려는 南·北韓 文化交流의 次元에서 볼때는 더욱더 積極적으로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交流가 進展되어 “피바다”와 같이 規模가 방대한 作品이 公演될 境遇 國民들이 北韓의 文化水準을 과대평가할 소지가 있으므로 北韓 文化財의 實態를 國民들에게 정확히 弘報하여 北韓藝術의 宣傳性 및 劃一性を 認識시킴과 同時에 自由主義 體制下의 文化의 優秀性에 대해 確信을 갖게해야 할 것이다.

北韓의 遺物·遺蹟發掘實態 分析 및 南北韓學術交流方案

研究執筆： 任 孝 宰

- (略歷)
- 서울大 文理大 考古人類學科卒(1965)
 - 美國 Austin 所在 Texas 州立大
大學院人類學科 考古學碩士(1975)
 - 日本九州大 文學博士(考古學)
(1985 수여 예정)
 - 서울大學校 人文大 考古學科長



目 次

I. 序	111
II. 遺蹟發掘獎勵政策의 意圖分析	112
III. 遺蹟·遺物의 發掘實態	121
IV. 發掘考證內容의 歪曲事例	166
V. 南北學術交流方案	170
VI. 綜 合	197

I. 序 言

解放後 北韓은 先史時代에서 歷史時代에 걸친 相當數의 遺蹟·遺物 發掘調査를 實施하였다. 그 結果, 그 研究 成果를 그대로 認定하기 어려운 部分도 적지 않지만 韓半島 歷史 解明에 있어서 적지 않은 重要資料를 提示하였다.

그러면, 北韓은 어떠한 意圖에서 遺蹟·遺物 發掘調査事業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였는가? 또 그것은 어떠한 制度的 뒷받침 아래에서 推進되었으며, 그런 制度下에서 이룩된 遺蹟·遺物 發掘實態는 어떠한 하며, 歪曲된 부분은 없는가? 앞으로 이 分野에서 南北間의 學術 交流는 어떻게 推進하는것이 바람직한가? 本 研究는 以上과 같은 問題에 主眼點을 둔 것이다.

本 研究를 進行하는 데 있어서는 北韓에서 發行된 遺蹟調査報告書, 論文 등을 一次的 基本資料로 하였다. 國內에서 入手하기 어려운 資料는 日本이나 다른 第三國에서 求하였고, 그래도 入手하기 어려운 것은 除外시킬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解放以後 北韓에서 出刊된 報告書나 論文의 數는 엄청난 양에 이르므로 그 중에서도 특히 學術적으로 重要的 價値가 있는 것을 中心으로 하였다. 本 研究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힘써준 統一院 第四研究官室 諸氏에 게 감사드린다.

II. 遺蹟發掘政策

北韓의 考古學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唯物史觀에 입각하여 社會發展 5 段階法則에 따라 우리 民族의 遺産인 遺蹟·遺物을 그런 틀 속에 짜맞추는 작업을 계속하여 왔다. 즉 韓國의 先史時代를 原始共同體社會로, 古代社會를 奴隸所有制社會로 規定하고 그 傍證資料를 考古學分野에서 찾기 위해 解放直後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그들의 文化政策은 「形式은 民族主義的으로, 內容은 社會主義的으로」라는 원리 아래 철저히 종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民族文化遺産은 共產主義的 階級文化로 개조되었다. 더구나 各 報告書, 論文마다 政治 宣傳 文句가 없는 것이 없어 결국은 考古學의 成果를 철저한 政治活動의 매개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그와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考古學政策이 어떠한 制度下에서 시작되고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946年 4月, 北韓의 臨時人民委員會는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을 공포하고 各道 人民委員會內에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를 設置하여 各地의 遺蹟·遺物 및 天然記念物을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同委員會는 各道 人民委員會 教育部內에 설치된 까닭에 충분한 成果가 없게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48年에는 “물질문화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고 이에 의거 內閣直屬으로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를 설치하여 內務相 책임아래 모든 遺物·遺蹟의 發掘·保存·管理가 이루

어지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접 그 규정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물질문화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

제 1 조 역사상의 기념물 및 학술연구상의 귀중한 자료가 되는 유적 건조물 회화(繪畵) 공예품 전적(典籍) 등 유물은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 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칭한다)에서 이를 보존 관리한다.

전항의 유물중 위원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은 이를 고적 또는 보물로서 지정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 2 조 전조에 해당하는 출토품 및 기타 일체 새발견품은 국가의 소유로 한다.

전항의 유물을 발견한 자는 2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 또는 소관 지방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유물발견의 보고를 받은 지방인민위원회는 그 유물을 보관하여 2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보고자에 대하여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제 3 조 제 1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유물은 임의로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한다.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국외전람회 등에 일시 출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제 4 조 제 1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유물은 이를 파괴 훼손 또는 은
익함을 금한다.

제 5 조 고적 보물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요할 때에는 반
드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제 1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유물의 발굴 또는 그 현상(現
狀)을 변경하는 행위를 요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제 1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유물로서 개인이 소유할 경우에
이를 때 전당 또는 양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위원회는 제 1 조 제 1 항의 유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보
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적당한 보관방법을 지시하
여 그 보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8 조 본규정을 위반한 자는 법에 의하여 처단한다.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 1 조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약칭한다)
는 조선의 물질문화유물의 수집 보존 관리 및 그의 과학적 조
사연구와 이에 대한 인식을 보급시키며 역사 민속학 미술사 등
각종 박물관 사업을 관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는 내각에 직속하여 사업상 내각 및 수상에게 복종
한다.

제 3 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14 명으로서 구성한다.

제 4 조 위원회 위원장은 내각에서 임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내각 수상이 이를 임면한다.

제 5 조 위원회는 각 도에 위원장 1명, 위원 8명의 조선물질문화 유물조사 보존 도위원회 (이하 도위원회라고 약칭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한 지역에 5명 내지 7명의 유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도위원회와 유물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그의 성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임면한다.

제 6 조 위원회는 매년도의 예산심의 및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며 위원회에 관한 중요사업을 토의 결정한다.

위원회는 매년도 사업계획 및 사업총결보고를 청취한다.

제 7 조 정기위원회는 매년 2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위원회 내에 별표 (생략)와 같은 기구 및 직원을 둔다.

제 9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일체사업을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 10 조 서기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11 조 각 부장은 각각 담당부 사업에 관한 책임을 지고 다음의 각부사업을 집행한다.

1. 원시사 및 고고학부

(1) 패총 (貝塚), 동굴 (洞窟), 거석 (巨石) 문화유물, 각 시대의 분묘 (墳墓), 주거지 (住居址) 및 석기, 토기, 각종 출토품 등의 발굴조사연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사보고서작성 및 연구문건출판에 관한 사항

2. 미술사 및 건축사부 (생략)

3. 민속학부 (생략)

4. 박물관지도부

(1) 각종 박물관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각종 박물관의 진렬자료의 심사 및 할당분배에 관한 사항

(3) 각종 박물관의 신축 증축 및 이전에 관한 사항

5. 총무부 (생략)

그 후, 1952年 10月 “科學院”을 설립하여 그 안에 “물질문화연구소”를 두고 遺物·遺蹟의 조사, 발굴, 연구를 전담케 하였다.

이 “물질문화연구소”는 1957년에는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로 개편되어 都宥浩, 田疇農, 金用珩, 黃基德 등이 주도하였다. 이 기구는 다시 1964年 2月の 내각결정 제 11호에 의해 科學院에서 분리된 “社會科學院”의 소속으로 바뀌었다.

현재 北韓의 文化財 管理 行政은 크게 두 分野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分野는 文化財의 보존, 관리, 복원, 개수등에 관한 것이고, 둘째 분야는 遺物·遺蹟의 調査, 發掘, 研究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분야의 업무는 중앙에서는 정무원 직속인 “문화유물보존지도국”이, 지방에서는 “문화유적관리소”가 담당하고 있고, 두 번째 분야의 업무는 중앙에서는 사회과학원 산하 기구인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가, 지방에서는 각도의 “역사박물관”이 전담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보면,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의 개설과 함께 隔月刊誌인 “문화유산”이 창간되어 1962년까지 36권이 발간되다가 1963년부터는 季刊誌인 “고고민속”으로 바뀌었으나 이것마저 1967년 第4號를 마지막으로 총 20권이 발간되고 終刊되었다. 이들 定期刊行物에는 遺蹟發掘略報告를 비롯하여 地表調査報告, 學術研究論文이 수록되어 있다.

不定期刊行物로는 遺蹟發掘報告, 考古學資料集, 考古民俗論文集이 있는데 지금까지 發刊된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蹟遺發掘報告 >

- 第1集, “羅津草島原始遺蹟發掘報告”, 1955.
- 第2集, “弓山原始遺蹟發掘報告”, 1957.
- 第3集, “安岳第3號墳發掘報告”, 1958.
- 第4集, “安岳第1·2號墳發掘報告”, 1958.
- 第5集, “台城里古墳群發掘報告”, 1959.
- 第6集, “江界市公貴里原始遺蹟發掘報告”, 1959.
- 第7集, “會寧五洞原始遺蹟發掘報告”, 1960.
- 第8集, “智塔里原始遺蹟發掘報告”, 1961.
- 第9集, “大成山一帶의 高句麗遺蹟에 關한 報告”, 1964.
- 第10集, “金灘里原始遺蹟發掘報告”, 1964.
- 第11集, “德川 승리산 遺蹟發掘報告”, 1978.
- 第12集, “石灘里遺蹟發掘報告”, 1980.
- 第13集, “鴨綠江·禿魯江流域高句麗遺蹟發掘報告”, 1983.

< 考古學資料集 >

- 第 1 集, “大同江流域古墳發掘報告”, 1958.
第 2 集, “大同江 및 載寧江流域古墳發掘報告”, 1959.
第 3 集, “各地遺蹟發掘報告”, 1963.
第 4 集, ‘祥原 검은모루 舊石器時代遺蹟發掘報告’外, 1974.
第 5 集, “貞栢洞墳墓群發掘報告”, 1978.
第 6 集, “樂浪區域一帶古墳發掘報告”, 1983.

< 考古民俗論文集 >

- 第 1 集, ‘祥原 검은모루 遺蹟發掘中間報告’外, 1969.
第 2 集, ‘豆滿江流域의 靑銅器時代文化’外, 1970.
第 3 集, “各地遺蹟整理報告”, 1971.
第 4 集, ‘西浦項原始遺蹟發掘報告’外, 1972.
第 5 集, ‘紀元 4 世紀까지의 高句麗墓制에 관한 研究’外, 1973.
第 6 集, ‘高句麗古墳壁畫의 特性과 文化史的意義’外, 1975.
第 7 集, ‘德川 승리산 遺蹟의 年代에 대하여’外, 1979.
第 8 集, ‘弓山文化에 대한 研究’外, 1983.

이들 定期·不定期刊行物外에 單行本으로 출판된 것도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도유호의 “조선원시고고학”(1960), 주영현의 “발해문화”(1971), 김용남·김용간·황기덕의 “우리나라 원시집 자리에 관한 연구”(1975), 고고학연구소의 “고구려문화”(1975), “고

조선문제연구논문집 ” (1976), 과학백과사전출판사의 “ 조선고고학개요 ” (1977), 사회과학출판사의 “ 조선의 구석기시대 ” 등을 들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北韓의 考古學政策은 한마디로 말하여 國家的次元에서 組織的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질문화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매장문화재는 발견후 2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토록 되어 있고 문화재의 해외 반출과 은닉을 철저히 규제하는 등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며, 遺蹟의 發掘 역시 고고학연구소를 비롯한 일정한 기관에서만 행하게 하고, 發掘結果는 그 기관지를 통해 발표하게 하는 등 遺蹟의 發掘·研究가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北韓에서의 遺蹟發掘은 先史時代分野 以外에도 初期鐵器時代, 高句麗時代의 壁畫古墳에 注力하여 왔다. 特히 古朝鮮, 高句麗古墳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것은 遺蹟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호화로운 遺物이 多量 埋葬되어 있는 古墳을 집중적으로 發掘함으로써 수집된 遺物을 통해 문화적 우월성을 對内外에 선전하고 나아가 北韓의 正統性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構造에 있어서나 出土 遺物에 있어서 多樣的 古墳의 發掘이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唯物史觀的 社會發展 5段階法則을 뒷받침하는 데 더욱 적당한 資料를 提供해 주기 때문이다.

北韓의 遺蹟發掘政策中 또 한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解放直後부터 1960年代 初半까지는 매우 활발한 發掘調査가 進行되었으나 1960年代 後半부터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1970年代以後에는 全國的으로 1年 平均 1個遺蹟의 發掘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까닭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겠는데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 遺蹟發掘調査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되는데
큰 원인이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해방 직후 의욕적인
發掘調査를 진행하였던 근본 원인인 唯物史觀을 實證해 줄 수 있
는 資料의 획득이 점차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考古學 獎勵에 역점을 두어온 北韓의 文化政策은, 唯物史
觀에 따른 歷史解釋을 유도하는데 考古學이 有效할 수 있다는 評
價아래 進行되었으며, 평양 부근의 舊石器時代遺蹟에서부터 시작되어
古朝鮮과 高句麗를 거쳐 발전되어온 韓半島 文化의 傳統을 강조함
으로써 北韓政權의 正統性 造作을 圖謀하고, 우리의 民族文化를 共
産主義式 階級文化로 개조시켜 결국 政治的 宣傳活動의 매개물로
活用하는 데 그 意圖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Ⅲ. 遺蹟·遺物の 發掘實態

北韓에서는 解放直後인 1946年 4月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 保護令”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문화재 보호 작업이着手되었다. 정식 發掘調査事業은 1947年 咸鏡北道 雄基郡 松坪洞의 패총을 호시로 시작되었으나 학문적 미숙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發掘報告書는 刊行되지 못하였다. 1949년에는 羅津 草島와 安岳 1·2·3號墳을 비롯한 본격적인 학술 발굴 조사가 수행되었고, 6·25 동란 이후에는 대규모 토목 사업의 수행과 함께 드러나는 遺蹟의 救濟 발굴이 급증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大同江流域의 古墳發掘調査와 載寧江流域의 古墳發掘調査이다.

北韓에서의 遺蹟 發掘 調査에 대한 資料는 南北韓間의 政治的인 관계로 인하여 직접 입수할 수 없고 日本에서 번역 또는 소개된 資料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北韓의 遺蹟發掘現況을 時代別로 나누어 보면, 舊石器時代의 遺蹟은 7個所, 新石器時代의 遺蹟은 約 10 個所, 靑銅器時代의 遺蹟은 約 30 個所, 初期鐵器時代의 遺蹟은 約 15 個所, 三國時代以後의 遺蹟은 40餘個所에 달한다.

1. 舊石器時代

北韓地域에 있어서는 이미 1930年代에 韓國 最初로 舊石器時代 遺蹟이 발견된 바 있으나¹⁾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1963

註1) 直良信夫, “朝鮮潼關鎮發掘舊石器時代の遺物”, 滿蒙報告, 1940, pp.1~12.

년에서 1964년에 걸쳐 咸北 雄基郡 屈浦里 西浦項과 그 북쪽 鮎浦里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됨으로써 韓半島 舊石器時代의 存在가 確認되게 되었다. 이어 1966년에는 평양시 祥原邑 부근의 黑隅里(검은모루) 동굴에서 洪積世動物化石과 石器가 發掘되었고 1969년과 1970년 사이에는 祥原邑 청청암 동굴과 黃海北道 平山郡의 해상 동굴에서도 動物化石과 石器가 發掘되었다. 最近에는 1972년과 1973년에 걸쳐 平南 德川에서 2個體分の 化石人骨이 발견됨으로써 舊石器時代의 研究는 進一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內容을 토대로 北韓의 舊石器時代 研究 成果를 整理해 보기로 하겠다.

1) 舊石器時代 前期

1966년에 발견된 평양시 상원군 검은모루 유적은²⁾ 舊石器時代 前期初로서, 약 60—40萬年前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洪積世 中期에 속하는 큰쌍코뿔이, 넓적코뿔사슴, 검은모루땅쥐 등의 화석이 주먹도끼, 뾰족끝석기, 망치 등의 석기와 함께 출토되는데 이러한 석기들은 석영암과 석회암을 이용하여 臺石打法과 直打法으로 만든 것들이다.

2) 舊石器時代 中期

雄基郡의 屈浦里遺蹟은 角頁岩製의 石器가 출토되는 舊石器時代 後期層(屈浦文化 II期)과 石英岩製의 石器가 출토되는 中期層

註2) 김신규·김교경, “상원 검은모루 구석기시대 유적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1974, pp.3~39.

(屈浦文化 I期)으로 나누어진다. 中期層에서는 石器外에도 당시 천막을 치고 생활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遺構도 調査되었다.³⁾ 中期의 遺蹟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德川遺蹟⁴⁾으로서 이곳에서는 2個體分の 人骨과 함께 2,000여점의 動物化石, 石器등이 출토되었는데 이곳 人骨中 승리산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人系의 人骨은 ‘德川人’이라 命名되었다.

3) 舊石器時代 後期

西浦項 屈浦文化 II期層과 鮎浦里 德山遺蹟, 德川 上層이 後期에 속하는 유적이다. 앞의 두 遺蹟에서는 간접타범이나 눌러뜯기 등 발견된 수법으로 만들어진 찍개, 긁개, 밀개, 칼날같은 石器가 출토되었다. 德川 上層에서는 現生人種(Homo sapiens sapiens)에 속하는 ‘승리산인’이 발견되었다.

참고로 舊石器時代의 중요 유적에 대해 발굴 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祥原 검은모루 舊石器時代遺蹟 發掘報告>

김신규·김교경, 고고학자료집 4, 1974, pp.3~39.

평양시 상원군 상원읍 검은모루 유적은 1966년에 발견되어 1970년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유적의 성격에 대해서는 1969년에 논한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자연지리적 환경과 퇴적층에 대하여 덧

註3) 김용간·서국태, “서포항원시유적발굴보고”, 고고민속논문집 4, 1972, pp.33~40.

4)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조선고고학개요, 1977, pp.8~10.

붙여 언급하고, 포유동물 화석을 재정리하여 年代 및 自然環境등을 복원하려고 하였다.

祥原 검은모루 동물상은 중부 갱신세 이른시기에 속하는 것이다. 그것은 중부 갱신세에 속하는 큰쌍코뿔이, 넓적큰뿔사슴, 검은모루땅쥐 등의 화석이 출토되며 중부갱신세에 속하는 주구점 13지점이나 1지점 아래층에서 나오는 동물보다 이른 시기의 動物인 상원말, 상원큰뿔사슴, 습들쥐 등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당시 상원지방에 물소, 원숭이 등과 같은 짐승이 산 것으로 보아 기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웠고, 비가 많이 내려 祥原江의 큰 범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祥原 검은모루 遺蹟에서 현재 북쪽지방에 서식하고 있는 쥐토끼, 갈밭쥐 등과 남부 열대, 아열대에 사는 물소, 원숭이 등이 같이 나오는 것은 당시 자연 경관대가 현재와 같이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짐승들이 비교적 넓은 지역에 고루 퍼져 산 것과 관련된다.

<청청암 및 해상동굴유적 발굴보고>

김교경, 고고학자료집 4, 1974. pp.40~63.

평양시 상원군 청청암 동굴과 황해북도 평산군 해상동굴 유적에 대한 發掘은 1969~1970年 사이에 進行되었다. 이 글에서는 洪積世 中期 늦은 時期에 속하는 우리나라 서부 저평지대 동물상의 특성을 밝혀냄으로써 舊石器時代 우리나라의 自然環境을 복원하려고 하였다.

청청암 동굴은 상원읍에서 황해북도 연산군으로 가는 길을 따라 가다가 상원강과 합치는 바람골에 위치한 조그만 洞窟이다. 여기서는 3목 5과 7속 7종의 化石動物이 調査되었는데 대부분이 우제류로서 상원군 검은모루 동물상보다 늦은 時期의 동물상이며 평산동굴 동물상보다 이른 時期의 동물상으로서 中期 洪積世의 중기에 속한다. 당시의 自然環境은 검은모루 時期보다 덥지는 않았으나 현재보다는 더웠으며 祥原江은 5회의 범람을 거쳤다. 당시 動物들의 地理的 分布는 점차 명백해지는 段階에 있었으며 우리나라 저지소구의 동물은 大陸과의 連繫가 거의 끊어진 조건에서 獨自的으로 發展하기 시작하였다.

평산군 해상동굴은 평산군 해상리에서 동서쪽으로 예성강의 지류인 해상강을 따라 약 15 km 올라간 좁고 깊은 골짜기에 위치해 있다. 이 유적에서는 3목 7과 9속 21종의 동물화석이 出土되었는데 이중 동굴곰 한 종을 除外하고는 死滅種이 없으며 모두 현재의 동물상과의 공통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우제류가 청청암유적보다 높은 比率을 차지하는 점을 보면 해상 동굴 遺蹟의 年代가 더 늦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遺蹟에서 출토된 동물상의 연구를 통해 중부 洪積世 初期에는 기후가 덥고 습윤하여 넓은 초원지대와 산림지대가 펼쳐져 쥐류, 상원말과 산림성 포유류가 퍼져 살았지만 중부 洪積世 中期와 末期에 自然條件이 거의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산림이 무성하고 구릉성 저산지대가 널리 퍼져서 산림성 포유류와 구릉성 저산지대에 서식하는 짐승들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덕천 승리산 유적 발굴보고>

考古學研究所, 遺蹟發掘報告 11, 1978.

德川 승리산 遺蹟은 평양에서 약 75 km 떨어진 大同江上流에 위치한 舊石器時代의 洞窟 遺蹟으로서 1972~1973 년에 發掘 調査되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動物化石과 함께 人骨이 출토되었는데 人骨중 어금니 2개와 쇠골 1개는 舊石器時代 中期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德川人”으로 命名되었고, 下顎骨 1개는 舊石器時代 後期에 속하는 現生人種으로서 “승리산人”으로 命名되었다.

2. 新石器時代

1950 年 平南 溫泉郡 弓山里에서 전형적 즐문토기를 내는 遺蹟이 발견된 이래 1960 년까지 꾸준히 新石器時代의 遺蹟發掘이 이루어졌으나 약 20 年 동안 별다른 成果가 없다가 1979 年에 들어와서 평양시에서 남경유적이 새로 발굴 조사되었다. 重要 遺蹟과 入手 可能的한 報告書에 대한 概要는 다음과 같다.

- 평남 온천군 궁산리 (1950)
- 평양시 승호구역 금탄리 (1955)
- 황북 봉산군 지탑리 (1957)
- 함북 용기군 굴포리 서포항 (1960)
- 자강도 중강군 토성리 (1960)
- 평양시 삼석구역 남경 (1979)

<弓山原始遺蹟 發掘報告>

遺蹟發掘報告 2, 1957.

平安南道 溫泉郡 海雲面に 位置한 이 遺蹟은 貝殼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發掘은 1950 年에 실시되었다. 여기에서는 5 基의 竪穴住居址가 확인되었는데 그중 4 基는 圓形이고 1 基는 方形이었다. 住居址에는 기둥구멍이 있고 중앙에는 화덕자리가 있으며 화덕 곁에는 저부를 잘라낸 大形土器를 거꾸로 묻은것이 있다. 土器는 둥근밑, 뾰족밑, 납작밑의 것이 보이는데 文樣은 魚骨文이 위주이고 波狀點線文도 간혹 보인다. 石器는 石鏃, 石槍, 石斧, 礮石 등이 있다. 특이한 것으로는 水牛의 뼈가 출토된 점으로서 당시의 기후가 현재보다 온화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智塔里原始遺蹟 發掘報告>

遺蹟發掘報告 8, 1961.

이 遺蹟은 황해도 봉산군 문정면 지탑리에 있는 “唐土城”이라 불리는 土城內와 그 부근에 걸쳐있다. 1959 年の 發掘調査結果 土城內의 제 1 지구에서 1 基의 住居址를, 주변의 제 2 지구에서 2 基의 住居址를 확인하였다. 제 1 지구의 제 1 호주거지는 1 변 약 7m 크기의 方形住居址이나 제 2 지구의 2·3 號住居址는 圓形的 전통을 보여주는 抹角方形이다.

出土된 土器의 器形은 뾰족밑, 둥근밑, 납작밑에 가까운 둥근밑의 것이 많고, 半卵形이 기본이나 甕形도 보인다. 무늬는 口緣部와

器腹部가 다른 것이 많고 魚骨文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石器에는 石鏃, 碾石, 石鎌, 石鋤, 紡錘車 등이 있다. 주목을 끄는 것은 제 2 지구의 2호주거지에서 출토된 土器속에 담긴 炭化穀物로서 조 또는 피라고 추정된다. 이것은 石鋤, 石鎌 등의 農耕道具와 함께 農耕이 행하여졌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西浦項原始遺蹟 發掘報告>

김용간·서국태, 고고민속논문집 4, 1972.

西浦項遺蹟은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 서포항동 동북쪽 산기슭에 위치한 것으로서 1947년에 처음으로 알려졌으나 발굴은 1960년에야 시작되어 1964년까지 5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곳에서는 구석기문화층으로부터 청동기문화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新石器時代의 住居址 21基, 靑銅器時代의 住居址 9基가 나타나서 선사시대의 集落址로서 중요한 遺蹟임이 판명되었다.

舊石器時代文化層은 크게 2개의 層으로 細分되는데 아래층은 中期 舊石器, 윗층은 後期 舊石器에 해당한다. 新石器時代 文化層은 다시 5기로 세분되는데 매층에서 드러난 住居址와 遺物은 서로 연결되는 것도 있으나 얼마간 時期를 달리하는 것도 있다. 靑銅器時代 文化層은 2기로 나뉘는데 층위는 다르나 遺物上으로 보면 뚜렷한 區分이 없어서 직접적인 계승 관계를 암시한다고 하겠다.

이 遺蹟의 年代는 舊石器文化層은 舊石器時代 中期에서 後期까지, 新石器文化層은 紀元前 5千年紀 末에서부터 紀元前 2千年紀 初까

지, 靑銅器文化層은 회령 오동 유적보다 이른 時期로부터 무산 범의구석 붉은간그릇 시기까지 걸치는 것이다.

3. 靑銅器時代

1949年 咸北 羅津郡 草島 遺蹟의 發掘로부터 시작된 靑銅器時代 遺蹟의 發掘은 크게 住居遺蹟과 支石墓 등의 墳墓遺蹟으로 구분이 된다.

(1) 住居遺蹟

- 함북 나진군 초도 (1949)
- 함북 회령군 오동 (1954)
- 평양시 원암리 (1955)
- 자강도 강계시 공귀리 (1955)
- 평양시 금탄리 (1955)
- 평남 강서군 태성리 (1957)
- 황북 황주군 심촌리 (1958)
- 자강도 시중군 심귀리 (1958)
- 함북 봉산군 봉산읍 신흥동 (1958)
- 황남 용연군 석교리 (1958)
- 함북 무산군 호곡동 (1959)
- 황남 안악군 북사리 (1959)
- 평양시 미림 설바위 (1959)
- 함북 응기군 굴포리 서포항 (1960)

자강도 중강군 토성리 (1960)
 평양시 와산동 (1961)
 평양시 입석리 (1961)
 평북 영변군 영변읍 세죽리 (1962)
 평남 중화군 강로리 (1963)
 평북 용천군 신암리 (1964)
 함남 영흥군 영흥읍 (1964)
 황북 송림시 석탄리 (1964)
 함남 북청군 중리 (1965)
 황북 인산군 주암리 (1965)
 평남 북창군 대평리 (1967)
 평양시 남경 (1979)

이들 遺蹟에서는 지금까지 300 개가 넘는 住居址가 發掘 調査되었
 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研究한 論文도 發表되었는데 1975 年에 發表
 된 김용남·김용간·황기덕의 “우리나라 원시집자리에 관한 연구”
 가 그것이다.

(2) 墳墓遺蹟

支石墓를 위시한 石箱墳 등의 墳墓 역시 住居遺蹟을 비롯한
 각지에서 꾸준히 發掘 調査되었는데 代表的인 墳墓遺蹟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함북 청진시 농포리 상매리 (1956)
 평남 용강군 석천산 (1958)

황북 황주군 심촌리 진동 (1959)

평남 개천군 묵방리 (1960)

함북 김책군 덕인리 (1960)

황북 연탄군 오덕리 (1971)

이들 遺蹟에서는 현재까지 수백기가 넘는 墳墓가 發掘되었는데 이들을 종합적으로 研究한 論文도 수편이 발표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79 年에 發表된 석광준의 ‘우리나라 서북지방 고인들에 관한 연구’이다.

다음에는 중요 遺蹟에 대해 간략히 整理해 보기로 하겠다.

<회령 오동 原始遺蹟 發掘報告>

도유호, 遺蹟發掘報告 7, 1959.

오동유적은 회령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 일대의 古代 유적 중 가장 중요한 遺蹟으로서 그 범위는 수만평에 달한다. 1954 年에서 1955 年에 걸치는 2 차의 調査結果 400m²의 發掘 範圍에서 9基의 住居址가 確認되었다.

住居址는 최상층의 6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네 줄의 기둥을 세운 방형이나 장방형으로서 청동제품이 출토되지는 않으나 6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보인다. 年代는 6~4C B.C 에 걸치며 6호는 4C末~3C初 B.C.로 봄이 타당하다.

<강남 원암리 원시유적 발굴보고서>

정백운, 문화유산, 1958-1, pp.60~65.

이 遺蹟에서는 靑銅器時代의 住居址 2基가 發掘되었다. 모두 長方形의 竪穴住居址로서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다. 遺物은 血溝가 달린 石劍과 石鏃, 작살, 石斧, 半月形石刀, 紡錘車와 角形土器片이 出土되었다.

<1958년 춘하기 어지돈 지구 관개 공사 구역 유적 정리 간략 보고>

황기덕, 문화유산, 1959-1, pp.38~52.

1957년부터 시작된 어지돈지구(황해북도 봉산군, 은파군 및 황주군 일대)의 관개 공사시 나타난 유적중 봉산군 봉산읍 마동 역전 원시 유적, 신흥동 유적, 어수구 주거지, 당촌 주거지, 도마산 지석묘, 사리원시 상매리 석상분, 황주군 심촌리 유적, 송산리 유적, 솔피골 유적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글이다.

<황주군 심촌리 청동기시대 유적 발굴 보고>

황기덕·이원근, 고고민속, 1966년 3호, pp.32~42.

황해북도 황주군 심촌리 정방산 서북쪽의 언덕 및 평야지대에는 支石墓群과 住居址가 分布되어 있다. 이 일대의 일부 유적은 1958년과 1959년에 발굴되었고 몇차례에 걸쳐 略報告를 통해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4基의 住居址와 11

基의 支石墓를 소개하고 있다.

이 遺蹟의 발굴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첫째, 이 유적은 평안남도 및 황해도에서 잘 알려진 팽이그릇 관계 주민이 남긴 遺蹟이라는 것이다. 둘째, 종전까지는 팽이그릇 주거지 주변의 支石墓가 주거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만 하였지만 심촌리 遺蹟의 發掘을 통해 같은 사람들이 남긴 遺蹟임이 밝혀진 사실이다. 셋째, 변형 지석묘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把握할 수 있었고, 이러한 변형 지석묘가 후기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지석묘 부장품은 묘광내부 뿐만 아니라 묘광 밖에도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여졌다. 따라서 지석묘 주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後代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장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미송리 동굴유적 발굴 중간보고 (II)>

김용간, 문화유산, 1961-2, pp.23 ~ 33.

미송리 동굴에는 時期를 달리하는 두개의 문화층이 약 15~20 cm 두께의 間層을 사이에 두고 겹놓여 있다. 이 중 아래 문화층은 西海岸의 弓山이나 智塔里 遺蹟에서 特徵的인 장란형을 기본으로 하는 그릇과 함께 함북 일대와 평북에서 보이는 平底의 단지류가 포함된다. 따라서 미송리 아래문화층을 남긴 사람들은 農浦, 西浦項 遺蹟의 주민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윗문화층에서는 비교적 좁은 면적에서 많은 토기류와 함께 人骨, 動物뼈 등이 상당량 출토되었기 때문에 住居址라기 보다는 무덤으

로 보는것이 타당할것 같다. 그것은 동굴 서쪽 입구에서 나온 표주박을 잘라버린 듯한 형태의 단지 속에 새뼈 등의 동물뼈가 많이 담겨있었다는 사실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무산 범의구석 유적 발굴보고>

황기덕, 고고민속논문집 6, 1976, pp.124~226.

범의구석유적은 함경북도 무산읍 서쪽의 두만강가에 위치한 것으로서 新石器時代 末期로부터 鐵器時代 初期에 해당하는 50餘基의 住居址가 發見된 중요한 遺蹟이다. 發掘은 1959年부터 196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遺蹟은 住居址의 構造, 遺物의 공통성에 따라 6時期로 區分된다. 제 1기는 화덕 한개가 있는 네줄 기둥의 방·장방형, 소형 주저지가 주류이며 토기는 무늬그릇, 굽손잡이 그릇이 출토되는 시기이다. 제 2기는 방형 주저지가 消滅되고 장방형만이 보이는데 토기는 주로 홍도계와 무문토기가 出土되는 시기이다. 제 3기에는 住居址에서 주춧돌이 나타나며 遺物로는 갈색마연토기, 꼭지손잡이토기, 유엽형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제 4기에는 住居址에서 主孔 대신 주춧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遺物은 이중구연의 점정간그릇과 순수 마제석기가 주류를 이룬다. 제 5기부터는 철기가 등장하며 제 6기에는 나무그루손잡이토기가 보인다.

이 遺蹟의 年代는, 제 1기가 기원전 2천년기 초로부터 시작되어 제 6기가 기원전 3세기에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교란층에서 五

銖錢이 출토되는 점 등을 보면 제 6기 이후에도 얼마간 더 사람들이 居住했음을 알 수 있다.

<평안남도 개천군 묵방리 고인돌 발굴 중간보고>

김기웅, 문화유산, 1961-2, pp.45 ~ 54.

묵방리 遺蹟은 1960년의 發掘을 통해 20여기의 변형고인돌이 정리된 곳이다. 무덤은 크게 2가지로서 하나는 棺이 東西方向으로 놓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南北方向으로 놓인 것인데 이 두가지에 공통적인 것은 뚜껑돌이 예외없이 棺의 장축 방향과 같고 무덤의 방향과 구조상의 특징이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특히 棺의 막음시설에서 더욱 뚜렷한데 이러한 사실은 무덤을 썼던 당시 사람들이 매장에 대하여 강한 전통과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양시 서성구역 와산동 팽이그릇 유적조사보고>

김용남·서국태, 문화유산 1961-6, pp.22~28.

건축 공사중 발견된 이 遺蹟은 1961년에 긴급 조사를 하였다. 모두 6基의 住居址가 확인되었으나 그 중 비교적 完全한 1基만 發掘할 수 있었다.

이 住居址는 길이 9m, 폭 5m, 깊이 60cm 정도되는 것으로서 바닥은 原土層을 平坦하게 고르고 북쪽벽쪽에 치우려 화덕을 설치하였다. 遺物은 角形土器, 變形角形土器, 半月形石刀, 별도끼 등으로

서 角形土器遺蹟에서 출토되는 것과 같다.

이 遺蹟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支石墓가 발견된 적은 없으나 와산동 유적은 角形土器가 전성하던 시기인 巨石文化時期의 遺蹟임에 틀림없다.

<세죽리유적 발굴중간보고> (1), (2)

김정문, 고고민속 1964-2, pp.44 ~ 45. 1964-4, pp.40 ~ 50.

세죽리는 영변군 영변읍에서 동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청천강가에 위치해 있다. 1962~1963년에 걸친 發掘調査에서 新石器時代의 住居址 1基, 靑銅器時代의 住居址 23基, 鐵器時代의 住居址 3基가 發見되었다.

이 遺蹟의 層位는 크게 세개로 나뉜다. 제 1 문화층은 櫛文土器가 출토되는 層으로서 금탄리유적 제 1 문화층과 성격이 비슷하다. 제 2 문화층은 無文土器類가 출토되는 층으로서 住居址의 중복에 따라 다시 세개의 층으로 세분되는데 맨 아래층은 長頸壺, 隆起文土器, 二重口緣土器가 출토되는 층이고, 가운데 층은 미송리 윗문화층과 성격이 비슷하며, 맨 윗층에서는 묵방리형 토기, 二重口緣土器, 젓꼭지손잡이토기, 帶狀把手附土器가 출토된다. 제 3 문화층은 古代文化層으로서 明刀錢을 비롯한 鐵器類가 출토된다. 따라서 제 3 문화층은 기원전 4세기 이후로는 내려올 수 없으므로 제 2 문화층 상층은 기원전 4세기 이전으로 올라간다.

<신암리유적 발굴중간보고>

이순진, 고고민속, 1965-3, pp.40 ~ 49.

신암리는 평안북도 용천군 소재지에서 동북쪽으로 약 4 km 떨어진 곳에 있다. 이 유적은 1964년에 500 m²를發掘하여 住居址 4基를 調査하였다. 층위는 모두 4개층으로 나누어지는데 제 1문화층에서는 新石器時代 遺蹟에서 흔히 보이는 櫛文土器, 雷文土器 등이 많으나 靑銅器時代에 特徵的인 덧무늬를 비롯한 각종 무늬와 배합된 것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石器로는 靑銅器時代의 特徵的인 半月形石刀, 대패날, 달도끼 등이 출토되고 있어 제 1문화층은 靑銅器時代의 初期일 가능성이 많다.

제 2문화층에서 출토되는 遺物은 미송리 윗문화층의 것과 비슷한데 흔히 미송리형의 遺蹟에서는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고 있어 고조선 시기로 여겨지는데 이 신암리의 미송리형 문화층 역시 고조선 시기의 문화층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제 3문화층은 고조선 후기이며, 고구려층인 제 4문화층보다 앞서는 시기이다.

<영흥읍 유적에 관한 보고>

서국태, 고고민속, 1965-2, pp.35 ~ 45.

遺蹟은 영흥역에서 동북쪽으로 약 1 km 떨어진 용흥강 기슭에 위치해 있다. 發掘은 1964年 9월에 進行되어 靑銅器時代의 住居址 10基가 確認되었다. 遺物은 孔列土器를 비롯하여 有溝石斧, 劍

柄頭, 石鏃, 半月形石刀, 鎔范 등이 있는데 이중 有溝石斧와 劍柄頭는 종전까지 그 소속관계가 명확하지 않던 것들로서 住居址에서 출토되기는 이곳이 처음이다. 이런 遺物은 미송리형 토기를 쓴 주민의 집자리에서 나온것과 같다. 鎔范은 모두 4점으로서 이는 당시 청동 주조술이 상당히 발전하였음을 보여주는 예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인산군 주암리 원시 유적 발굴 간략 보고>

백룡규, 고고민속, 1966-2, pp.21~23.

주암리 遺蹟은 인산군 인산읍에서 40 km 떨어진 예성강 지류를 끼고 있다. 1965년 역사박물관 유물보존부에 의해 調査가 實施되어 住居址 1基와 石箱墳 1基, 變形支石墓 1基가 發掘되었다.

住居址는 길이 11 m, 너비 6 m의 대형으로서 住居址 바닥에는 진흙을 약 1 cm 두께로 깔아 다졌고 한 가운데에는 직경 50 cm 정도의 화덕자리가 있었다. 遺物로는 작은 長頸壺 1점과 角形土器片, 달도끼, 石鏃, 半月刀, 石貨 등이 있다.

石箱墳은 두께 3 cm 내외의 板石으로 만든 것인데 2層으로 된 것이 특이하다.

變形支石墓는 바닥에 板石을 깔 것인데 板石아래는 둥근 강돌을 깔았고, 板石의 四面에는 둥근 돌을 쌓아 묘광을 만들었다.

<북청군 중리 유적>

안영준, 고고민속, 1966-2, pp.24~27.

<신암리유적 발굴중간보고>

이순진, 고고민속, 1965-3, pp.40 ~ 49.

신암리는 평안북도 용천군 소재지에서 동북쪽으로 약 4 km 떨어진 곳에 있다. 이 유적은 1964년에 500 m²를發掘하여 住居址 4基를 調査하였다. 층위는 모두 4개층으로 나누어지는데 제 1 문화층에서는 新石器時代 遺蹟에서 흔히 보이는 櫛文土器, 雷文土器 등이 많으나 靑銅器時代에 特徵的인 덧무늬를 비롯한 각종 무늬와 배합된 것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石器로는 靑銅器時代의 特徵的인 半月形石刀, 대패날, 달도끼 등이 출토되고 있어 제 1 문화층은 靑銅器時代의 初期일 가능성이 많다.

제 2 문화층에서 출토되는 遺物은 미송리 윗문화층의 것과 비슷한데 흔히 미송리형의 遺蹟에서는 비파형동검이 출토되고 있어 고조선 시기로 여겨지는데 이 신암리의 미송리형 문화층 역시 고조선 시기의 문화층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제 3 문화층은 고조선 후기이며, 고구려층인 제 4 문화층보다 앞서는 시기이다.

<영흥읍 유적에 관한 보고>

서국태, 고고민속, 1965-2, pp.35 ~ 45.

遺蹟은 영흥역에서 동북쪽으로 약 1 km 떨어진 용흥강 기슭에 위치해 있다. 發掘은 1964年 9월에 進行되어 靑銅器時代의 住居址 10基가 確認되었다. 遺物은 孔列土器를 비롯하여 有溝石斧, 劍

柄頭, 石鏃, 半月形石刀, 鎔范 등이 있는데 이중 有溝石斧와 劍柄頭는 종전까지 그 소속관계가 명확하지 않던 것들로서 住居址에서 출토되기는 이곳이 처음이다. 이런 遺物은 미송리형 토기를 쓴 주민의 집자리에서 나온것과 같다. 鎔范은 모두 4점으로서 이는 당시 청동 주조술이 상당히 발전하였음을 보여주는 예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인산군 주암리 원시 유적 발굴 간략 보고>

백룡규, 고고민속, 1966-2, pp.21~23.

주암리 遺蹟은 인산군 인산읍에서 40 km 떨어진 예성강 지류를 끼고 있다. 1965년 역사박물관 유물보존부에 의해 調査가 實施되어 住居址 1基와 石箱墳 1基, 變形支石墓 1基가 發掘되었다.

住居址는 길이 11 m, 너비 6 m의 대형으로서 住居址 바닥에는 진흙을 약 1 cm 두께로 깔아 다졌고 한 가운데에는 직경 50 cm 정도의 화덕자리가 있었다. 遺物로는 작은 長頸壺 1점과 角形土器片, 달도끼, 石鏃, 半月刀, 石貨 등이 있다.

石箱墳은 두께 3 cm 내외의 板石으로 만든 것인데 2層으로 된 것이 특이하다.

變形支石墓는 바닥에 板石을 깔 것인데 板石아래는 둥근 강돌을 깔았고, 板石의 四面에는 둥근 돌을 쌓아 묘광을 만들었다.

<북청군 중리 유적>

안영준, 고고민속, 1966-2. pp.24~27.

遺蹟은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에서 서쪽으로 6 km 떨어진 곳에 있다. 發掘은 1965年 6月과 10月 2차에 걸쳐 實施되어 3개의 住居址가 확인되었다.

이 住居址는 모두 땅을 약간 파고 架構를 設置한 長方形竪穴住居址로서 靑銅器時代에 속한다. 東海岸 一帶의 靑銅器時代의 遺蹟에 대한 調査는 그다지 많지 못하였으나 중리 遺蹟은 東海岸 一帶의 靑銅器時代 終말과 鐵器時代의 개시 문제 연구에 貴重한 資料를 提供하여 주었다.

< 1965년도 신암리유적발굴보고 >

김용간·이순진, 고고민속, 1966년 3호, pp. 20~31.

평안북도 용천군 신암리 유적은 1964年 10월에 일부가 發掘되어 「考古民俗」 1965年 3호에 그 結果가 發表되었다. 이 글은 1965년 5월과 10월의 두차례에 걸친 연차발굴 結果를 정리한 것이다.

5월에 發掘한 제 2지점(모래산유적)에서는 322 m²를 發掘하여 IV호·V호 住居址와 한개의 시설물을 調査하였다. 層位는 청동말래유형의 遺物이 출토되는 층(제 1문화층, IV호시설물 發掘) 위에 미송리 유적 위문화층유형의 遺物을 내는 층(제 2문화층, IV·V호 住居址 發掘)과 高句麗時代의 층(제 3문화층)이 있다. 遺物은 제 1문화층에서 주로 무늬가 있는 토기편과 土製 원판형 紡錘車 2점이 出土되었고, 제 2문화층에서 물동이형 손잡이가 붙은 소형 토기 2점과 大同江 流域의 變形角形土器 口緣부와 비슷한 토기 파편, 바닥에 葉脈이 찍힌 土器底部를 비롯하여 수점의 石器가 출토

되었다. 제 3 문화층에서는 여러가지 形態의 질그릇과 鐵製 활촉·도끼·말자갈등이 출토되었다.

10월에 發掘한 제 3 지점에서는 두개의 文化層이 調査되었다. 下層인 제 1 문화층은 청동말래유형과 거의 같고 새롭게 채색무늬가 있는 토기편이 출토되는 점만 다르다. 제 2 문화층에서는 제 2 지점의 제 2 문화층에서 출토되는 遺物과 같은 것이 많고 일부 청동말래유형의 것도 보인다.

결국 신암리 遺蹟에 있어서는 청동말래 遺蹟이 가장 이른 時期로서 新石器時代 末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 3 지점 제 1 문화층, 제 3 지점 제 2 문화층, 미송리유적 위문화층, 고구려층으로 이어지고 있다.

< 1966 년도 신암리유적발굴간략보고 >

신의주역사박물관, 고고민속, 1967-2, pp. 42 ~ 44.

이것은 1966年 신의주 歷史博物館에서 發掘한 약보고로서 1965년의 제 3 지점과 가까운 지점을 정리한 것이다. 1966년의 發掘에서는 특별한 遺構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靑銅刀子와 靑銅단추가 發見되었다. 土器는 器形·色 등이 제 3 지점 제 2 문화층의 것과 같아서 미송리유적 위문화층보다는 앞선 것으로 여겨지는데 미송리유적 위문화층의 연대가 기원전 천년기 전반기에 속하므로 이 遺蹟은 靑銅器時代 遺蹟중에서도 比較的 이른 시기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창군 대평리유적 발굴 보고>

정찬영, 고고학자료집 4, 1974, pp.119 ~ 156.

평남 북창군 대평리는 북창읍에서 2 km 가량 떨어진 대동강 기슭에 있다. 1967년에 처음으로 알려졌고 같은해 6월의 發掘調査를 통해 25基의 住居址와 6基의 石箱墳 2基의 支石墓가 정리되었다.

櫛文土器片이 출토되기는 하나 住居址는 靑銅器時代와 鐵器時代의 것이다. 靑銅器時代의 住居址는 제 1 지구에서 발견된 것인데 평면 형태는 비슷하나 화덕이 두개 있는 것과 한개 있는 것으로 대별된다. 화덕이 한 개만 있는 住居址에서는 角形土器가 주로 출토되나 화덕이 두 개씩 있는 住居址에서는 모래를 많이 섞은 납작 밀그릇과 돌과가 출토되는 것을 보면 화덕이 두개씩 있는 집이 더 늦은 時期의 것으로 믿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細竹里 遺蹟의 예와 같다.

鐵器時代의 住居址는 제 2 지구에서 나타나는데 靑銅器時代의 住居址와 比較해 볼 때 規模가 작아지면서 구들 시설을 갖춘 지상 가옥으로 발전해 가는 特徵을 나타내고 있다.

<오덕리 고인돌 발굴 보고>

석광준, 고고학자료집 4, 1974, pp. 74 ~ 118.

황주천 유역과 정방산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황해북도 일대에는 여러가지 支石墓가 많다. 그 중에서도 황해북도 연탄군 오덕리 支

石墓群은 규모나 수효에 있어 대표적인 것이다.

1971年 10月 15日부터 11月 13日까지 약 한달동안 오덕리 일대 송신동, 평촌, 석장골에서 支石墓 21基와 住居址 1基, 돌돌림 遺蹟 1개소를 發掘하였다. 支石墓의 類形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돌무지로 된 묘역 시설이 있는 것.

둘째, 네면이 막힌 支石墓 중 주위에 돌이나 흙으로 보강한 조잡한 것.

셋째, 支石을 둥그스름하게 잘 다듬고 무덤간 바닥에 강돌이나 판돌을 깔 정교한 부류.

넷째, 支石과 뚜껑돌을 잘 다듬고 무덤간 한쪽에 문을 낸 웅장한 것 등이다.

이상의 네가지 類形의 支石墓는 일정한 변천 과정을 거치는데 가장 이른 時期의 것이 첫번째 類形이고 그다음 두번째, 세번째 類形의 段階를 거쳐 네번째 類形으로 發展하였다.

<용연리 유적 발굴 보고>

강중광, 고고학자료집 4, 1974, pp. 64 ~ 73.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읍에서 서북쪽으로 약 5km 떨어져있는 야산에 위치한 용연리 유적은 1962년의 답사를 통하여 알려졌다가 1972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發掘調査되었다.

여기서는 청동말래유형의 住居址 3基와 半月形石刀, 석촉, 번개무늬 그릇 등이 調査되었다. 특히 土器類는 器形, 文樣, 施文方法,

胎土 등이 청동말래 遺蹟의 경우와 똑같아서 이 遺蹟이 청동말래 類形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온 종래의 견해를 뒷받침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遺蹟의 發掘에서 얻어진 또한가지 성과는 住居址 發見을 통해서 청동말래 類形의 住居址가 新石器時代 말기의 特徵을 그대로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4. 初期鐵器時代

初期鐵器時代 遺蹟의 發掘은 주로 土壙墓와 住居址의 發掘로 大別된다.

(1) 土壙墓

황북 황주군 천주리 한밭골 (1955)

황북 은파군 갈현리 하석동 (1956)

평남 강서군 태성리 (1957)

평남 안악군 북사리 망암동 (1958)

황남 재령군 부덕리 수역동 (1959)

평양시 만경대 (1959)

평양시 용산리 (1961)

(2) 住居遺蹟

함북 회령군 오동 (1954)

자강도 시중군 심귀리 (1958)

함북 무산군 호곡동 (1959)

자강도 중강군 토성리 (1960)

평남 영변군 영변읍 (1962)

평남 북창군 대평리 (1967)

代表的인 遺蹟을 개관해 보기로 하겠다.

<운성리 유적 발굴 보고>

이순진, 고고학자료집 4, 1974, pp.200 ~ 227.

운성리 遺蹟은 황해도 은율군 운성리 가말리 마을에 있다. 이 遺蹟은 前後 5 차례에 걸쳐 發掘되었다. 즉 1차는 1954年, 2차는 1962年, 3차는 1963年 5月, 4차는 1963年 7月, 5차는 1966年에 實施되었는데 도합 土壙墓 9基, 귀틀무덤 3基, 甕棺墓 5基, 磚築墳 2基 및 土城을 發掘하였다.

土壙墓는 두가지로서 하나는 豎穴內에 아무런 施設을 하지 않은 움무덤이고, 또 하나는 豎穴內部에 木槨을 설치할 木槨墓로서 구조나 출토 유물에서 볼 때 움무덤이 발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귀틀무덤은 豎穴內에 통나무로 槨을 짜고 그 안에 夫婦를 합장시킨 것으로서 구조나 규모·출토유물로 보아 木槨墓가 發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처럼 한 지역내에 여러가지 형식의 무덤이 섞여있는 것은 우리나라 서북 지역 일대에서는 흔한 예로서 이러한 현상은 개별적인 전통이 계통을 달리하는 별개의 문화인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계승 발전한 동일한 문화임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태성리 저수지 건설장에서 발견된 유적 정리에 대한 개보 (1)>

전주농, 문화유산, 1958-2, pp.37 ~ 57.

태성리 저수지는 평양 서부 지대인 기양 지구 관개 시설의 하나로서 1957年 10月부터 공사에 착수되었다. 공사 도중 이 일대에서는 住居址 1基, 支石墓 2基, 石箱墳 2基, 甕棺墓 5基, 土壙墓 7基, 石室墳 3基가 發掘 調査되었다. 發掘 自體가 충분한 기간동안 計劃的으로 進行된 것은 아니었으나 일정 지역내의 土壙墓 一群을 調査하였고, 이를 통해 종래 중요시되어 오던 細形銅劍 및 狹鋒銅鉞의 소속 遺蹟에 대한 明確한 認識이 可能하게 되었다.

<부조예군 무덤 발굴 보고>

이순진, 고고학자료집 4, 1974, pp.183 ~ 191.

이 무덤은 1958年 평양시 낙랑구역 정백동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細形銅劍을 비롯한 마구, 수레 부속품과 함께 「夫祖歲君」이라고 새겨진 도장이 出土되었다. 이 무덤은 맨땅을 수직으로 내려판 長方形의 豎穴內에 무덤의 방향과 일치하게 長方形의 나무곽을 만들고 거기에 널을 묻은 土壙 木槨墳으로서 무덤의 基本構造와 遺物로 보아 土壙墓를 계승한 것으로 본다.

<함경남도 일대의 고대유적 조사보고>

박진욱, 고고학자료집 4, 1974, pp.165 ~ 182.

함경남도 일대에서는 일찍부터 細形銅劍遺蹟이 알려져 왔다. 1962,

1967 年의 두차례의 調査에서도 함흥시 이화동, 신창군 하세동리, 인
흥군 용산리, 영흥군 용강리, 함흥시 반룡산, 함흥시 호상동, 함주군
대성리, 인흥군 연동리, 함흥시 송해리, 흥원군 운포리 등지에서 細
形銅劍을 위시한 靑銅器가 確認되었다. 그런데 細形銅劍을 내는 遺
蹟에서 特徵적인 것은 銅戈가 반출되는 比率이 높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細形銅劍의 수는 200 자루가 넘는데 비해
銅戈는 30 여자루 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銅戈는 특수 신분 계층
에서만 使用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함경남도 일대에서만 10
자루나 나온 사실은 주목을 끄는 일이다. 한때는 이를 위만 세
력의 東北地域 擴張結果로 解釋하기도 하였으나 위만조선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청천강 이북에 있었던 만큼 이러한 현상은 달리 해석
되어야 하는 것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銅戈를 쓴 시기문제로서 기원전 2
세기 전반기로 국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신창군 하세동
리 움무덤에서는 銅戈가 방울달린 수레굴대투겁과 함께 나왔다. 평
양 일대의 움무덤(土壙墓)에서 많이 출토되는 수레 부속은 위만
일당에게 쫓겨온 準王 일행이 보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출토되는 銅戈도 그와 관련시켜 보아야 할 것이다. 文獻에는 準
王이 남쪽으로 와서 마한을 세웠다가 그의 死後 滅絶되었다고 하
였으나 사실은 滅絶된것이 아니고 그 후예들이 동북한으로 옮겨간
것으로서 함남을 중심으로 한 동북한 일대에서 출토되는 細形銅劍
관계 遺蹟은 그 결과로서 볼 수 있는 것이다.

<토성동 제 4 호 무덤 발굴 보고 >

김종혁, 고고학자료집 4, 1974, pp. 192 ~ 199.

평양시 낙랑구역 오봉산 기슭에 위치한 이 무덤은 1969년 6월에 發掘된 것으로서 수직으로 파내려간 장방형 豎穴에 木槨과 木棺을 안치하고 흙을 덮은 무덤이다. 여기서는 銅劍과 수레부속, 마구류, 토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遺物들은 土壙墓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방울달린 원통형의 수레 굴대투겁과 을자형동기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것으로서 이들이 土壙墓와 土壙 木槨墓에서 출토되는 사실은 土壙木槨墓 文化가 土壙墓 文化를 계승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한편 이곳에서는 직경 9.8 cm 크기의 草葉文鏡이 출토되었는데 이 거울은 기원전 1세기에 주로 使用된 것으로서 이 무덤의 연대를 짐작하게 하여 준다.

5. 三國時代 (高句麗)

三國時代의 遺蹟은 주로 壁畫古墳을 비롯한 積石塚, 山城 등 주로 高句麗의 遺蹟이 대부분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調査되고 있는 것은 壁畫古墳으로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모두 58基에 달하나 그중 28基는 解放前에 調査된 것이고 解放後에 새로 調査된 것은 30基이다. 그러나 이 58基中에서 21基는 만주 輯安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北韓內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모두 37基인데 이중 17基는 解放前에, 20基는 解放後에 調査되었다.

지금까지 發掘調査된 高句麗 壁畫古墳을 輯安一帶所在와 北韓所在로 大別하여 각각 解放前과 그 後 發掘된 것으로 細分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輯安一帶所在

① 解放前 發掘 (11 基)

舞踊塚, 角抵塚, 散蓮花塚, 三室塚, 通溝四神塚, 環文塚, 龜甲塚, 美人塚, 通溝五號墳, 通溝 12 號墳, 通溝 18 號墳.

② 解放後 發掘 (10 基)

解放後에 새로 발견된 輯安一帶의 壁畫古墳은 모두 中共에 의해 發掘調査된 것이다.

長川 1 號墳, 長川 2 號墳, 麻線溝 1 號墳, 下解放 31 號墳, 萬寶汀 1368 號墳, 山城下 332 號墳, 山城下 938 號墳, 通溝 4 號墳, 禹山下 41 號墳, 五盛墳 4 號.

2) 北韓所在

① 解放前 發掘 (17 基)

魯山里鎧馬塚 (平壤), 內里一號墳 (平壤), 湖南里四神塚 (平壤), 高山里 1 號墳 (平壤), 高山里 9 號墳 (平壤), 南京 1 號墳 (平壤), 眞坡里 1 號墳 (平壤), 眞坡里 4 號墳 (平壤), 江西大墓 (平南), 江西中墓 (平南), 蓮花塚 (平南), 雙楹塚 (平南), 龍岡大塚 (平南), 梅山里四神塚 (狩獵塚, 平南), 星塚 (平南), 龕神塚 (平南), 天王地神塚 (平南).

② 解放後 發掘 (20 基)

平壤驛前壁畫墳 (1954, 平壤), 加長里壁畫墳 (1956, 平南), 藥

水里壁畫墳(1958, 平南), 台城里 1 號墳(平南), 台城里 2 號墳(平南), 修山里壁畫墳(1971, 平南), 大安里 1 號墳(1954, 平南), 麻永里壁畫墳(平南), 八清里壁畫墳(1969, 平南), 遼東城塚(1953, 平南), 安岳 1 號墳(1949, 黃海道), 安岳 2 號墳(1949, 黃海道), 安岳 3 號墳(1949, 黃海道), 伏獅里壁畫墳(1957, 黃海道), 우산리 1 號墳(1978, 平南), 우산리 2 호분(1978, 平南), 우산리 3 호분(1978, 平南), 大寶山里壁畫墳(平南), 寶山里壁畫墳(平南), 德興里壁畫墳(1976, 平南)

以上 解放後 北韓에서 行해진 遺蹟發掘調査例를 時代別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는데, 遺蹟別로는 古墳이 압도적으로 많은 部分을 차지하고 있고, 時代別로는 三國時代(高句麗)의 것이 단연 우세한 實情이다. 이와같은 遺蹟發掘性向은 약간은 의도적인 것으로서 그 이유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참고로 解放以後 지금까지 行하여졌던 發掘을 年度別로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表〉 年度別 遺蹟發掘事例

발굴연도	유적명	종류	시대	소재지	출전
1949	草島	住居址外	靑銅器	함북 나진군 초도	“라진초도원시유적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제1집, 1955.
	安岳1,2,3號	古墳	삼국시대	황남 안악군	“안악 제1, 2호분 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제4집, 1958. “안악 제3호분 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제3집, 1958.
1950	弓山	住居址	新石器	평남 은천군 운하리	“공산원시유적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제2집, 1957.
	요동성총	고분	삼국시대	평남 순천군 용봉리	“평남 순천군 용봉리 요동성총 조사보고”, 고고학 자료집, 1958.
1953	원산중평리 (~ 1957)	산포지	청동기	원산시 중평리	이장섭. “원산시 중평리 원시유적”, 문화유산 1958-6

발굴연도	유적명	종류	시대	소재지	출전
	운성리 (~ 1966) 회령오동 (~ 1955)	고분 주거지	삼국시대 청동기~ 초기철기	황남 은율군 운성리 함북 회령군	이순진, “운성리 유적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1974. “회령오동 원시유적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제 7집, 1959.
1954	평양역전 2 室墳 대청리 1호분 남옥리 상동	고분 " " "	삼국시대 " " "	평양시 함북 은파군 평남 은산군 함북 황주군 순천리	“평양역전 2실분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1, 1958.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1호분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1, 1958. “평안남도 은산군 남옥리 고분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2, 1959. “황해북도 황주군 순천리 상동 유적조사정리보고”, 고고학자료 집 2, 1959.
1955	원암리	주거지	청동기	평양시 강남군 원암리	정백운, “강남 원암리 원시유적

발굴연도	유적명	종류	시대	소재지	출전
	공귀리	주거지	청동기	강계시 공귀리	발굴보고서", 문화유산 1958-1 "강계시 공귀리 원시유적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제 6 집, 1959.
	금탄리	주거지	신석기~ 청동기	평양시 승호구역	'금탄리 원시유적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제 10 집, 1964.
	낙랑리 85 호분	고분	삼국시대	평양시	"평양시 낙랑리 85 호분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1, 1958.
1955	대안리 1호분	고분	삼국시대	평남 용강군	"평안남도 용강군 대안리 제 1 호묘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2, 1959.
	한발골	토광묘	초기철기시대	황북 황주군 천주리	"황해북도 황주군 천주리 한발골 토광묘 조사보고", 고고학자료집 2, 1959.
	선봉리 1호	고분	삼국시대	황북 황주군	"황해북도 황주군 선봉리 1 호묘 발굴정리보고", 고고학자료집 2, 1959
	진천읍		초기철기시대	자강도 진천군	황기덕, "자강도 진천출토명도전에

발굴연도	유적명	종류	시대	소재지	출전
					대하여, 문화유산 1957-1
	가장리	벽화고분	삼국시대	평남 증산군 가장리	채회국, "평안남도 증산군 가장리 벽화고분 정리간략보고", 문화유산 1959-2
	화성리	고분	삼국시대	평남 대동군	"평안남도 대동군 화성리 쌍곽분 정리보고", 고고학자료집 1, 1958.
1956	하석동	토광묘	초기철기시대	황북 은파군 갈현리	"황해북도 은파군 갈현리 하석동 토광묘 유적조사보고", 고고학자료집 2, 1959.
	상매리	석상분	청동기시대	함북 청진시 농포리	"청진 농포리 원시유적발굴", 문화유산 1957-4
	공민왕현릉	고분	고려시대	개성시 개풍군	"고려 공민왕 현릉", 고고학자료집 3, 1963.
1957	솔외굴			황북 봉산군 송산리	황기덕, "황해북도 봉산군 송산리

발굴연도	유적명	종류	시대	소재지	출전
	태성리	고분, 주거지	청동기~ 삼국시대	평남 강서군 태성리	솔피골돌림무덤; 고고학자료집 3, 1963. “태성리 고분군 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5, 1958. 전주동, “태성리 저수지건설장에서 발견된 유적정리에 대한 개보” (1), (2) 문화유산 1958-2, 3 신의주역사박물관, “평안북도 박천군 덕성리 전곽무덤발굴 간략보고; 문화유산 1961-5 “룡산리 산성에서 발견된 고구려 석각물; 문화유산 1958-6 양익용, “안변 룡성리 고분발굴보고; 문화유산 1958-4 “지탐리 원시유적발굴보고;”
1957	덕성리	전축분	삼국시대	평남 박천군	
	용산리	산성	삼국시대	평북 태천군 용산리	
	용성리	신라고분	삼국시대	강원도 안변군 용성리	
	지탐리	주거지	신석기	황북 봉산군	

발굴연도	유적명	종류	시대	소재지	출전
					유적발굴보고 제 8 집, 1961.
	심촌리 (~ 1959)	주거지	청동기	황해북도 황주군	황기덕, 이원근, "황주군 심촌리 청동기시대 유적발굴보고," 고고민속 1966-3
	부조예군묘	고분	삼국시대	평양시 낙랑구역 정백동	이순진, "부조예군무덤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1974.
1958	심귀리	주거지	청동기~ 초기철기	자강도 시중군 심귀리	정찬영, "자강도 시중군 심귀리 원시유적발굴 중간보고," 문화유산 1961-2
	신흥동	주거지	청동기	황북 봉산군 봉산읍	서국태, "신흥동 팽이그릇 집자리", 고고민속 1964-3
	석교리	주거지	청동기	황남 용연군 석교리	황기덕, "황해남도 용연군 석교리 원시유적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3, 1963

발굴연도	유적명	종류	시대	소재지	출전
1958	신창군 하세동리		철기시대	함남 신창군	“신창군 하세동리에서 드러난 고 조선 유물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3-1
	태성리고분	고분	삼국시대	평남 강서군 태성리	“강서군 태성리 저수지내부 지대 의 고구려무덤,” 고고학자료집 3, 1963.
	석천산	지석묘	청동기	평남 용강군	전주농, “평안남도 룡강군 석천산 동록의 고인돌,” 고고학자료집 3, 1963.
	망암동	토광묘· 옹관묘	초기철기시대	평남 안악군 복사리	전주농, “복사리 망암동 토광무덤 과 독무덤,” 고고학자료집 3, 1963.
	약수리	벽화고분	삼국시대	평남 강서군 약수리	주영현, “약수리벽화무덤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3, 1963.
	어지돈지구			황북 봉산군, 은파군, 황주군 일대	황기덕, “1958년 출하기 어지돈지 구 판개공사구역 유적정리 간략

발굴연도	유적명	종 류	시 대	소 재 지	출 전
1958	당 터 산			평북 정주군 석산리	보고(1), (2), 문화유산 1959-1, 2 신의주역사박물관, "정주군 석산리 당터산 원시유적조사 간략보고," 문화유산 1959-2
	대성산일대 (~ 1961)		삼국시대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산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관 한 보고," 유적발굴보고 제 9집, 1964.
1959	범의구석 (~ 1961)	주 거 지	신석기~ 초기철기	함북 무산군 무산읍 호곡동	황기덕, "무산 범의 구석 유적발 굴보고," 고고민속논문집 6, 1975.
	미 송 리	동굴유적	신석기~ 청동기	평북 의주군 미송리	김용간, "미송리 동굴유적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3, 1963.
	복 사 리	주 거 지	청 동 기	황남 안악군 복사리	전주농, "황해남도 안악군 복사리 원시집자리," 고고학자료집 3, 1963.
	진 동	지 석 묘	청 동 기	황북 황주군 심촌리	황기덕, "황북 황주군 심촌리

발굴연도	유적명	종 류	시 대	소 재 지	출 전
					진동 고인돌, "고고학자료집 3, 1963.
	부덕리 수역동 만경대	토광묘 토광묘	초기철기 초기철기	황남 재령군 부덕리 평양	이순진, "재령군 부덕리 수역동의 토광무덤," 고고학자료집 3, 1963. 김중혁, "만경대 토광무덤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3, 1963.
1959	조아리, 서해리, 법동리, 송암리 (~ 1960)	고분	삼국시대	자강도 자성군	정찬영, "자성군 조아리, 서해리, 법동리, 송암리, 고구려고분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3, 1963.
	당모루	산포지역		평북 동림군 인두리 당모루	신의주역사박물관, "동림군 인두리 당모루 원시유적조사 간략보고," 문화유산 1959.
	공포리	고분	삼국시대	황북 연산군	석광준, "황해북도 연산군 공포리 무덤배 발굴간략보고," 문화유산 1962-1

발굴연도	유적명	종류	시대	소재지	출전
1959	미림철바위	주거지	청동기	평양시 사동구역	고고학연구실, "미림철바위 원시유적정리보고," 문화유산 1960-3
	복사리	벽화고분	삼국시대	황남 안악군	"황해남도 안악군 복사리 벽화무덤," 고고학자료집 3, 1963.
	무진리	벽화고분	삼국시대	평양시 중화군 무진리	"전 동명왕릉 부근 벽화무덤," 고고학자료집 3, 1963.
	불일사지 황남고려자기 도요지	사지 도요지	고려 고려	개성군 판문군 선적리 황남 평천군 봉암리 용진군 온동리	"불일사지," 고고학자료집 3, 1963. "황해남도 고려자기 가마터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3, 1963.
1960	서포항 (~ 1964)	주거지	구석기~ 청동기	함북 용기군 곽포리 서포항	김용남, "서포항조개무지발굴 중간보고," 문화유산 1961-3 김용남, 서국태, "서포항원시유적발굴보고," 고고민속논문집 4, 1972
	토성리	주거지	신석기~	자강도 중강군 토성리	이병선, "중강군 토성리 원시 및

발굴연도	유적명	종류	시대	소재지	출전
1960	토성리 (~ 1961)	주거지	신석기~ 초기철기		고대유적발굴 중간보고, 문화유산 1961-5.
	묵방리	지석묘	청동기	평남 개천군 묵방리	김기웅, "평안남도 개천군 묵방리 고인돌발굴 중간보고," 문화유산 1961-2.
	덕인리	지석묘	청동기	함북 김책군 덕인리	김기웅, "평남 개천군 묵방리 고 인돌발굴 중간보고," 고고학자료집 3, 1963.
	장성리			중강군 장성리	전수복, "함경북도 김책군 덕인리 (고인돌) 정리간략보고," 문화유산 1961-3.
	용당리	패		황남 해주시	김종혁, "중강군 장성리 유적조사 보고," 문화유산 1961-6.
			총		"해주시 룡당리 룡당포 조개무지 유적조사보고," 고고민속 1963-1.

발굴연도	유적명	종 류	시 대	소 재 지	출 전
1960	팔청리	벽화고분	삼국시대	평남 대동군 팔청리	“대동군 팔청리 벽화무덤,” 고고학자료집 3, 1963.
1961	와산동	주거지	청동기	평양시 서성구역	김용남, 서국태, “평양시 서성구역 와산동 팽이그릇 유적조사보고,” 문화유산 1961-6.
	입석리	주거지	청동기	평양시 승호구역	“평양시 승호구역 립석리 원시유 적발굴간략보고,” 문화유산 1962-4.
	용산리	토광묘	삼국시대	평양시 만경대구역	“룡산리 고분 정리보고,” 문화유산 1962-4.
1962	내문리	석상분	고려	철원군 내문리	양익룡, “철원군 내문리 고려 돌 상자무덤에 대하여,” 문화유산 1961-5.
	세죽리 (~ 1963)	주거지	신석기~ 철기시대	평남 영변군 영변읍	김정문, “세죽리 유적발굴중간보고,” (1), 고고민속 1964-2.

발굴연도	유적명	종류	시대	소재지	출전
1962	장덕리		구석기	함북 화대군 장덕리	김영우, "세죽리 유적발굴 중간보고"(2), 고고민속 1964-4.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털코끼리(맘모스)의 유골을 발견," 문화유산 1962-2.
	명사리	용관묘		함남 신천군	도골호, "신천 명사리에서 드러나고 구려 특널에 대하여," 문화유산 1962-3.
	장산동 1, 2호	고분	삼국시대	평양시 서성구역	주영현, "장산동 제1호 무덤 및 제2호 무덤에 관하여," 문화유산 1962-6.
	장잠장 왕경무덤	고분	삼국시대	함남 신천군 봉황리	전주농, "신천에서 대방군 장잠장 왕경의 무덤발견," 문화유산 1962-3.
	강로리	주거지	청동기	중화군 강로리	김영우, "중화군 강로리 유적조사보고," 고고민속 1964-1.

발굴연도	유적명	종류	시대	소재지	출전
1963	대성산성	연지	삼국시대	평양시 대성구역	“전제현, 대성산성 못(池) 발굴 중간보고;” 고고민속 1964-3.
1964	신암리 (~ 1965)	주거지	청동기	평북 용천군 신암리	이순진, “신암리 유적발굴중간보고;” 고고민속 1965-3. 김용간, 이순진, “1965년도 신암리 유적발굴보고;” 고고민속 1966-3.
	영흥읍	“	청동기	함남 영흥군	서국태, “영흥읍 유적에 관한 보고;” 고고민속 1965-2.
	석탄리 (~ 1973)	“	“	황북 송림시	이기련, “석탄리 유적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12집, 1980.
1965	중리	주거지	청동기	함남 북청군	안영준, “북청군 중리 유적;” 고고민속 1966-2.
	주암리	“	“	황북 인산군	백룡규, “인산군 주암리 원시유적 발굴간략보고;” 고고민속 1966-2.

발굴연도	유적명	종류	시대	소재지	출전
1966	점은모루 (~ 1970)		구석기	평양시 상원군	김신규, 김교경, "상원 점은모루 구석기시대 유적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1974.
1967	대평리 정백동 (~ 1971) 낙랑구역 (~ 1971)	주거지 고분 "	청동기~ 초기철기	평남 북창군 대평리 평양 평양	정찬영, "북창군 대평리 유적발굴 보고," 고고학자료집 4, 1974. "정백동 분묘군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5, 1978 "고고학연구소, 낙랑구역 일대의 고분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6, 1983.
1969	청청암 및 해상동굴유적 토성동 4호분	고분	구석기 삼국시대	평양시 상원군 황북 평산군 해상동굴 평양시 낙랑구역 토성 동	김교경, "청청암 및 해상동굴유적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1974. 김종혁, "토성동 제 4호 무덤발굴 보고," 고고학자료집 4, 1974.

발굴연도	유적명	종류	시대	소재지	출전
.	오덕리	지석묘	청동기	황북 연탄군	석광준, "오덕리 고인돌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1974.
1971	수산리	벽화고분	삼국시대	평남 강서군	김중혁, "수산리 고구려벽화 무덤 발굴중간보고", 고고학자료집 4, 1974.
1972	용연리	주거지	신석기	평북 용천군	강중광, "용연리 유적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1974.
1976	덕흥리	벽화고분	삼국시대	평남 대안시	김용남, "새로 알려진 덕흥리 고 구려벽화 무덤에 대하여", 역사과학 1979-3.
1979	남경 (~ 1981)	주거지	신석기 ~ 청동기	평양시 삼석구역	김용간, 석광준,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 1984.

IV. 發掘考證內容의 歪曲事例

北韓에서 歷史學을 研究하는 目的은, 그들의 歷史觀인 唯物史觀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의 歷史가 原始共同體社會에서 奴隸制社會, 封建制社會, 資本主義社會를 거쳐 최종적으로 共產主義社會로 정착하였다는 社會發展 5 段階法則을 論證하는 것인 만큼, 考古學 研究 目的 역시 新石器, 青銅器時代가 原始共同體社會이고 初期鐵器時代인 古朝鮮時代가 奴隸制社會이며 三國時代는 封建制社會에 속하는 것임을 밝혀주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歷史學研究의 또 다른 目的은 “人民의 투쟁과 창조的 역사를 밝혀 人民을 민족적 功績과 혁명적 自尊心으로 교양하자는데”⁵⁾ 있기 때문에 北韓에서의 考古學 分野 역시 한국민의 悠久한 창조적 역사와 文化의 우수성을 밝히는 것을 또다른 목적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에서 發掘調查된 考古學的 遺物이나 遺蹟은 이러한 目標에 의거하여 해석되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발표된 研究結果들은 상당 部分 歪曲·造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일일이 밝혀낼 수는 없고 여기서는 가장 두드러진 사례만을 정리해보기로 하겠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編年으로서 지금까지 南韓에는 新石器時代 分野에만 해도 放射性炭素年代測定法에 의한 科學的 編年資料가 56 例나 축적되어 보다 科學的인 토대 위에서 精確한 編年을

註) 김용남, “궁산문화에 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 8, 1983. p.3.

사도하고 있는데 반해⁶⁾北韓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遺蹟을 發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科學的 方法을 等용한 예가 없이 단지 遺物의 形式分類나 層位에 의한 相對編年만으로 歷史를 짜맞추고 있는 점이다. 예를들면, 1966년에 발굴된 상원군 검은모루 구석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소량의 打製石器와 動物化石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舊石器文化가 舊石器時代 前期初인 40~60萬年前까지 올라간다고 주장하나⁷⁾ 科學的인 方法에 의한 絶對年代가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學界에서는 公認을 받지 못하고 있다.

新石器時代의 경우 역시 形式學的 方法이나 層位區分에 의한 相對年代를 근거로 弓山文化 1期, 2期, 3期, 4期 등과 같은 分期를 설정하여 놓고 各分期에 일률적으로 500~1,000年씩의 絶對年代를 부여하고, 다시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遺蹟이 발견되면 年代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新石器文化의 起源에 있어서도 外部와의 關係를 전혀 무시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新石器時代부터 나타나는 地域間의 사소한 文化적 차이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동일시 함으로써 韓民族의 血統이 단일하며 文化와 풍습도 하나로 묶여진다고 주장하고 있다.⁸⁾

이러한 현상은 靑銅器時代 以後부터는 더욱 뚜렷해 지는데 그 대

註 6) 任孝宰, “放射性炭素年代에 의한 韓國新石器文化의 編年 연구” 金哲俊博士 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pp. 11~37.

註 7) 註 2) 前掲書, p. 37.

註 8) 註 5) 前掲書, p. 57.

표적인 예가 樂浪郡의 영역에 관한 것이다. 즉 初期鐵器時代의 代表的 墓制인 土壙木槨墳의 연대를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相對年代決定法에 따라 서기전 2세기를 중심으로한 樂浪郡 설치 시기도 잡아놓고, 기원전 108년에 평양을 중심으로한 서북 지방에 樂浪郡이 설치되었다면 그 시기의 遺蹟, 遺物이 당시 漢의 遺蹟, 遺物과 같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木槨墓가 성행하였던 사실은 그 지역에 樂浪郡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하여 樂浪郡의 설치 위치를 다른데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樂浪郡의 위치를 당시 고조선의 중심지였던 요동지방으로 잡고 있는데⁹⁾ 이는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지 樂浪郡이 韓國內에 없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歷史的事實을 歪曲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인 것이다.

또 한가지 들 수 있는 의도적인 造作의 예는 冬壽墓에 관한 것이다. 冬壽墓는 1949年 發掘調査된 安岳3號墳의 별칭으로서 安岳3號墳의 壁畫와 함께 기록된 銘文의 해석 결과 이 무덤의 주인이 冬壽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붙여진 墓의 명칭이다. 먼저 冬壽墓의 銘文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永和十三年十月戊子朔廿六日

□□使持節都督諸軍事

平東將軍護撫夷校尉樂浪

□昌黎玄菟帶方太守都

□□幽州遼東平郭

註) 이순진, “우리 나라 서북지방의 나무곽 무덤에 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 8, 1983, pp. 99-158.

□ 鄉敬上里冬壽字

□ 年六十九薨官

문제가 되는 冬壽라는 人物은 서기 336년 遼東에서 고구려로 귀순한 燕나라의 장군이며 그 무덤의 銘文에 의해 그가 357년에 죽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그러나 北韓에서는 이 무덤의 주인공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그들은 이 무덤을 발굴한 후 7~8년간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이 1957년으로서 이때는 冬壽墓라는 주장과 高句麗王陵이라는 주장이 맞섰다.¹¹⁾ 그후 1963년까지 논쟁아닌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高句麗 美川王陵이라는 결론으로 이끌어서 현재 정설이 된 모양이다. 그러나 이것은 冬壽라는 中國人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것처럼 웅장하고 호화로운 무덤을 축조했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墓에 기록된 銘文을 의심, 歪曲하고 무덤의 주인공을 銘文에 적힌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상식 밖의 일인 것이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歪曲事實을 몇가지 예로 들어 보았으나 北韓의 歷史學 및 考古學의 研究 目的 自體가 단순한 學問的인 면을 離脫하여, 韓民族의 歷史가 舊石器時代에 평양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계승·발전되어 오늘에 이르렀다는, 北韓政權의 正統성을 입증해주는 政治的인 선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한 歪曲事例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註 10) 金元龍, 韓國壁畫古墳, 一志社, 1980, p. 41.

註 11) 학술토론회, “안악3호분의 연대와 그 피장자에 대한 학술토론회”, 문화유산 1957-2.

V . 南北學術交流方案

1. 基本方針

考古學分野의 南北學術交流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方針은 段階的 接近이다. 즉 學術交流가 實現性을 가지려면 現段階에서 비교적 相互接近이 容易한 分野에서 시작하여 점차 接觸의 度와 횟수를 늘려가서 보다 包括的인 接觸을 試圖하여야 한다. 이것을 간단히 圖式化한다면 다음과 같이,

- ① 物的 接觸 → 人的 接觸
- ② 間接 接觸 → 直接 接觸
- ③ 國外 接觸 → 國內 接觸
- ④ 特殊分野 接觸 → 一般分野 接觸
- ⑤ 一時的 接觸 → 常時的 接觸

⑥ 考古學分野 單獨接觸 → 關聯分野 擴大 接觸으로 項目化할 수 있다. 물론 위의 項目들은 서로 重復되고 有機的으로 連結되어 있어서 政策決定時에는 個別獨立的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基本方針의 側面에서 項目別로 論하고자 한다.

가. 物的 接觸에서 人的 接觸으로

현재 한반도의 政治狀況을 두고 볼 때 人的交流보다는 먼저 物的인 交流가 先行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考古學分野에서 南北學術交流가 여타 分野에 비하여 實現可能性이 높다는 것은 이처럼 人的交流를 배제한 物的 交流가 可能하다는 점에 있다.

즉 舊石器時代에서부터 歷史時代에 이르기까지 各種의 考古學遺蹟遺物發掘報告書, 發掘關係 寫眞·圖面, 遺物寫眞·實測圖面, 發掘關係 記錄영화, 實際遺物 등 資料의 確保는 民族의 物質文化(material culture) 遺産을 主要 研究對象으로 삼는 고고학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들 자료의 교환은 다른 어떤 分野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直接的인 人的交流가 없이도 相互接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物的資料의 交換은 人的인 接觸을 자연스럽게 수반하게 되므로 尙차 相互 遺蹟방문, 共同發掘 또는 共同主題研究등의 直接的인 人的交流가 可能하게 되리라고 본다.

나. 間接 接觸에서 直接 接觸으로

이 項目은 위에 언급한 物的 接觸에서 人的接觸으로 接近하는 것과 관계가 깊으며 다음에 기술할 國外에서의 接觸으로부터 國內 接觸으로 장소를 옮겨 接近하는 戰略과도 關係가 깊다. 여기서는 주로 人的 接觸의 側面에서 본다. 近年에 와서 개최되는 各種 國際學術會議에서 考古學分野가 主題로 되거나 分科로 되어 論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北側에서 地位向上, 對外宣傳 등을 노려 이러한 회의에 參加할 可能性이 크므로, 우리 側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회의에 關聯分野 학자들이 參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必要한 경우 個別的인 資料交換 또는 接觸이 이루어지게 함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러한 회의가 中공, 소련 등 共產國家에서 개최되는 경우 北側의 參加가 필연적으로 예상되므로 外交的인 努力을 경주하여 韓國學者가 參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南北韓 단일팀을 구성하여 국제회의에 參加할 수 있도록 努力을 기울이며, 이를 계기로 南北韓 학자간의 학문적 의견교환과 조정이 可能해 질 것이므로 次後 相互 直接交流의 분위기로 유도한 후 發掘遺物의 交換展示, 南北考古學者大會, 遺物合同海外展示 등을 위한 接觸으로 이끌어감이 바람직하다.

다. 國外에서의 接觸에서 國內接觸으로

앞서 언급한대로 物的資料의 交換에서부터 人的交流에 이르기까지의 接觸은 第三國에서의 會議時에 關聯 학자들의 個別的인 자료교환 및 接觸으로부터 시작해서 國內에서의 直接 資料交換 및 人的接觸으로 나아감이 段階的이다. 한편 國內에서의 接觸에 있어서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우리側에서 周邊 관련국 학자들이 參加할 수 있는 主題로 國際會議를 개최함으로써 北側 學者들의 參加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前記한 外國 開催 會議參加 接觸보다 積極的인 方案이라 하겠다. 다음으로는 한단계 나아가 韓國考古學에 直接 關聯되는 主題를 택하여 南北學者들로만 구성된 共同討論會 등을 주관하는 段階이다.

라. 特殊分野 接觸에서 一般分野 接觸으로

현재 南北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狀況 때문에 韓國考古學研究는 民族의 起源問題, 三國의 形成問題, 古代冶金技術의 解明問題 등에 있어서 커다란 障礙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特定 主題들의 研究 進展을 위하여 物的 資料交換과 人的 交流가 先行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후에 보다 포괄적인, 또 日常的인 研究活動分

野를 주제로 「韓國考古學大會」와 같은 定期的인 모임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大會에서는 共同的 特定 主題를 年次的으로 다루어 가면서 同時에 당해 연도에 南北 各地에서 實施한 考古學發掘調査結果를 報告하는 形式을 取함으로써 交流의 幅을 一般化할 수가 있다.

마. 一時的 接觸에서 常時的 接觸으로

앞에서 보아온 것과 같이 交流의 초기 단계에서는 物的·人的인 面에서 모두 一時的 性格을 띠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한 단계에서 交流가 進展되어 가면 特定分野研究를 위한 常設共同研究機關 등을 설치함으로써 相互接觸을 常時的인 것으로 轉換할 수가 있을 것이다. 더 이상의 交流가 可能的인 狀況이 된다면 南北考古學研究 全般에 關聯된 研究所 등을 설치하여 民族共同遺産의 共同海外 展示를 企劃하거나 文化財保存對策을 共同研究하는 역할을 떠맡게 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바. 考古學分野 單獨接觸에서 關聯分野 擴大接觸으로

考古學은 諸學問의 協同研究를 극히 필요로 하는 학문이다. 예를 들어 舊石器時代研究에 있어서는 第四紀地質學, 古生物學, 岩石學, 花粉分析學 등 인접 關聯分野의 研究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歷史時代의 考古學研究에서는 金石學이나 文獻 사학자와의 協同研究가 기본요건이 된다. 또 考古學資料를 가지고 過去 社會의 文化를 復元하거나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全時代에 걸쳐서 人類學的인 理論의 活用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선 考古學分野 單獨의 接觸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라 이러한 인접

關聯分野에 人的·物的 交流를 擴大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南北 學術交流에 있어서 다른 分野보다도 考古學分野가 적합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人的 交流를 最小限으로 하면서도 物的 交流가 可能하므로 接近이 容易하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 인접 學術研究分野로의 과급 效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에 있다 하겠다.

이상 考古學分野 南北學術交流에 있어서의 基本方針으로서 段階的 接近戰略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基本方針이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즉, 考古學分野의 學術交流도 보다 포괄적인 對北政策의 一環으로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때 그때의 國內外政勢에 따라 伸縮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가령 北側에서 보다 높은 段階의, 그러나 現實성이 적은 分野의 交流를 제안하여 오는 경우 우리側은 보다 낮거나 높은 段階의 交流分野로서 보다 實現可能性이 높은 項目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포괄적인 내용의 交流를 제안함으로써 그 중에서 부분적인 分野의 交流를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交流方案

가. 一段階 : 교류기반 構築 및 資料交換 段階

① 交流의 提議

考古學 分野의 南北學術交流를 實現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作業은 사실상 交流의 提議 段階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종전에 北側에서 提議한 것을 보면 一方的으로 提議하

는 形式을 취하면서 그 交流內容도 逆段階的인 事項으로서 眞正한 交流보다는 政治的 선전으로 이용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提議者는 주로 金錫亨 (現 사회과학원 연구소 교수) 등 民間 레벨이 많았다.

이러한 점들을 勘案하여 앞으로 우리側에서 學術交流 提議를 할 때에는 一次的으로 정부대변인 보다는 文化財委員長 (現 金元龍 서울大 教授), 文藝振興院長 또는 韓國考古學研究會會長 (現 韓炳三 國立博物館學藝研究室長) 등의 레벨에서 제의함이 좋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제의내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考古學分野 全般에 걸쳐서 交流 意思가 있음을 闡明하면서 同時에 그 기초작업으로서 交流의 範圍, 節次, 方式 등에 關聯된 諸般問題를 討議하기 위한 實務會議를 提議함이 좋다. 實務會議의 場所는 판문점 정도가 가장 적합할 것이며 會議팀 構成은 關聯分野 學者와 行政官吏의 混性構成이 바람직하다.

② 資料交換

韓國考古學研究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약점중의 하나는 現在의 分斷狀態로 말미암아 北側資料를 充分히 活用하지 못하므로 統一的 研究를 행할 수 없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분야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發掘遺蹟·遺物에 관한 보고서와 研究論文의 교환이라 하겠다.

1. 交換方法

實務會議에서 物的 資料의 交換이 決定되면 그 節次上 우선 兩側에서 解放以後 刊行된 考古學關係 發掘報告書, 定期刊行物,

單行本 등의 目錄을 관계기관 및 학자의 子문을 받아 作成하여 交換한다. 다음 이에 따라 兩側에서 必要한 資料 및 소요부수를 決定, 相互交換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ㄴ. 交換對象資料

以下 北側의 考古學關係 자료를 例로 들어 交換對象資料 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發掘報告書

- 遺蹟發掘報告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발행) 제 1 집 (1955) ~ 13 集 (1983) 총 13 冊
- 考古學資料集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발행) 제 1 集 (1958) ~ 6 集 (1983) 총 6 冊

2. 考古學關係 定期刊行物

- 문화유산 (1957 ~ 1962)
- 고고민속 (1963 ~ 1967)
- 고고민속논문집 1 集 (1969) ~ 8 集 (1983) 총 8 冊
- 역사과학

3. 單行本

- 도유호 : 朝鮮원시고고학 (1960)
- 주영헌 : 高구려벽화고분의 變遷에 관한 研究 (1961)
- 주영헌 : 百濟문화 (1971)
- 김용남외 : 우리나라 원시집자리에 관한 研究 (1975)
-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 高구려문화 (1975)
- 사회과학출판사 : 高조선문제연구 (1973)

-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 고조선문제연구 논문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조선고고학개요 (1977)
- 이지린외 : 고구려사연구 (1976)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 (1984)
- 조선전사 1 ~ 5 (1979) 외에 여러 권이 있다.

參考로 南韓에서 出刊된 주요 단행본을 들면 다음과 같다.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

- 第一册 壺杆塚과 銀鈴塚 (1948)
- 第二册 雙床塚·馬塚·路西里 138 號墳調查報告 (1955)
- 第三册 義城塔里古墳 (1962)
- 第四册 鬱陵島 (1963)
- 第五册 皇吾里四·五號·皇南里破壞墳發掘調查報告 (1964)
- 第六册 韓國支石墓研究 (1967)
- 第七册 金剛寺 (1969)
- 第八册 矢島具塚 (1970)
- 第九册 朝島具塚 (1976)
- 第十册 南城里石棺墓 (1977)
- 第十一册 松菊里 I (1978·9)
- 第十二册~第十五册 中島進展報告 I ~ IV (1980 ~ 1983)

〈서울대학교 考古人類學叢刊〉

- 第一册 新昌里甕棺墓地 (1964)
- 第二册 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 (1965)
- 第三册 風納里包含層調查報告 (1967)

- 第四册 欣岩里住居址 (1973)
- 第五册 欣岩里住居址 (1974)
- 第六册 石村洞積石塚發掘調查報告 (1975)
- 第七册 欣岩里住居址 3 (1976)
- 第八册 欣岩里住居址 4 (1978)
- 第九册 鰲山里遺蹟 (1984)

〈釜山大學校 博物館遺蹟調查報告〉

- 第一輯 五倫臺古墳群發掘報告書 (1973)
- 第二輯 釜山華明洞古墳群 (1979)
- 第三輯 金谷洞栗里貝塚 (1980)
- 第四輯 金海水佳里貝塚 I (1981)
- 第五輯 東萊福泉洞古墳群 I (1982·1983)

〈東亞大學校 博物館古蹟調查報告〉

- 第一册 咸陽上柏里古墳群發掘調查報告 (1972)
- 第二册 東萊福泉洞第一號墳古墳發掘調查報告 (1971)
- 第三册 固城松川里솔섬石棺墓 (1977)
- 第四册 泗川禮樹里古墳群發掘調查報告書 (1978)
- 第五册 金海府院洞遺蹟 (1981)
- 第六册 陝川三嘉古墳群 (1982)
- 第七册 梁山尊池里土城 (1983)

이외에 文化財管理局, 全國 各大學博物館, 市立博物館 등지에서 거의 매년 遺蹟發掘調查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한 양에 이르

고 있다.

이상의 문헌자료 교환이 實現되면 다음 段階의 작업으로서 發掘關係 資料 등 다음에 열거한 基本 자료들이 교환대상이 될 可能性이 크다. 특히 北側의 發掘報告書는 내용이 疏略하여 發掘遺構·遺物의 圖面, 寫眞 등이 극히 조잡하므로 우리側에서 더욱 必要로 하는 내용들이 된다.

4. 發掘過程 및 發掘遺蹟·遺物關係 슬라이드, 기록영화 필립

5. 發掘遺蹟·遺構·遺物의 圖面

이러한 資料들이 要求되는 北側의 遺蹟들 중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重要遺蹟을 時代別로 들면 다음과 같다.

- 舊石器時代 : 상원 검은모루 유적, 승리산 유적
- 新石器時代 : 굴포리 서포항 유적, 南京 유적
- 靑銅器時代 : 석탄리 유적, 南京 유적
- 初期鐵器時代 : 낙랑관계 유적들

參考로 이에 대응되는 南韓의 重要遺蹟을 들면 다음과 같다.

- 舊石器時代 : 京畿道 蓮川郡 全谷里 유적
- 新石器時代 : 釜山 영도구 東三洞 유적, 서울 江東區 岩寺洞, 江原 襄陽 鰲山里 유적
- 靑銅器時代 : 경기도 여주군 欣岩里, 충청남도 부여군 松菊里
- 初期鐵器時代 以後 : 漢江유역 백제 초기 유적들, 경주지구 신라 유적들

이상과 같이 해방 후 현재까지의 기본 資料가 교환되면 다음 段階의 작업은 向後 發刊되는 간행물의 교환에 관한 方式 및 節

次 결정이 된다. 既存 資料의 교환이 一時的인 性格을 띠는 것이라면 이 段階부터의 작업은 定期的, 常時的 性格을 띠게 되므로 이러한 業務를 專擔할 機關에 관한 論議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기관이 결정된다면 앞으로의 刊行物은 每年 一定한 時期에 定期的으로 交換되도록 하여 學術交流를 日常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科學的 分析 便宜提供提議

考古學研究에 있어서는 特히 自然科學的 分析에 의하여 發掘된 遺物의 性格을 구명하거나 文化解釋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현재까지 발표된 北側의 發掘資料分析結果나 研究現況을 보면 이러한 側面에서 극히 부진한 狀態이다. 이는 考古學 關聯分野의 미발달과 科學기술의 미발달에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로 우리側에서 이러한 分析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提議를 함으로써 交流를 유도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이에 앞서 國內의 關聯 研究機關에 대한 可能與否 調査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重要的 項目으로는 放射性炭素測定年代 (C14 dating)의 測定 便宜提供이 될 것이다. 現在 北側研究機關에서 測定하여 報告된 放射性炭素年代는 단 1例도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현대 세계 考古學研究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北側의 考古學 水準이 극히 낮은 水準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즉, 考古學 유적·유물의 絕對年代를 알려주는 方法으로서 가장 信賴도가 높은 이 年代測定法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北側 考古學研究가 가진 가장 큰 취약점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向後 發掘되는 유적에서 채집되는 木炭 등 시료를 國內測定機關인 原子力研究所에서 測定하여

제공한다면 그들의 고고학 연구 태도상 과학적 研究의 필요성을 깨우쳐 주고 우리 技術 水準의 우수성을 과시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단, 이에 앞서 原子力研究所 등 有關機關의 測定能力을 向上시킬 수 있는 方案이 미리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④ 南北 考古學學術交流 專擔機關設置

문헌資料의 교환 등이 실현되면 앞으로 실시될 모든 交流에 있어서 절차, 방안 등을 협의할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南北政治交流에 필요한 南北調節委員會와 같은 기구의 傘下에 分科로서 설치할 수도 있으며 따로 별개의 기구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二段階：共同研究制度 形成 段階

① 遺物の 交換展示

第1段階에서 交流의 기반이 구축되고 실제 文獻資料 등 物的資料의 交換이 실시되면 다음 段階로서 發掘遺物 등 文化財의 交換展示가 交流對象이 된다. 實物의 交換展示는 단지 物的인 交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展示에 필요한 雙方人力의 移動을 수반하므로 交流의 幅이 보다 擴大되는 것이다. 交流展示에 關聯된 몇가지 節次上の 要目を 들면 다음과 같다.

가. 交換展示의 對象

對象 選定에 있어서 가장 손쉬운 接近方式은 最近 發掘된 유물들을 가지고 特別展 形式의 展示會를 갖는 것이다. 특히 이 방식은 70年代 이후 北側에서 考古學調査가 부진하였던 점에 반하여 우리 側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활발하였으므로 戰略적으로

強點을 가진다. 우리 側에서는 三國時代 新羅·百濟文化 遺蹟에 관한 활발한 研究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들에 관한 특별전이 대상이 될 것이다. 즉, 天馬塚 유물, 안압지 유물 등이 대상이 되며 新安 海底遺物展도 좋은 例이다. 한편 北側을 交流의 場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北側이 強點을 지닌 分野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 따라서 우리 側의 초청 形式으로 高句麗文物展 등을 우리 側에서 개최하여 줌이 예가 된다. 첫 段階로서 特別展 形式의 展示가 實現된다면 다음 段階로서는 兩側이 解放後 發掘 또는 蒐集하여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 中에서 考古學的으로 중요한 유물들을 時代別로 선정하여 綜合展示 形態를 취할 수 있다. 이 段階에서는 兩側이 원하는 대상 유물의 목록을 받아서 유물선정시 參考함으로써 交流의 심도를 깊게 할 수 있다.

ㄴ. 交換展示의 方法

유물이 전시되는 기간 동안에는 兩側의 關係 專門學者내지는 人力이 일체의 관리를 맡도록 하고 其他 전시실의 행정적 편의는 장소 提供側에서 도모함으로써 人的인 交流를 促進함이 바람직하다.

교환전시의 장소는 첫 段階에서는 兩側의 행정적 중심지로 하여 개최함이 전시회의 조직·유물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좋다. 그러나 일단 교환전시의 횟수가 일정 水準에 이르면 지방 순회전시의 방법을 택함이 더욱 좋다. 이것은 일반에 南北交流의 분위기를 과급시키는 效果를 갖고 있어서 좋을 뿐 아니라 전시에 수반되는 人力의 체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우리 側의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을

올바로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② 交換展示 特別 發表會 개최

앞에 언급한 遺物의 交換展示가 實現될 때 그러한 交流의 場을 보다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교환전시 特別 發表會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교환전시의 주제에 따라 發表會의 내용은 정하여 질 것이며 주제 발표자나 토의자는 展示會 企劃時의 關聯 人力에 包含시키거나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발표회는 양측의 전문가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向後 共同主題를 중심으로 한 세미나 개최의 기초를 이룰 수 있다.

③ 共同 세미나 開催

양측의 考古學界가 가지고 있는 주요 關心分野를 상호 협의 討論할 수 있는 共同 세미나는 몇가지 방식과 주제 별로 개최될 수 있다.

가. 開催方式

1. 招請形式

우리 側에서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주관하되 關聯分野 北側 學者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세미나를 企劃한다. 따라서 양측 參加者의 수는 우리 側이 많을 것이다. 이 방식은 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사전에 회의를 따로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利點이 있다.

2. 共同開催 形式

사전 회의를 갖고 세미나의 主題, 參加範圍, 場所, 期間 등 諸般 問題를 共同 協議한 후 共同의 세미나를 開催하는 방

식이다. 초청 형식의 세미나에 비하여 接觸의 횟수가 많고 共同關心 主題를 내용으로 하므로 交流의 심도가 깊어질 수 있다. 가장 초보적인 方法으로 判문점에서 양측 考古學者들이 상대방이 원하는 유물을 가지고 와서 짧은 시간내의 의견교환과 討論을 할 수 있다.

3. 인접국 學者 招聘 共同開催 形式

이 방식은 양측 共同開催의 횟수가 일정 水準에 이룸으로써 세미나 개최의 틀이 제대로 잡혔을 때 可能한 것이다. 여기에는 주제에 따라 일본·중공 등지의 학자들이 招聘될 수 있다.

나. 세미나의 主題

세미나의 主題는 양측 考古學界의 研究現況에 비추어 研究가 진척되어 있는 分野부터 택함이 좋다. 그런 연후에 보다 研究가 뒤떨어진 分野를 택하여 問題提起 등의 成果를 기대함이 좋을 것이다. 한편 지나치게 爭點化할 수 있는 主題는 初期段階에서 회피함이 바람직하다.

時代別로 開催可能하다고 판단되는 主題들과 이에 關聯된 問題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舊石器時代 〉

1. 韓半島 舊石器文化의 性格

아직 한반도의 舊石器時代文化 研究는 요람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만큼 向後 研究의 진전을 위하여 기본적인 問題의 토의가 절실하다. 그러한 문제들 중에서, 南北韓에서 이제까지 發掘된 舊石器 遺蹟·遺物들을 토대로 한반도 舊石器文化의

성격을 규명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한 주제라 하겠다. 이러한 주제를 공개적으로 토의함으로써 한반도 最古先住民들의 文化樣相을 총체적으로 밝히고, 周邊 地域과의 관계 규명 등 연구의 幅을 차차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2. 舊石器時代研究에 있어서 協同研究

舊石器時代의 연구에 있어서는 단순히 석기의 연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유적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動植物相 연구, 第四紀地質 研究 등 여러 인접分野의 협동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를 택할 경우 세미나의 參加 범위를 考古學分野 單獨에서 擴大하여 다른 分野가 包含될 수 있으므로 人的交流의 幅을 넓힐 수 있다.

(新石器時代)

1. 韓國新石器文化的 編年

이 주제는 最近에 이르러 양측에서 어느 정도 研究에 진척을 본 分野에 해당한다. 그런데 北側에서의 研究狀況을 보면 유적의 상대편년이나 유물의 상대편년에 있어서 뚜렷한 근거나 과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의문점이 많다. 그리고 절대연대의 제시에 있어서도 放射性炭素年代 등 과학적 방법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거가 박약하다. 따라서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側의 研究狀況과 대비하여 취약점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共同 세미나의 주제로 택할 시에 北側 研究에 많은 變化를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韓國新石器時代 住居生活의 諸樣相

先史時代의 生活樣式을 復元하는 것은 考古學研究의 重要한 目的中의 하나로 되어 있다. 과거 日帝下의 考古學發掘이 先史時代를 도외시 하였던 점에 반하여, 해방 후 1960年代에는 北側에서, 그리고 1970年代 이후에는 우리 側에서 先史文化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였다. 그 결과 新石器時代의 住居址遺蹟에 대한 調査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各地域에서 다양한 주거양식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주거지의 築造方式이나 生態界의 適應에 따른 差異, 新石器時代 全般에 걸친 變遷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不分明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共同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앞으로의 주거지 연구 조사에 진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第三段階의 學術交流가 可能할 시에 주거유적 共同調査의 공동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韓半島 新石器時代 農耕起源

韓國의 新石器時代 生業經濟는 주로 수렵·채집·어로에 기초를 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신석기시대 初頭부터가 아니라 一定期間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原始的인 農耕이 實施되었던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그 時期에 있어서는 南北 考古學研究者間에 多少의 異見이 있으며, 그 概念上에 있어서도 뚜렷한 규정 없이 論議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러한 농경의 증거로 제시되는 新石器들의 分類나 機能 推定에 있어서도 상당한 混亂이 있다. 이러한 諸般 問題點들은 한반도 先史文化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重要한 障礙要素로 되고 있으므로, 共同 세미나에서 이 주제를 論議함은 양

측 考古學研究發展에 큰 의의를 가질 것이며, 동시에 韓民族文化 共同研究의 側面에서도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한편 新石器時代의 農耕問題는 다음 時代의 稻作起源問題와 關聯하여 인접 日本 및 中國의 考古學界에 있어서도 主要研究課題이다. 따라서 南北 共同의 學術研究의 場이 東北아시아 共同學術研究로 擴大될 수 있으므로 그 交流의 의의가 더욱 크다 하겠다. 그리고 農耕의 起源이나 實施 樣相에 관한 研究는 考古學的인 遺物뿐만 아니고 당시의 植生 등에 관한 資料들도 그 對象으로 하므로 자연히 당시의 環境變遷에 관한 研究 등을 수반하고 關聯 分野 研究者들의 參與가 要望된다. 그 결과 인접 학문분야로 南北交流가 擴大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 青銅器時代 〉

1. 韓半島 青銅器文化的 編年

青銅器文化的 存在 自體가 否定되었던 日帝下와는 달리, 해방 후 南北韓에서 青銅器時代研究가 활발히 進行되었다. 그 결과 많은 青銅器遺蹟이 發掘되고 編年 作業이 進行되었지만, 아직 未解決의 問題가 많다. 특히 그 중에서 青銅器時代의 上限을 중심으로 南北側의 見解도 현저하게 다르다. 相對編年과 絕對編年 問題를 中心으로 한 共同 세미나는 韓·日·中으로 擴大될 수 있을 것이다.

2. 青銅器時代 住居生活

現在까지 發掘 報告된 青銅器時代 住居址들은 앞 시대인 新石器時代 住居址들과 分명한 差異點들을 보인다. 最近 北側에서 石灘里 유적, 南京 유적 등 대규모 주거지 유적이 發掘 報告되었으

나 報告事項이 소략하여 不滿足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에 관하여 共同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未盡한 情報를 수집하고 靑銅器時代 住居生活의 特性과 社會相 등에 관하여 問題提起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靑銅器時代의 墳墓

靑銅器時代에는 支石墓, 石棺墓, 甕棺墓, 土壙墓 등 다양한 墓制들이 時期를 달리하여 나타난다. 이들 墳墓의 編年, 地域性, 築造社會相 推定, 相互關係에 관한 共同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研究에 자극을 준다. 특히 北側에서는 이 時代에 이르러 階級의 分化 등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그러한 學說은 그들의 唯物史觀이 圖式的으로 적용된 結果로 생각할 수 있다. 墳墓에서 그러한 社會相을 抽出하는 問題 등을 다룸으로써 北側研究의 취약성을 노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靑銅器의 구조 기술, 성분, 分析 등 과학적 조사 研究協力

5. 靑銅器時代 토기 문제

- ① 北韓 토기 형식들의 발생, 相互關係
- ② 北韓 토기들의 南韓 전파 문제, 그 年代
- ③ 南韓 토기들의 編年, 特色 問題

6. 초기 철기의 금속학적 연구, 자료 교환

- ① 철편의 교환
- ② 분석 결과의 교환

〈原三國時代〉

1. 三韓社會의 實相

三國形成期로서의 三韓社會期の 社會的 實相에 關係서는 南北側 뿐만 아니라 韓國 自體內에서도 異見이 많다. 이 主제는 最近 爭點化할 우려가 있으나, 일단 몇 차례의 共同 세미나가 개최된 후에 主제로 택할 수 있을 것이다.

〈三國時代 및 其他〉

1. 三國의 形成時期

이 主제는 最近에 와서 考古學界 및 史學界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考古學界 및 文獻사학계의 共同 擴大 세미나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고구려의 形成過程에 관한 北側의 研究結果를 把握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北側에서는 古代國家가 靑銅器 時代に 古朝鮮으로서 成立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問題도 關聯이 되는 共同 세미나이다.

2. 고구려 古墳의 編年 問題

南·北韓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그것의 통일이 必要

3. 발해 유적의 共同研究

이것은 中共側에서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나 일단 學論 必要

4. 古朝鮮과 樂浪問題

이 主題는 가장 큰 爭點으로서 北側에서 初頭に 들고 나올 可能性이 크다. 古朝鮮의 成立時期, 位置, 實體 등의 問題는 樂浪의 位置, 實體 등의 문제와 더불어 韓國 古代史 및 考古學界가

해결하여야 할 가장 큰 難問題中의 하나이므로 共同 세미나가 개최될 시 여러 分野의 學者들이 參加할 수 있고 또한 日本 및 中共의 關係學者들도 參加를 希望할 것이다.

5. 廣開土大王碑問題

最近 中共側에서 廣開土王碑文을 再調査함으로써 관심을 모으고 있는 廣開土王碑文에 관한 연구는 南北外에 日本, 中共側 學者들로 구성된 共同 세미나의 결과로 實際 碑文을 現場調査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遺蹟 共同踏査

考古學遺蹟의 共同發掘등에는 現實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그에 앞서 사전 기반 구축의 측면에서 南北韓 重要 遺蹟 踏査와 發掘現場 踏査를 實施할 수 있다.

가. 重要遺蹟 共同 訪問

兩側 關聯學者들의 案内形式으로 그간 發掘된 重要遺蹟들에 대한 訪問을 實施한다. 이 유적방문은 앞에 언급한 遺物交換 展示의 일환으로 행할 수도 있으며 共同 세미나의 일환으로 企劃할 수 있다. 北側의 重要遺蹟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舊石器時代 : 상원 검은모루, 평양 청청암동굴, 평산 해상동굴, 덕천 승리산, 평양 역포구역·대현동·안달리
- 新石器時代 : 온천 궁산, 봉산 지탑리, 영변 세죽리, 평양 금탄리, 용천 신암리, 웅기 굴포리 서포항, 평양 남경, 무산 범의구석
- 靑銅器時代 : 영변 세죽리, 회령 오동, 평양 남경, 석탄

리, 무산 범의구석, 중강토성리, 강제 공귀리, 나진 초도

- 三國時代 : 평양 일대 고구려 벽화고분, 평안남도 및 황해도 일대 고구려 벽화고분

다음 우리 側의 重要遺蹟들을 간단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舊石器時代 : 연천 全谷里, 공주 石壯里, 제원 점말동굴, 단양 上詩里, 청원 두루봉동굴

- 新石器時代 : 서울 岩寺洞, 釜山 東三洞, 강원 양양 오산리, 김해 水佳里

- 青銅器時代 : 경기 여주 欣岩里, 충남 부여 송국리, 전남 고창 지석묘군, 경기 파주 옥석리, 강화 삼거리, 파주 수석리, 광주시 송암동, 서울 역삼동, 가락동

- 初期鐵器時代 以後 : 春川 中島, 수원 西屯洞, 경기 가평 馬場里, 횡성 屯內, 경주 朝陽洞, 金海 府院洞 以外 慶尙南北道 각지의 新羅·가야 古墳群

이러한 訪問踏查가 實現되는 경우 前記한 廣開土王碑文을 共同으로 現場踏查하는 案이 可能해질 것이다. 또한 만주 集安縣에는 수많은 고구려 고분이 소재하여 있으므로 韓·中共 共同踏查팀을 조직 現場踏查하는 案을 제시할 수 있다.

나. 遺蹟發掘現場 踏查

앞에 서술한 重要遺蹟의 踏查는 이미 發掘되어 報告된 遺蹟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하여 現在 進行되고 있는 遺蹟發掘現場을 踏查함은 상호 遺蹟發掘實態 把握이나 親善도모에 큰 效果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이 發掘現場踏查는 앞으로 양측에서 發掘遺

蹟數가 증가될 展望이므로 相互 接觸의 기회를 늘릴 수 있고 한편으로 상호 人的 交流를 거의 定期化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측에서 發掘이 있을 시에 미리 通告하여 一定한 時期에 見學할 수 있도록 주선함이 좋다. 이와 兼하여 該當 遺蹟의 성격에 따라 간단한 주제발표회를 兼할 수 있을 것이다.

다. 三段階·共同研究體制

이 段階의 交流는 사실상 政治·經濟·社會 各方面에서 상당한 程度의 交流가 進展된 狀態에서 可能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交流가 實現되었을 때 他分野에 앞서서 實施되어 交流를 主導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 非政治的·非理念的 性格을 지닌 考古學分野 交流의 利點이 있다 할 것이다.

이 段階에서는 전단계에서 구축한 交流基盤을 토대로 常設的인 研究機關을 設置한다든지 하여 交流를 定期化·常時化하는 段階이다.

① 考古學分野 研究成果 定例報告會

每年 1回 또는 2回 정도로 考古學 및 關聯分野 학자들로 구성된 定例報告會를 갖는다. 여기서는 最近의 研究成果가 구두로 報告되든지 當該 年度의 發掘結果에 대한 報告 등이 실시될 것이다.

② 考古學 全國大會

每年 1回 정도 南北 考古學者 全體가 參席하는 大會를 개최한다. 여기서는 앞의 定例報告會보다 한 걸음 나아가 규모도 擴大되고 會議期間도 연장하여 實施된다. 大會의 내용도 2段階에서 實施하던 共同 主題 세미나를 擴大한 共同 主題 討論會와

個別發表部門으로 나누어지고 分野 또한 考古學 關聯 인접분야도 參加할 수 있도록 한다. 常設研究所나 共同出版所 등의 설치에 앞서서 施行되어야 할 作業으로 판단된다.

③ 文化財 共同海外展示

南北側에서 소장하고 있는 각종 文化財 중에서 民族文化의 정수를 나타내는 代表的 文化財들을 共同 選定하여 世界 各國에 共同展示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共同展示는 올림픽代表팀을 共同構成한다든지 각종 국제경기에 共同代表팀을 구성하는 것이 可能할 때에 맞추어 實施될 수 있다. 民族의 同質性을 과시할 수 있는 方案이라 생각되며 民主國·共產國 共히 展示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추진한다.

④ 考古學 關係 國際會議 共同代表團 派遣

最近 증가되고 있는 考古學 分野 各種 國際會議에 南北에서 選定한 共同代表團을 派遣하는 방안이다. 이는 前段階의 共同 세미나 등을 통하여 해당 分野의 異見差가 좁혀지고 南北 各分野 該當研究現況이 雙方 充分히 把握된 후에 可能的 方案이라 하겠다.

⑤ 考古學 關係學者 交換教授制度

長期計劃下에 考古學 各時代 또는 分野別로 1~2年 단위로 양측 考古學 研究者들을 交換하여 大學 또는 考古學 關聯 機關에서 연구를 할 수 있게 하고 필요시에는 강의를 맡을 수 있도록 한다.

⑥ 遺蹟 共同發掘調查

종래 北側에서 유적의 共同發掘을 南北學術交流의 第 1 段階로서 제의해 온 바 있으나, 이는 그들의 學術交流提議가 完全히 逆段階的인 것으로서 宣傳效果만을 노린 것임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즉, 考古學 遺蹟의 發掘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체계기간을 요하고, 또한 發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發掘된 資料를 정리, 보고서를 출간하는 데 까지 오랜 기간을 요하며 많은 人力을 요하는 것이므로 交流의 기반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거의 不可能한 것이다. 일단 交流基盤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遺蹟發掘이라는 작업은 強力한 指揮體系를 가진 軍組織의 작전과 같이 운용되는 것이므로 發掘團의 구성 등에 있어서 爭點의 소지가 많은 것이다. 아 물론 考古學分野의 南北 學術交流가 日常化되는 狀態에서는 水沒地區의 많은 遺蹟들을 區域別로 나누어 共同發掘하는 方式을 취할 수도 있으며, 交流가 진전되면 南側의 發掘은 南側이 주도 하면서 北側의 學者가 參加하는 方式으로 한 유적을 共同發掘할 수가 있다.

遺蹟共同發掘이 實現되는 段階에 이르렀을 때에 交流가 可能한 하나의 提議로서 非武裝地帶內의 考古學遺蹟調查를 들 수 있다. 이 시대 중에서 특히 임진강 하구 일대는 舊石器時代 遺蹟이 分布할 可能性이 높음으로, 研究調查가 實施된다면 韓半島 先史文化研究에 큰 進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서 共同調查의 項目으로 적합한 事例라 생각된다. 한편 이 地帶調查는 여타 다른 分野, 예를 들어 生態學的 調查와 共同으로 實施될 수 있으므로 南北交流의 幅을 넓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非武裝地帶의 考古學調査는 第二段階의 共同 세미나 등이 實施되는 段階에서도 實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⑦ 隣接地域 遺蹟 共同調査團 構成

한반도에 인접한 地域인 만주, 소련 연해주, 시베리아 일대에는 韓半島 新石器文化나 靑銅器文化와 關聯이 있는 遺蹟들이 分布하고 있다. 政治的 統合이 一定 水準에 이르른 三段階에서는 이들 地域이 속한 國家의 양해하에 共同調査를 實施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때에는 當該國 학자들도 共同調査에 參與하여야 할 것이다.

⑧ 考古學 共同研究所 設置

중래 北側에서 南北 考古學分野交流를 提議하면서 곧바로 고고학 분야 共同研究所 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나 그것은 순전히 宣傳效果를 노린 것임이 분명하다. 共同研究所는 常住人力이 거할 장소 문제가 現段階에서는 해결 不可能하며 또한 研究所를 운영할 財力 問題도 障礙要素가 될 것이다. 南北交流가 三段階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러한 研究所 설치가 可能하다. 研究所는 또한 前述한 交換教授制度와 병행하여 이들이 연구하는 장소로 설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⑨ 考古學分野 印刷物 共同出版所 設置

交換教授制度, 共同發掘, 共同研究所 등이 설치되어 學術交流가 實現되면, 그 결과 研究物, 報告書 등을 共同出刊할 根據가 생기게 되므로 이들 印刷物을 共同出刊할 시설의 설치를 제의

할 수 있다. 北側은 體制上 모든 출판물을 한군데에서 출판하는 것이 可能하나 우리 側은 그것이 不可能하므로, 일단 양측에 각각 共同出版所를 두어 考古學資料 交換 대신에 直接 原稿를 받아 印刷, 國內에 配布하는 形式의 출판소 운영을 취함이 좋다고 생각된다.

VI. 綜 合

이상에서 論議된 各 項의 內容을 종합하면 대강 아래와 같다.

1. 遺蹟發掘獎勵政策의 意圖를 보면, 唯物史觀에 입각한 歷史解釋을 이끌어 내는 데 考古學이 有效할 것이라는 평가 아래 주로 평양 부근의 舊石器時代 遺蹟에서부터 역사시대의 고구려 遺蹟에 이르기까지 諸遺蹟을 發掘하여 이 地域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文化가 발전되어 온듯이 강조함으로써 北韓政治體의 正統성 造作을 기도하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우리의 民族문화를 共產主義式 계급문화로 改造하여 결국 그들의 정치선전 활동의 매개물로 惡用하려는데서 그들의 고고학 관계 研究活動을 장려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본다.

2. 遺蹟·遺物의 發掘實態를 보면, 시대별로 나누어 舊石器時代 遺蹟 7 개소, 新石器時代 遺蹟 약 10 個所, 靑銅器時代 遺蹟 약 30 個所, 初期 鐵器時代 遺蹟 약 15 個所, 三國時代 以後의 遺蹟 약 40 個所 등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三國時代 古墳 遺蹟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특히 평양 중심의 고구려 遺蹟을 강조함으로써 그들 정치체 의 正統성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이 自明하다. 또한 해방 후 1960 年代 초반까지는 매우 활발한 發掘調査가 이루어지지만 그 以後에는 극히 미미하게 되어 버린다. 이것은 1970 年代 초반까지 「主體思想」을 강조하여 온 그들의 理念政策에 부합되는 현상으로서 考古學調査도 그러한 目的에 利用되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 考古學資料가 그들의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

사해석에 그다지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함에 따라 政策的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發掘考證內容의 歪曲事例로서는, 우선 고고학遺蹟·遺物 年代를 比定함에 있어서 科學的인 年代測定法을 도입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주장에 맞게끔 짜맞추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樂浪群의 治所가 현재의 평양 부근에 있었다는 것을 否定하기 위하여 이 일대에서 發掘된 土壙木槨墓의 年代를 樂浪群時期로 잡고 이 시기에 낙랑군은 지금의 요동지방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安岳3號墳의 被葬者가 귀화한 中國人 冬壽가 아니라 고구려 美川王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무덤에 나타난 銘文의 해석마저도 歪曲하고 있는 것을 대표적 事例로 들 수 있다.

4. 南北學術交流方案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項別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 基本方針

- 物的→人的 接觸
- 間接→直接 接觸
- 國外→國內 接觸
- 特殊分野→一般分野 接觸
- 一時的→常時的 接觸
- 考古學分野單獨→關聯分野擴大 接觸

나. 交流方案

A. 第一段階：交流基盤 구축 및 資料交換 段階

- ① 交流의 提議：문화재위원장, 문예진흥원장, 한국고고학연구

회장이 포괄적 제의와 동시에 실무회의 제의

② 資料交換

ㄱ. 方法：目錄作成後 양측 要求에 따라

ㄴ. 對象資料

1. 發掘報告書

2. 考古學關係 定期刊行物

3. 單行本

4. 發掘過程 및 發掘遺蹟·遺物の 슬라이드, 기록영화

필림

5. 發掘遺蹟·遺構·遺物の 圖面

③ 科學的 分析 便宜提供提議：放射性炭素年代測定 等

④ 南北考古學 學術大會 專擔機關設置

B. 第二段階：共同研究制度 形成段階

① 遺物の 交換展示

② 交換展示 特別發表會 開催

③ 共同 세미나 開催

④ 遺蹟 共同調査

1. 重要遺蹟 共同訪問

2. 遺蹟發掘現場 踏査

C. 第三段階：共同研究體制 確立段階

① 考古學分野 研究成果 定例報告會

② 考古學 全國大會

③ 文化財 共同海外展示

- ④ 考古學關係 國際會議 共同代表團 斗健
- ⑤ 考古學關係學者 交換教授制度
- ⑥ 遺蹟共同發掘調查
- ⑦ 隣接地域 遺蹟 共同調查團 構成
- ⑧ 考古學 共同研究所 設置
- ⑨ 考古學分野 印刷物 共同出版所 設置

< 표-11 > 북한의 민속악기 개조 실태

악기명	주요개조내용	종류	악보쓰기	소리너비(음역)	음색특성	표현적특성(주범)	용도	사용목적					
									저해금	중해금	대해금	소해금	
해금속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음없앰 ○ 4줄 ○ 짚음판설치 ○ 명주실→원줄 	“씨b”조 악기	실음보다 큰 9도 높게	아래셋째돌이(미) — 둘째돌이(도)	연하고, 부드러운, 은근하며, 무게있음.	환긋기, 뜯기 손가락쓰기	독주, 관현악(저음성부)						
									실음보다 큰 2도 높게	아래둘째돌이(도) — 셋째돌이(라)	부드럽고, 우아하며 풍만된 울림	몽현끝소리, 미분음 적음림기교, 활주법	배합관현악(중음) 중주, 반주
									아래셋째돌이(도) — 넷째돌이(라) 실음(씨b) — 셋째돌이(라) 실음(솔)	유순, 음역이 넓고 다양, 섬세함	다양	관현악(저음이나 중음), 선률, 대위 선률, 독주	
우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공후를 가야금처럼 눌러 연주할 수 있도록 개조 ○ 29개줄→33개줄 ○ 변음장치와 7개의 변음받누리개 설치 	“도”조 악기	한돌이올림 (친제올림은 한돌이 큰 2도(9도) 낮게 올림)	“도 ² ” — “솔 #3” (4돌이반)	가야금(줄오른쪽) 리프(줄가운데) 기타(줄왼쪽)와 비 슷한 소리	몽현, 끝림소리, 널림화음, 흐름화음 떨림소리, 통김질 변음, 조바꿈	독주, 반주, 관현악						
									21줄(철줄) 부두줄 없애고 줄조 임맞춤으로 줄을 조임 다양한 현매적 주법 도입	첫째돌이(솔) — 셋째돌이(화)	은은하고 부드러운 우아하고 치량	단음떨기, 복음, 화음떨기, 흐름화음 몽현(몽현, 엇기몽현, 음높이를 잡아주는 몽현)	독주, 합주, 중주 가야금명창 관현악
가야금		“씨b”조악기	실제올림은 악보음 보다 큰 2도 낮다	아래첫돌이(도) — 셋째돌이(솔)	맑고, 선명하면서 우 아하고, 치량	부성적연주, 화음떨기, 뜯기	중주, 관현악, 가 극반주						
양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개줄 배열 ○ 소리멈춤 장치 ○ 4개의 페를 설치 							혁명가극(한자위 단 원의 운명) 제4장1경 양금독주곡(남산의 푸른소나무) 양금독주곡(아버지의 축복)고음저대독주곡 (금강선녀)					

악기명	주요개조내용	종류	악보쓰기	소리너비(음역)	음색특성	표현적특성(주법)	용도	사용곡례
단소속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바꿈가능 음색을 부드럽게 하고 음역을 확대함 	"씨b" 조악기	"솔" 음표사용 한줄이 낮춤	아래첫줄이(씨b) — 셋째줄이(솔)	부드러우며 처량	통음, 미분음, 끝소리, 죽받침, 잇기, 끊기, 굴림소리, 혀쓰기	관현악, 기악중주에 서 선를 또는 화성적서술의 한성부 담당	목관3중주(무궁화3형제) 단소독주(만경대는 혁명의 요람) 혁명가극(꽃파는 혁명가극(꽃파는 처녀)제5장2경
			실음울림은 악보보다 작은 7도 높다	첫줄이(씨b) — 넷째줄이(도)	맑고 빛깔이 있으며 예리한 감을 줌	단소와 같다	독주, 관현악(가장 높은소리담당)화성서술에는 안쓰임	혁명가극(피바다)제2장1경 혁명가극(한자위단의 운명)제4장1경, 무용극(새봄)
저대속악기(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반음체계 악기로 개조 	"씨b" 조악기	높은음자리표·실음은 악보보다 작은 2도 낮다	첫줄이(레) — 셋째줄이(라) (악보) 화2 술3(관현악)	맑고 부드러우며 은근, 우아, 처량	통음, 끝소리, 죽받침, 잇기, 끊기	독주, 중주, 관현악 주선률담당, 화성적서술	(꽃파는 처녀)제4장1경 (한자위단의 운명)제5장, 목관4중주(새봄과종다리)
			실음울림은 악보보다 작은 7도 높다	저대의 것을 그대로 한줄이 높임	저대보다 더 맑고 투명	빠른속도의 분음계 반음계진행, 건너뛰기, 통음, 굴림소리, 혀쓰기	독주, 중주, 관현악 선율서술과 화성적서술	(한자위단의 운명)제2장2경 (꽃파는 처녀)제1장, 독주곡(금강선녀)
			높은음자리표, 실음울림은 악보보다 작은 3도 높다	저대와 고음저대의 중간(저대의 것을 온근 4도 높임)	은근, 맑고, 우아 긴장되고 예리함	저대와 동일	화성적서술(특히 가운데 성부 담당)	(꽃파는 처녀)제5장1경 (한자위단의 운명)제3장1경
대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드형태개조 음정조절용 취구를 새로 만들 반음연주를 위해 누르개설치 	"씨b" 조악기	높은음자리표사용 실음울림은 악보보다 큰 2도 낮다	아래첫줄이(레) — 셋째줄이(도)	맑고, 선명, 부드럽고, 호소적이며 예리한	통음, 민요적인 굴림기교, 끝소리	독주, 중주, 관현악(주선률, 대위선률)협주곡에 효과	(김일성 원수님은 우리의 최고 사령관)(양산도)
			높은음자리표사용 실음울림은 악보보다 작은 3도 낮다	첫째줄이(화) — 셋째줄이(도)	장새남에 비해 강한 음량을 갖고 더 예리한 감을 줌	통음, 끊기, 흘려쓰기, 굴림소리(반음계연주 곤란)	오늘날 농악에 흔히 쓰임, 대편성 관현악에서 특수한 효과를 위해 간혹사용	관현악(청산별에 풍년이 왔네)
새남속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음체계 	"미b" 조악기	높은음자리표사용 실음울림은 악보보다 작은 3도 낮다	첫째줄이(화) — 셋째줄이(도)				

악기명	주요개조내용	종류	악보쓰기	소리너비(음역)	음색특성	표현적특성(주법)	용도	사용곡예
장새담 (태평소)	○ 새담을 개량 (반음의 음공을 뚫고 누르개장치)	“씨b” 조악기	높은음자리표 사용 실음을림은 악보보 다 큰 2도 낮다.	첫돌이(태) - 셋째돌이(솔)	콧소리에 가까우며 진하고 치량	반음계 및 반음계 베튼진행과 기교적 인 음진행, 끊기, 엮쓰기(두결,세결) 뽕음 굴림소리	선내악기, 북주 합주에서 경축적 이며 호소적인 음악을 효과적으 로 연주	무관 3중주(무궁 화 3형제) (한자위 단원의 음 명) 제 7장 무관 4중주(새봄과 종다리)

- “씨b” 조악기-악보에 기록된 소리보다 실제음이 일정하게 높거나 낮게 울리는 악기를 조옮김악기라하는데
조옮김악기의 기본음이 “씨b” 음과 같으면 그 악기를 “씨b” 조 악기라 한다. (조선예술, '82. 7)

- 돌이- (1) 본음계적음렬에서 여덟개 계단을 포함하는 음정을 말하는 것으로 완전 8도를 가르침.
(2) 음들의 고정된 높이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도”로부터 “씨”에 이르는 음렬의 한 부분을
말함. (문학예술사전, 사회과학출판사).

